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요즘 간호사 뭐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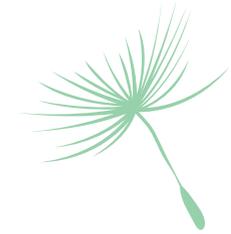


병원간호사회
HOSPITAL NURSES ASSOCIATION



병원간호사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 서문 |



2013년 어느 아름다운 봄날에
간호사 몇몇이 둘러앉아
오늘은 더 이상 병원 얘기 하지 말자고 비장한 얼굴로 다짐을 합니다.
몇 분이 지나자 언제 그랬느냐 싶게 별장게 상기된 얼굴로
앞 다투어 병원 얘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병원간호사회 홍보위원회에서
이렇게 가슴 벅찬 보람의 사연을 가슴에 묻고 사는 우리의 간호사들
구구절절 가슴 아프게 하는 사연들
가슴 떨리게 만드는 기적의 체험들
드라마, 영화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감동적인 사연들
신비로운 생명 탄생과 성장의 기쁨들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사색하게 만드는 상황들
숭고한 사랑, 안타까운 죽음들

인간의 최고와 최악을 경험하는 우리만의 이야기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간 승리의 생생한 현장
동료간호사들의 보석 같이 빛나던 아름다운 선행
다른 누구도 아닌 간호사라 행복했던 그때 그 순간들...

12만 병원간호사회 회원들의 생생한 경험들을 표출시키고자
의견 투합하여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요즘 간호사 뭐하니?」를 만들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병원간호사회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등 다양한 병원 현장에서
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외래 등 다양한 병원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의 간호사들이
수줍게 내놓은 사연, 사연들을
이젠 우리끼리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의 책으로 묶어 세상에 내 놓았습니다.

병원간호사회는 여전히
병원간호의 표준을 정립하고
향상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근거기반 간호연구를 수행하고
환자안전을 지키는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간호전문직 위상을 확립하고
간호사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젠
우리들의 어깨를 우리가 서로 도닥여주고
두 팔 벌려 힘껏 따뜻하게 안아주고
우리가 얼마나 수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간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된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중 58편을 선정하여 사례집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글을 보내주신 전국에 있는 예비 작가님께 감사를 보냅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이 글들을 읽어주신 회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요즘 간호사 뭐하니?」가 간호사들께 조금이라도 위로
를 주어 빙그레 웃음 지을 수 있는 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호현장에서 당당하게 일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2020년 1월 30일
병원간호사회 홍보위원장
변은경

첫번째 간호의 온도

- 14 · 문유라 | Nursing Cart 가 가벼워진 날
- 19 · 허혜정 | 간절히 듣고 싶었던 한마디
- 22 · 김외숙 | 국립재활원 간호사 아이디어 활동
- 25 · 김진희 | 그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 29 · 문다솔 | 내게 죽음이란
- 31 · 차지혜 | 마음 반창고
- 36 · 허현하 | 미혼모 분만
- 42 · 지현진 | 시작을 함께한다는 것은
- 46 · 이향미 | 신규간호사의 걸음마
- 49 · 최상미 | 아기천사가 된 너를 기억하며
- 51 · 강유진 | 아팠던 것, 다 털어내고 자유롭게 날아가렴~
- 54 · 원진숙 | 엄마가 품고 있는 작은 수영장 안의 기적
- 57 · 남달리 | 열송이 카네이션
- 61 · 김혜자 | 영화보다 영화 같은 NMC 메르스 기록

- 65 · 설 란 | 오늘의 위로
- 68 · 이희경 | 오지랴 덕분에
- 71 · 조하나 | 우리 직업이 주는 커다란 보람은, 힘든 일과를
뛰어 넘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 76 · 한진주 | 이른둥이의 세상 적응기
- 79 · 임민영 | 잊고 있었던 한 가지
- 84 · 김성희 |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 87 · 강민진 | 죽음의 경계선에서 만난 소중한 공감
- 90 · 황화현 | 초콜릿 할아버지
- 94 · 오미선 | 택배 왔어요
- 98 · 최정윤 | 한번만 만나주세요
- 102 · 지현경 | 해피콜서비스
- 106 · 김주이 | 헤어지는 일



두번째 그대 이름은 '간호사'

- 112 · 박지숙 간호사라서
- 114 · 박영미 간호사인 내가 환자가 되던 날
- 117 · 진종임 결국 사랑의 사명이었네
- 126 · 송예슬 나의 소중한 이야기-喜怒哀樂
- 130 · 안수미 내가 하는 일! 이거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까?
- 133 · 이윳새 라포(rapport), 마음의 유대
- 135 · 김영란 문진(文診)
- 138 · 고영옥 상처간호사가 행복한 이유
- 145 · 오은영 설명의 눈높이를 맞추다.
- 148 · 김윤영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머문 그대에게
- 151 · 김경혜 영화 <미 비포 유>를 보고
- 155 · 진종임 은혜야, 너는 별처럼 빛날 꺼야
- 165 · 정은진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라며...
- 168 · 나유미 초심으로

- 170 · 장은정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라
- 173 · 박세인 침착하게 해

세번째 '부드럽고 단단하게'

- 182 · 송현주 긴 하루
- 186 · 윤혜원 소리 없는 대화
- 189 · 한아름 소중한 행복 레시피
- 193 · 홍원기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 199 · 주현희 할머니의 선물

네번째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 206 · 이진명 가장 작은 씨앗도 자라서 하늘의 새들도 품을 수 있다.
- 210 · 이수라 누구나 처음 순간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 214 · 박혜민 서로 다른 위치, 서로 같은 바람
- 218 · 차미솔 프리젠퍼를 시작하며~
- 221 · 이영아 흐림 뒤 맑음

다섯번째 간호사 '어디까지가봤니?'

- 228 · 강 샘 간호 윤리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이구나
- 231 · 진종임 간호사, 스페인에서 기적을 맛보다.
- 234 · 김경아 메마른 땅에 뿌린 사랑의 씨앗
- 238 · 이현미 베스트 널싱 경진 대회를 아시나요?
- 245 · 이현수 베이비 박스 이야기
- 249 · 권나은 피난처, 요르단



첫번째

간호의 온도

환자와 나의 이야기

Nursing Cart 가 가벼워진 날

문유라 _ 강남세브란스병원

어김없이 오늘도 출근 시간은 다가오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병원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인간 문유라는 간호사 문유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해간다.
내 몸에 착 감긴 간호복은
입고 있는 동안 인간 문유라를 잠시 내려놓고
간호사 한 사람으로 나를 완성 시킨다.
그리고 그들 앞에 두 발로 우뚝 서 있게 만드는 기이한 힘을 준다.
말기암, 속칭 터미널(Terminal) 환자.
어쩌면 이제 익숙하고, 이미 떠나보낸 환자분들도 참 많은데..
환자 J님은 아주 오랜 기간 투병하셨던 분이였다.

PTBD도 3개, 아주 심한 황달도 어쩔 수 없이 지속되어,
피부도 눈 공막도, 온 전신이 녹빛이다 못해 검푸른빛 마저 감돌았다.
J님의 남편은 그녀에게 비판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매우 헌신적이었다.

의지와 간절함이 강한 만큼 입원 기간 내내 의사와 간호사에게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히 요구하였고, 즉각적인 처치와 설명을 요청하실 때가
빈번했다. 종종 우선순위로 요하는 업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긴다거나,
주치의의 수술방 재중으로 남편분의 요구를 즉시 해결할 수 없을 때도 많
아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든 stat!, stat! complaint를 경청하고 하나하나
중재 해드리는 것들이 의사와 간호사 모두에게 벅찼었다.

때문에 J님의 남편분의 요청으로 Notify를 할 때면, 담당 의사 선생님이
아니셔도,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더라도 이름만 말해도, 얼굴만 보아도,
모든 의료진들이 아는 환자와 보호자분이셨다.

의료진에게는 다소 예민하셨고 남편분께 조심스런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 J 환자분에게는 매우 애처가이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
한 지원군이었으리라.

어쨌거나 담당 간호사로서 병실을 들어가는 마음 한 켠은 항상 무거
울 수 밖에 없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들어드려야 할까.

어제와 오늘은 또 어떤 것이 불편하셨을까. 어떤 것을 원하실까.
내 업무시간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면 좋을텐데.
의사 선생님이 Call은 받으실까. 화만 내지 마시오.

의식의 흐름대로 많은 상념을 안고, 병실로 들어간다.

오늘따라 Nursing Cart가 굉장히. 굉장히. 무겁다.

오늘따라 병마가 완연하게 눈에 보이는

J님의 곁을 지키는 남편분과 J님이, 맞잡은 두 손이 눈에 밟혔다.

상태가 악화 되고 있는 J님의 상태 면담을 위해

교수님 외래 진료실을 방문하고 온 남편.

인수인계 내용상,

아마 완화의료기관으로 전원 준비를 하시게끔 설명을 들으셨나보다.

“교수님이...”

말을 채 잊지 못하고, 남편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얼굴이 상기된다.

말을 잊지 못하는 남편을 지그시 바라보며 기다리던 그녀가

마르고 갈라져 부르튼 입술을 달싹여 힘겹게 말했다.

“우리... 오래... 많이... 살았잖아...”

“애들도 이미 다 키워서 다 컸고..

행복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고..

살면서 들어서 겪어볼 수 있는 것들은..

당신이랑 나랑 같이..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거.. 많이 다 해봤잖아.”

눈빛만 보아도 이미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고,

되려 남편을 위로하는 그녀의 말들은

침착하게 한결같이 그녀의 곁을 지키고 간호해왔던

그를 결국 오염하게 만들었고.

녹빛에 주름진 병든 손으로

그녀는 남편을 쓰다듬고 손을 잡으며

되려 남편을 위로하며 얽게 웃는다.

천천히 이별을 준비하는 그들을 향한 짧은 목례.

묵묵히 커튼을 쳐드리는 것 밖에 헤드릴 수 없어 안타까웠다.

거동 가능하신 많은 환자 보호자 분들이

커튼 밖에서 조용히 병실을 비워주셨다. 마음껏 우실 수 있게.

그들도 젊고 건강하게 아름답게 빛난 찬란한 날들이 있었을 것이고.

함께 뜨겁게 사랑했을 것이며.

거창한 것은 아닐지라도 남부럽지 않았던

같은 꿈을 꾸고 같이 웃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세월을 걸어왔을텐데

남는 사람이 괴로울까. 떠나는 사람이 괴로울까.

무의미한 질문.

간호사 tea룸에서 살짝 나온 눈물을 훔치며

오늘따라 한껏 이입된 감정에서 빠져나왔다.

지금 당장 해야만 하는 일. 동시다발로 할 일이 진정 너무나도 많기 때문.

환자 분들의 I/O는 check하며 정작 내 몸에는 물 한 모금 화장실 한 번 못 챙기며 일하는게, 새삼스럽지 않으나 굳이 상기하자면 서럽기는 한 일이었던단. 오늘만큼은 웬지 기꺼웠다.

그리고 끌고나온 Nursing Cart.

아까는 분명 오늘따라 무겁다 느껴졌던 Nursing Cart 가
갑자기 가벼워진 것 같은 느낌은 내 착각이었을까.



간절히 듣고 싶었던 한마디

허혜정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가 근무중인 외과계 중환자실은 소아 중환자실을 품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들을 돌보는 부담감은 해가 갈수록 더 커지지만,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 또한 해가 지날수록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엄마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하고 우리 곁으로 와서 커다란 중환자실 침대에서 힘든 치료를 이겨내는 여러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웃음도 때로는 눈물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간호의 의미도 남겨주고 이곳을 떠났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와 눈맞춤 하며 반응해주고, 우리 곁에서 성장하며 우리의 손으로 먹이고 재우며 이곳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없이도 소통하고 체온을 나누며 다행히 건강한 모습을 되찾고 웃으며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이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단순한 간호가 아닌 그들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환자들이 우리를 만나기 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하여 본인의 일상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간호하겠다고 늘 다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발선에 서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많은 설렘과 다짐으로 뿔 준비를 하고 있을 시기인 2017년 3월, 설레임을 가득 안고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했던 ○○이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전에도 비슷한 상황의 또래 아이들을 떠나 보냈던 우리였기에 CPR 후 SICU로 입원했던 ○○이를 만난 순간 다들 우리 곁을 떠날 거란 두려움이 컸습니다. 사실 다시 부모님을 웃으며 만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아수라장이 된 ICU에서 이브닝, 나이트 간호사들이 흉부외과, 소아과 팀과 함께 CPR을 하며 ECMO를 넣고 나서야 ○○이는 정상 혈압과 심장리듬을 겨우 회복했고, 모든 간호사들이 나의 담당 환자인 듯 간호하며 의식을 매 시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몇시간 후 ○○이는 눈을 깜박이며 손을 잡고 놓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살았구나...’ 하고 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이는 무사히 ECMO와 ventilator 를 weaning 후 정상적인 V/S을 유지하였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었던 CPR time으로 인해 Brain hypoxic injury로 Lt. side weakness가 발생한 것 입니다. ○○이는 마음대로 팔을 움직일 수 없고 낮선 중환자실 환경에서 부모님과 의사소통만 할 뿐 늘 우리가 다

가가면 눈을 감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도통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의 모습에 우리는 더 욕심 내보기로 했습니다. 견게 하겠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과 함께 그 것처럼 운동장에서 뛰어 놀며 공부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새침한 사춘기 소녀 ○○이를 지켜내겠다고.....

매일 출근할 때 ○○이에게 눈 마주치며 인사하고 지나가면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던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통했는지 ○○이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고개 끄덕이고 살며시 손을 잡아주더니 아무 감정도 생각도 없이 그저 멍하게 있던 아이가 손가락으로 대답해 주었고, 몇일 후에는 우리가 하는 농담에도 함께 웃어 보이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와 재활치료를 하며 병동으로 갈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으로 끌어 올린 후 병동으로 전동을 갔지만, 늘 휠체어를 타고 중환자실에 방문하여 “저 이만큼 좋아졌어요!” , “저 이제 혼자서도 잘 일어설수 있어요” 라고 항상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얼마 전 퇴원 후 다시 찾아온 ○○이는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간절히 듣고 싶었던 한마디, ‘그때 고마웠다고, 기억한다고.’

그렇게 우리는 ○○이와 2017년 봄을 함께 했습니다.

국립재활원 간호사 아이디어 활동

김외숙 _ 국립재활원재활병원

자~ 박장대소 시작 아~싸, 아~ 하하하

자~ 앉아서 산에 올라갑니다. 야~호! 더 세계 야~~호! 더 길게 야~~호!

하나, 둘, 셋, 넷..... 아침마다 울려 퍼지는 힘찬 구령소리

이 소리들은 입원한 환자분들이 아침 체조에 참석하여 외치는 소리이다.

국립재활원은 뇌졸중, 척수손상, 뇌손상 등 재활을 요하는 환자분들이 입원하고 있다. 입원하면 3개월의 입원생활을 하게 되는데 치료와 간호 등 기본적인 병원 생활 외에 재활간호 프로그램으로 재활 환자들에게 맞게 자체 개발한 맞춤형 아침체조를 진행하고 있다.

아침체조는 5개 병동에서 아침 08:30~09:00까지 주중에 병동별 환

자 특성에 맞게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수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아침에 휴게실로 환자분들을 나오게 한 후 밤 동안 잘 지냈는지 확인하고 아침 인사 나누면서 아침체조를 진행한다.

수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환자 앞쪽에 마주보고 서서 체조를 진행하며 환자분들은 동작들을 따라서 한다.

병동별 체조는 약간씩 다르지만 뇌졸중 병동 환자 아침체조는 휴게실로 환자분들이 휠체어 타거나 걸어서 나오면 체조하기 편한 상태로 배열시키고 체조를 시작한다.

체조는 처음에 각자 옆에 자리한 환자와 인사나누기, 박수치기와 박장대소 등 몸을 풀어준 후 편마비 환자에게 맞게 만들어진 것을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려오면서 동작 설명하면서 30분간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폐 기능 유지를 위한 호흡법, 동요 부르기, 야~호 외치기를 하고 끝낸다.

출석 점검을 하고 환자분들은 각자 재활 치료 스케줄에 맞게 흩어진 다. 출석 확인 한 것은 월말에 통계를 내어 출석 개근상으로 양말을 지급한다. 큰 선물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은 아주 기뻐한다.

국립재활원은 재활간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간호의 영역을 뛰어 넘어 재활대상자들이 퇴원 후에도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변화된 자아상을 받아들이고 병원생활과 치료에서 오는 불안 등 스트레스에 도움을 주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아침체조이며 환자 및 보호자분들이 기뻐하고 적극적으로 체조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병동생활에서 오는 서로의 불편감, 불만 등이 많이 해소되고 있어 좀 더 따뜻한 환경에서 입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아침에 박장대소하고 구령 붙이며 체조하고 나면 많이 힘들지만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을 느낀다.



아침체조 하고 있는 사진

아침체조용 빨간 티셔츠를 입고 체조하고 있는 사람이 수간호사, 전담간호사

그녀, 세상 밖으로 한 걸음

김진희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고된 현실에 도피만 하던 삶 속에서 비극을 건디고 희망을 만나게 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10년차 간호사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다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오픈하면서부터 병동에서 근무하게 된 김진희 간호사입니다. 짧은 병동 근무기간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환자를 소개하려 합니다. 언론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환자라 생각합니다.

키 160cm, 몸무게 156.8kg 환자가 저희 병동으로 온다고 했을 때 병동 식구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환자분은 우울함과 가정불화, 욕구 불만 등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과식이 시작되었고, 점차 고도 비만의 상태로 1년 전부터는 거동이 불가능하여 24시간 남편의 수발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소변 또한 스스로 치울 수 없으며 누우면 숨이 차서 얹드려 지내는 생활이 지속 되었습니다.

병동으로 전동 왔을 당시 환자분은 기본적인 개인위생이 잘 되지 않아 매일 침상 목욕을 하였습니다. 혹시나 욕창이 생기 않을까 에어 매트리스 적용은 물론 6~7명이 자주 체위 변경을 하며 접힌 피부가 짓무를까봐 매 근무 마다 동료들이 확인 하였습니다. 환자분의 정서적 상태는 빈번한 다이어트 시도로 지쳐있어 자존감이 저하된 상태로 담당 간호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병원 생활에 소극적이며 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수술을 택했을 때, 초반에는 긍정적이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사로 인해 수술 일정이 밀리면서 불안과 회의적인 반응이 증가하여 급기야는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 하겠다며 울부짖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누구보다 힘들었을 환자의 마음을 알기에 담당 간호사들은 간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간호사들은 환자의 감정 상태 및 작은 변화까지 먼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150kg이 넘는 환자라 체위 변경이나 침상 목욕이 담당 간호사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들어 동료 간호사뿐만 아니라 보조 인력까지 모두 같이 참여하며 환자분에게도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전해졌으리라 생각 됩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의 장점인 전인간호를 함으로써 환자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수술을 받아들이고 수술실로 향하는 뒷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없이 식사도 시작하

고 체중감량도 계획한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고 강한 재활 의지로 다이어트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였습니다. 퇴원 시까지 17.3kg 감량하였고 수술 후부터 똑바로 누워 수면을 취하고 앉아서 식사도 가능해지며 침상 내 움직임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수술하게 된 계기인 방송사 프로그램에도 성공사례로 방영되어 밝아진 표정과 의욕이 넘치는 환자의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까지 간호사로서 보람과 우리가 하고 있는 전인간호의 긍정의 힘을 보았습니다.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내딛는 희망찬 인생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더불어 다음 외래방문 때에는 걸어서 내원하겠다고 약속했기에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내게 죽음이란

문다솔 _ 분당차병원

학생 간호사 시절, 내게 환자는 Case였고, 사망은 Event였다.

Arrest의 상황은 너무 빨랐고 극적이었으며 나와 동떨어진 다른 세계였다.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보호자가 원하니 올 때까지 CPR을 계속 해야 하는 상황. 첫 10분. 모든 걸 쏟아붓고. 그 다음 10분. 모두가 체념해가는 시간. 내게는 단순히 그런 상황이었다.

7월8일

그 날의 사망 Event는 내게 현실을 요구했다. 많은 생각이 드는 와중에 이 모든 감정과 후회를 덜어낼 방법은 오직 시간뿐이라 생각했지만 그 방법이 정말 시간뿐인지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게 했다. 아직도 기억이 새록새록 하다. ○○이를 처음 본 날. 난 990g의

○○이를 보았고, 시간이 지나, ○○이는 nasal vent를 weaning하고, high flow를 달았다. 면회시간 어머니는 ○○이 발치 끝 의자에 앉아 숨죽여 우셨다. 나는 ○○이가 치료의 한 단계, 한 단계를 잘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했고 어머니의 어깨를 토닥여드렸다.

11월 28일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vent 카운트를 하며 누군가 밤사이에 humming-x를 달았음을 알았다. 그게 ○○이 일줄은 몰랐다. “CPR 해야 할 것 같아요!” 큰 소리가 들렸다. 전공의를 찾아 당직실을 급하게 두드린다. HR와 SP0₂가 떨어지고 알람이 울렸다.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Epi(epinephrine)를 준비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산소 모니터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급히 전화로 전공의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큰 카트를 끌어왔다. N/S를 채웠다. 뒤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Dopa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는 약을 찾으러 뛰어가고 누군가는 Syring pump를 장착하고 누군가는 자리를 만들면서 누군가는 계속 기록하고 누군가는 보호자에게 전화하고 누군가는 계속 ○○이를 압박했다. 긴급하고 복잡했던 상황. 다행히도 ○○이는 그 고비를 넘겨주었다.

그러나 다음 근무 때 내게 들린건 ○○의 사망소식이였다. 간호사로서 죽음은 많은 Event들 가운데 하나겠지만 ○○이 가족들과 내게는 현실. 간호사로서 더 공부하고, 더 기민하게 반응해서 그들의 가족에게는 피붙이를 잃은 슬픔을 주지 않기를. 멍멍해지는 이 가슴 다시는 느끼지 않도록.

마음반창고



차지혜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6년 1월 어느 날 인공 신장실 회의실 게시판에 붙여진 연간 계획표를 보았다.

‘이럴 수가 내가 2016년 간호본부 사업인 공감 간호의 리더가 되다니! 우와!’ 나를 공감 간호 리더로 선정해 주신 수선생님께 감사했고 잘 해내야겠다는 부담도 있었다. 일단 공감에 대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감 연습’이라는 책을 읽었고 ‘좋은 간호’에 대한 논문을 찾아 읽었다. 그리고 인공 신장실 환자가 생각하는 공감 간호와 간호사가 생각하는 공감 간호를 설문지로 조사하였다.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경청’과 ‘대상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이 가장 실질적인 기술인 것 같아 공감 간호 시행 날에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무엇보다 간호사들의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을 구비하여 인공신장실 모든 간호사들이 읽을 수 있도록 회의실 내에 두었다.

드디어 공감 간호 시행 날인 3월 15일이 되었다. 나의 공감 간호 첫 번째 대상자는 본원 유지 투석을 6년째 받고 있는 여자 72세 환자 안○○님. 그분은 나와 라포가 잘 형성 되어 있었다. 예전에는 멧쟁이로 웃도 예쁘게 차려 입으시고 항상 웃는 얼굴로 인사해주셨는데 최근에는 힘없고 우울한 표정으로 구멍이 뚫린 회색의 튜리닝을 입고 오시는 등 너무 변한 모습에 걱정이 되어 대상자로 삼았다. 나는 투석을 하고 계신 안○○님에게 갔다. “어르신, 오늘은 어르신 말씀 들으려고 온 날이에요. 어르신이랑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물었다. 안○○님은 “죽지 못해서 살지. 요즘은 입맛도 없고 웃기도 싫어. 작년에 영감이 쓰러지고 요양병원으로 갔어. 그나마 주말에 한 번 오는 아들 내외는 영감에게 가고, 나에게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야.” 라고 말씀하셨다. 그제 나는 “네. 그렇군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외로우실까?”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너무나 외로운 안○○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어 눈물이 났다. 안○○님은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서 강아지와 산다고 하셨고 미국에 이민간 딸이 그렇다고 하셨다. 다행히도 일요일에는 친한 친구가 위로 차 안○○님의 집을 방문한다고 하였다. 안○○님이 하시는 말씀을 1시간 반 동안 듣고 있는데 어느 새 투석을 마칠 시간이 되어 바늘을 제거해 드리고 지혈을 해드렸다. 나는 안○○님 손을 꼭 잡고 “어르신. 힘내세요.” 라고 말씀 드렸다. 안○○님은 “오늘 내 이야기 들어주느라 고생했네.” 라고 대답해주셨다. 그

날 점심식사를 하고 오신 수간호사님이 나에게 “오늘 안○○님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활짝 웃으면서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선생님이 안○○님 말을 잘 들어주었나 보네요.” 하고 말씀해주셨다. 그 후 안○○님은 예전의 밝은 미소를 다시 지으시며 인사하였고 반짝거리는 큐빅이 박힌 화이트 니트 셔츠를 입고 오셨다. 너무 예뻐 보였다. 한 달이 지난 후 안○○님이 나를 보면서 “선생님이 그 때 이야기를 들어준 날 이후 힘이 났어. 너무 고마워요.” 라고 말씀해주셨다. 안○○님을 변화시킨 공감과 경청의 힘이 놀라웠고 나에게도 이 일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

두 번째 대상자는 남자 54세 환자 송○○님. 투석을 시작한지 불과 이주일 밖에 안 되신 분으로 우울해 보이는 과묵한 환자분이셨다. 투석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투석과 관련된 불안감 정도를 사정하고, 정서적 지지와 함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대상자로 정하게 되었다. 공감 간호 시행 날이 송○○님의 퇴원 날이었다. 투석을 하고 계신 송○○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나는 ‘언제 깨실라나?’ 하고 송○○님을 살폈다. 드디어 송○○님이 잠에서 깨어 눈을 뜨고 계셨다. 나는 송○○님에게 다가가서 “송○○님 많이 피곤하시지요? 오늘 퇴원하시는 날이네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신가요?”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송○○님은 어색해 하면서 “네. 오늘 퇴원해요.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지요?”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예상 병원비를 알아보고 대략 700만원정도 라고 말씀 드렸다. 송○○님은 걱정스런 얼굴로 지금 아내가 병원비를 구하러 다니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다. 나는 ‘퇴원 당일 날 병원비가 없으시다니……. 아! 이 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송○○님,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시는군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라는 나의 말에 송○○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송○○님은 전라도 부안에 있는 섬에 살고 있고 섬에서 혈액 투석하는 병원까지 다닐 수가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복막 투석을 택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앞으로 약을 배에 실어 다니는 것도 걱정이고 약 값도 걱정이라고 하였다. 내가 도와주고 싶는데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 문득 사회복지서비스가 생각났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 송○○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송○○님의 딱한 사정을 말하고 필요한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보교육을 부탁하였다. 타과 의뢰도 없이 전화 한 통으로 내 부탁을 들어준 사회복지사는 환자에게 직접 필요한 사회복지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정말 기뻐 그 사회복지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그 내용을 환자와 병동 간호사에게 인계 하였고 환자는 퇴원하였다. 한 달 후, 송○○님이 궁금하여 전화를 걸었을 때, 송○○님은 퇴원하는 날 사회복지사 교육을 잘 받았고 차상위로 인정되어서 퇴원 시 병원비도 170만원만 내었다고 하며 고맙다고 말씀해주셨다. 송○○님이 밝은 목소리로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음이 나의 마음에 전해졌고 나의 마음도 밝고 따뜻해졌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는 보람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던 기쁜 경험이었다.

공감 간호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시행한 ‘소시오 드라마로 공감을 이해하다.’ 라는 교육에 참석했다. 이 날 연출된 드라마에서는 팀장님들이 일

반 병동 간호사의 역할을 맡고, 일반 병동 간호사들이 불평이 심한 고객의 역할을 맡았다. 실제 상황처럼 생생하게 연기하는 간호사들과 연륜이 있는 팀장님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보면서 타 부서 간호사들의 상황이 이해가 되고 환자의 입장이 공감이 되는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간호사들의 힘든 마음을 팀장님들도 공감해주셨는데, 공감 받는 느낌이란 나를 인정해주는 따뜻함이라는 것을 체험하였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 모두와 공감하며 환자에게 진심 어린 공감 간호를 시행하고, 간호의 대상이 환자라는 사실을 넘어, 한 분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간호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 마음의 헤아림이 다져진 것 같아 기쁘다. 상처 난 곳에 붙이는 반창고처럼, 환자의 지친 투병과정에 살아갈 힘을 실어 주는 따뜻한 지지로, 환자의 아픈 마음에 반창고가 되어주는, 그런 간호사가 되고 싶다.



미혼모 분만

허현하 _ 인하대학교병원

1. 상황진술

2013년 8월 7일 새벽 3시 10분경 응급실로 도착한 이○○(22세) 산모가 분만실로 올라온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8월 6일 오후 9시경부터 발생된 labor pain으로 보호자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내원했고, 한 번도 산전 진찰을 받지 않아 임신 30주 정도로 추정된다는 인계를 받았다. 분만실 입실당시 active labor pain을 호소하여 주치의는 즉시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초음파상 태아는 임신 약 39주 정도로 추정되었으며 간단한 정보조사를 통해 산모는 현재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위에 임신사실을 알리지 않은 미혼모임을 알 수 있었다.

2. 간호문제진술

분만실 입실당시 내진결과 자궁경부가 full로 개대되어 분만이 임박한 응급 상황이었다.

한 번도 산전 진찰을 받지 않아 아기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출생 후 아기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만일의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산모의 산과력 및 과거력, 흡연력, 음주력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신생아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준비한 상황에서 분만 진행상황을 지켜보았다. 분만실 도착 후 약 30분이 경과한 8월 7일 오전 3시 48분에 자연분만을 통해 건강상태가 양호한(Apgar score 9-)9점) 3.16kg의 예쁜 여자 아기가 태어났다. 준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출산으로 산모가 많이 놀란 상태였기 때문에 분만 후 1시간정도 조용한 방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BP monitoring 및 산후출혈을 관찰하며 산모가 안정되기를 기다렸다. 임신 기간 동안 산전 진찰을 받지 않은 탓에 입원당시 Hb은 9.9g/dL에서 분만 후 8.1g/dL로 빈혈이 심한 상태였고, 보호자도 없이 어린나이에 갑작스럽게 출산을 하게 되어 신체 간호를 하는데 있어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금씩 안정을 되찾은 산모에게 조심스럽게 history taking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산모는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시종일관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며 협조적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서적 지지를 통해 산모를 안정시키고 1~2시간이 경과한 후 산모와 단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조용한 환경에서 다시 대화를 시도해 보았다. 산모의 이야기를 듣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침묵과 기다림이 필요했다.

한참이 지난 후 산모는 갑자기 울음을 터트렸고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임신기간 동안 있었던 힘들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산모는 현재 대학교 4학년으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학교가 끝나고 늦은 밤 기숙사로 돌아가는 골목길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한 대학선배로부터 주차장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너무 무섭고 불안했지만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가족이나 주변사람에게조차 알릴 수 없었고 워낙 생리주기가 불규칙했기 때문에 임신인줄 모르고 지내다가 6개월이 지난 후 배가 불러오고 태동을 느끼면서부터 임신사실을 자각했다고 한다. 복대로 부른 배를 감추며 학교생활을 했고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해 바로 기숙사로 돌아와 자는 척을 하며, 혹시나 남들이 알게 될까봐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워낙 가부장적이고 엄격하신 부모님아래 성장했기 때문에 가족들에조차 알릴 수 없었고 방학 동안에도 학교에 일이 있다는 핑계로 기숙사에서 생활 하며 남들 눈에 띄지 않게 외출조차 자제했다. 임신임을 알게 된 이후 무섭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까봐 두려운 마음에 아기를 포기하려고 여러 차례 생각했지만 아기에 대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차마 아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아기를 데려다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후 입양이라는 힘든 결심을 하게 되었고 이후 틈틈이 밤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출산비용과 함께 태어날 아기에겐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기이름으로 된 적금통장도 만들며 아기와의 만남을 기다렸다.

산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어린나이에 감당할 수 없는 상처와 수

치심, 죄책감으로 무척 힘든 모습이었다. 대화 중간 중간에 긴 침묵의 시간이 많았지만 침묵조차도 산모의 마음이라 생각하고 기다려주며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산모는 대화를 마친 후에도 한참동안 눈물을 보였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졌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산모에게 가장 필요했던 간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상대방의 진실된 마음과 따뜻한 위로, 경청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3. 간호진단

- 양육 불능으로 인한 신생아 입양과 관련된 우울감
- 분만 후 신체간호와 관련된 지지자원의 부족
- 혈액색소 수치 감소와 관련된 조직 관류 장애 위험성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의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불안
- 분만 후 유방울혈과 관련된 급성통증
- 산후관리와 관련된 지식부족

4. 문제해결과정

분만 후 모유수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방울혈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 breast binder를 감아주고 주치의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젖 말리는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하도록 하였다. 학생 신분의 미혼모로 몸조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적 상황에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칫 출산 후 몸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 자료를 이용하여 산후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빈혈교정을 위해 입원기간동안 철분제를 IV로 투여하고 분만 후 3개월까지 처방에 따라 철분제를 복용하도록 교육하였다. 그리고 산모가 가장 걱정하는 입양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상황을 수간호사님께 보고하고 입양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홀트 아동복지회 담당자와 연계하여 상담을 연결해 주었다. 그러나 2012년도에 개정된 우리나라 입양 특례법상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 키우면서 일주일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입양이 가능하다는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산모의 입장에서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이었다. 산모의 사정을 알게 된 신생아실과 산부인과는 협의를 통해 아기를 일주일동안 신생아실에서 보호해주기로 결정한 후에야 비로소 산모는 퇴원 할 수 있었다.

이후 일주일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 아기가 홀트 아동복지회로 떠나는 날이었다. 학생 신분으로 가진 돈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어린 엄마였지만 아르바이트로 마련한 아기이름으로 된 적금통장과 편지 한 장으로 아기의 행복을 빌어주며 울고 있었다. 비록 어린 엄마였지만 마음만큼은 모성애로 가득 찬 진정한 엄마였음을 느낄 수 있었다.

퇴원 후 2주가 될 무렵 산모의 건강상태가 걱정되어 해피콜을 시행하였다. 산모는 건강한 상태로 이전의 학생신분으로 돌아가 비교적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며 지낸다고 안부를 전했고 입원기간동안 마음을 다해 도와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5. 간호평가와 소감

우리나라 여건상 미혼모가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이유로든 임신한 여성이 한 생명을 소중히 여겨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2012년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와 1주일간의 숙려기간이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입양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미혼모에게 아기를 유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현실적 부작용이 있다. 이 산모의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임신 기간내내 고통의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찌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산모가 오히려 입양특례법이라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또 한번 고통 받는 것을 보고 미혼모를 향한 현실적 장벽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다.

생명의 탄생을 알리는 분만실에서 근무하면서 아기의 울음소리에 웃음 짓던 많은 행복한 산모와 달리 아기의 울음소리와 함께 터져버린 어린 미혼모의 눈물은 잊지 못할 순간인 것 같다.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대신 사랑과 모성애로 아기를 품은 어린 산모에게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더 이상 이런 아픔으로 고통 받는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다.



시작을 함께한다는 것은

지현진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16년 11월, 첫 만남

내가 일하는 곳은 순환기내과 병동이다. 어느 때와 같은 데이 근무 날이었다. 이곳에 배치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생 신규' 였던 나에게 벼락같은 30여개의 추가 오더가 들이닥쳤다. 다름 아닌, '심장 이식' 을 등록하기 위한 각종 검사 오더였다. 난생 처음 보는 검사 항목들 앞에 나의 머리는 백지장처럼 하얘지기 시작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차지 선생님은 함께 오더를 읽어주며 라벨을 뽑아주셨다. 라벨이 모두 출력되기까지도 한참. 검체 바틀에 모두 붙이고 나니 이번엔 엄청난 양의 채혈이 필요하단 사실에 정신이 아득했다.

'안 그래도 자그마한 분인데...' .

그랬다. 심장 이식의 주인공은 뽀얀 얼굴을 가진, 웃는 얼굴을 보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자그마한 체구를 가진 아주머니였다. 심부전이 진행되어 체내인공심박동기 삽입을 위해 입원한 중에, 교수님이 심장 이식 등록을 권유 하셨던 것이다. 심장 이식을 위한 첫 단계에 내가 함께 하자니 긴장되면서도 기쁜 마음이 들었다. 무사히(?) 장기 이식 센터에 등록을 하고, 3박 4일의 입원기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로 짧고도 긴 정을 나눴다. 아주머니는 예정대로 퇴원하셨고, 나는 그 후로 2~3번 정도의 장기이식 등록 과정을 더 경험했다. 차츰 능숙하게 그것들을 해결했고, 첫 번에 느꼈던 긴장감도 조금씩 수그러지는 듯 했다.

2017년 여름, 기다림의 시작

어느 날 옆 병동에서 환자가 전동을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환자의 차트를 열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았지만, 의무기록을 보니 분명했다. 내가 첫 심장 이식 등록을 도왔던 그 환자였다. 증상이 악화되어, 약물 치료와 이식 대기를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병동으로 들어오는 순간,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다. 뽀얀 얼굴,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하는 미소. 환자를 침상으로 안내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내내 '그 때 계획했던 일본 여행은 다녀왔는지', '간호학과를 다니다던 딸은 잘 있는지' 조잘조잘 안부를 물었다. 이 병동에서 그녀를 맞이한 첫 번째 간호사가 다시 '나' 라는 사실에 기쁨을 감추기가 어려웠다, 감사하게도 나를 기억해주었던 아주머니는 즐겁게 답해주셨고,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겨내고 계신 듯 했다.

하지만, 그녀가 심장 이식을 받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했다. 다인실에서 만난 수 많은 환자들 틈에 신경이 곤두서는 날도 있었고, 이식이 준비되었다가 취소되기도 했고, 그 무엇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함 안에서 힘든 시간을 지내야 했다.

2017년 11월, 심장이식

이식 리스트에 등록된 지 1년, 다시 입원을 하고 이식을 대기한 지 5개월. 드디어 심장 이식이 가능하다는 연락이 왔다. 수술장에 들어갔던 이야기까지 듣고서야 한 시름 놓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출근과 동시에 나는 그녀의 안부를 찾아 물었다. 수술 후 만 하루가 지난 시점. 그녀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새 심장과의 첫 번째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머니를 다시 병동에서 만날 수 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격리실 문을 열었다. 여전한 미소로 나를 반겨주셨다. 반가운 마음에 덩석 손을 잡았다. 이전보다 손은 더 따뜻했고, 그녀는 심장 뛰는 것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잠을 못 잘 지경이라고 말했다. 상기된 아주머니의 얼굴만 봐도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비교적 젊은 환자였고 전신 컨디션이 좋아 금세 회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다. 2주 정도 지났을 때, 이식 거부반응이 확인되어 입원기간은 연장되었고 생소한 검사와 처방, 여러 복잡한 간호 처치들이 행해졌다. 그런 중에도 '나을 수 있다!' 는 아주머니의 용기와 밝은 미

소는 변함이 없었다. 처음 만났던 그 모습 그대로 긴 시간을 견뎌주셨다.

벚꽃은 과연 병원 밖에서 볼 수 있을지 막연한 계획만 세워보던 그때, 교수님은 크리스마스 전에 집에 갈 수 있겠다며 선물 같은 퇴원 소식을 전하고 가셨다. 퇴원을 하는 날까지도(정확히는 퇴원 전날 나이트 근무에) 나는 아주머니의 담당 간호사였다.

누군가 새로운 삶을 시작 하려 하는 순간에, 감히 함께할 수 있었음에 웬지 모를 몽클함이 느껴졌다. 돌이켜보건대, 그토록 서툰 내 모습을 보면서도 늘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셨던 것은, '아주머니도 나의 처음을 응원하고 계셨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자꾸만 눈물이 날 것 같아 그날 밤은 아주머니와 눈을 마주치기도 어려웠다. 대신, 그런 나의 마음을 담아 퇴근 전 짧은 편지를 남겼다. '이식의 시작부터 또 다른 시작을 앞둔 지금까지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고. 그리고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퇴원하면 뭐가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녀는 벅차오르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 차려주는 거요." 우린 마지막으로 손을 마주 잡고 잠시 그대로 있었다.

앞으로도 종종 그녀가 외래를 방문하거나, 검사를 받으러 오는 날이면 은근히 기다리게 될지도 모르겠다. 검사결과가 나쁘진 않을지 걱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마나 좋아졌을지 기대하기도 할 것이다.

시작을 함께한다는 것은, 긴장과 설렘. 그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응원을 멈추지 않는 것이 아닐까? 2018년에도 그녀의 새 심장이 힘차게 뛰어주기를 응원한다!

신규간호사의 걸음마

이향미 _ 분당차병원



올해 초,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보상받은 듯한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의 기쁨을 누리고 원하는 병원에 취업해 입사한 지 7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평소에 아기들을 좋아했던 터라 NICU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입사 첫날 긴장되었던 마음과 달리 부서 선배간호사들의 환대를 받으며 신규간호사로서 첫 걸음마를 내딛었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낯설었던 나는 프리셉터 선생님과 2개월 트레이닝을 받은 후 독립을 하게 되었다. 엄마 뱃속에서 채우지 못한 시간들을 대신해 아기들의 엄마가 되어야 했기에 의욕만큼은 충분했지만 여전히 서툴 수밖에 없는 나는 신규간호사였다.

선배간호사에게 인계를 주며 모르는게 많아서 미처 챙기지 못했던 일들에 대해 혼이 났던 날, 애써 눈물을 참아가며 퇴근을 하는 길이었다. 잘하고는 싶은데 마음처럼 안되서 속상했던 마음을 들켰는지 어렵게만 느

껴졌던 선배간호사가 밥을 먹고 가라며 나를 붙잡았다. 누구에게나 서러울 법한 신규간호사로서의 시간을 이해해주시며, 지친 마음을 다독여주셔서 마음의 빗장을 허물고 한참을 울었었다.

신규간호사로서의 삶은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교대 근무를 하느라 수면장애에 시달리기도 하고, 압박스타킹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다리 부종과 아기들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마음 졸여하며 근무하느라 하루내 긴장했던 몸이 풀려 집에 와서는 지쳐 쓰러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배우고 깨달으며 관계의 돈독함까지 느끼고 있다. 하루에 한 시간 허락된 면회를 위해 긴 줄을 선 모습을 보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는 아기를 부모에게 안겨주며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받을 때 울컥하는 감동을 느낀다. 신규간호사로서의 고충을 늘어놓으며 하루치 고단함을 씻어내는 동기들과의 만남에 벅찬 마음을 느낀다. NICU 아기들과 신규간호사는 닳은 점이 많다.

이 곳에서 아기들은 첫 소변, 첫 대변, 첫 수유를 하며 자라나고, 신규간호사는 첫 정맥 라인, 보호자와의 첫 라포 형성, 첫 사회생활을 하며 자라난다.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으로 연결된다는 간호사로서의 사명감은 지금을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여전히 서툴고 매일이 두렵지만 아기가 발을 떼어놓는 첫 걸음처럼, 신규간호사로서의 첫 걸음마가 훗날 어떤 변화를 가져올 지를 기대하고 있다.

사랑스러운 아기들을 바라보며 학생일 때 그려보았던 미래의 나의 모

습과 지금의 모습을 건주어 첫 마음을 잃지 않도록 되새기고 있다. 출근길마다 되뇌이는 '아기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기' 라는 간절한 바람이 오롯이 전달되어 아기와 내가 매일 조금씩 건강하게 자라나길 기도한다.



아기천사가 된 너를 기억하며

최상미 _ 중앙대학교병원



딱 2주 만이었지. 혈당, 혈압, 컨디션이 모두 떨어진 너에게 도파민, 도부타민, 바소프레신, 에피네프린까지 우리가 달 수 있는 모든 승압제를 달았던 그 날로부터.

아니야, 너희 부모님이랑 얘기하려고 수화도 연습해왔단 말이야. 이리지 마.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너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준 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힘없이 축 처져있던 네가 쩡그리며 울기 시작하고 바이탈이 안정되는 걸 보며 '아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굳어있던 내 얼굴에도 웃음이 났어. 다행이다. 차팅은 모조리 미뤄둔 덕에 새벽에 혼자 퇴근하면서도 마음만은 가벼웠던 것 같아.

희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초극소 저체중 출생아. 심장을 수술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몸무게가 3kg이 되어야만 수술할 수 있는데, 하루 Input의 제한과 이뇨제 사용으로 인해 3kg이 될 수는 없다.

즉, 가망 없음.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떤 이벤트에도 꺾끗하게 버텨내고, 몸무게도 조금씩 늘어가던 너였는데. 승압제도 다 끊고 혼자서 혈압 유지도 잘 했었잖아. 하지만 당장 피할 수 없었던 장루 수술이 너에게 너무 큰 힘이 있었는지. 출혈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이전에 다 끊었던 승압제들을 모조리 다시 달았고, 그래서 혈압이 오르면 다시 출혈이 심해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을까. 그래도 계속 부었어. 이전처럼 네가 다시 살아나리라 굳게 믿으며.

하지만 결국 아기 천사가 되어버린 너.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너를 내가 보내게 되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아주며 인사할 수 있어 다행이야.

2개월하고도 21일, 누군가에겐 찰나의 시간이지만, 너에게는 평생이었던 나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았다는 걸,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 모두 기억할게.

아기 천사로 쑥쑥 커서, 할머니 말씀처럼, 다음에도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나길. 부디 건강하게.

아팠던 것, 다 털어내고 자유롭게 날아가렴~

강유진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제가 만났던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를 처음 봤던 건 7~8년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는 22살의 군인으로 국군수도병원을 통해서 제가 일하던 병동으로 처음 입원하게 되었고, 그 후로 한 달에 한번씩 우리병동과 타병동에 번갈아 입원하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의 병명은 “HCC & HBV carrier”. 입대 전, ○○는 신병검사에서 간에 약간의 이상소견이 있는 것으로 나와 2차 검사를 권유 받았지만 이에 대한 추가 검사 없이 입대하였고 몇 달 후, 복통과 고열로 군병원에 입원, 그리고 다시 우리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 달에 한번씩 계속 되는 TACE 혹은 RFA 시술을 받았고, 10회 이상의 TACE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은 점점 더 전이가 되었고, 시술 횟수가 늘어날수록 ○○의 간 혈관은 더 이상 시술이 어려울 만큼 손상되어 갔

습니다. 그리고 lung meta로 혈액종양내과에 의뢰되어 전신항암화학요법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를 처음 봤을 때는 까칠하고 예민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순회 때에는 항상 안대를 하고 자고 있어서 V/S 측정을 위해 몇 번씩 병실을 가야 했고, 통증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아 간호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이다 보니 의료진이 이야기 하는 의학용어를 찾아서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익히거나 본인이 앓고 있는 질병과 치료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션에서 하는 이야기나 검사나 시술실에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아 듣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아서 늘 질문이 많았던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예민하게 구네’, 혹은 ‘왜 이렇게 질문이 많지?’ 라고 생각하면서 귀찮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친구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무슨 생각을 할까?’, 이렇게 어린데, 나이가 지긋한 어른도 받기 힘든 시술을 수 차례 견뎌내는 모습을 보면서 ‘ 대단하다’ 라는 생각과 함께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 속에서 흘러 나왔습니다. 병실에 갈 때마다 특별한 처치나 투약이 없더라도 한번 더 얼굴을 마주치고, 볼 때마다 더 많이 웃고, 많은 질문에도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알려주었습니다. 저의 관심과 태도가 달라지면서 까칠하던 ○○와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하루는 ○○가 수줍게 이야기 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천사예요. 병원에 오는 건 무섭고 싫은데, 그래도 선생님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라고.. 그 말은 제게 그 어떤 칭찬보다도 큰 감동과 위로

가 되었습니다. ○○는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살고 있던 거제도에서 분당까지 먼 거리를 오가며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었지만, 2010년 8월 1일 안타깝게도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 때는 타병동에 입원해서 ○○를 담당하지는 못했는데, 한번이라도 찾아가서 만났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오래도록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 친구를 대할 때 늘 궁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꿈이 있을까?’

한번쯤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걸, 그랬다면 꿈을 이룰수 있도록 이 아이를 더 격려하고 응원하고 같이 희망을 품고 간호할 수 있었을텐데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어도 ○○는 문득문득 제 가슴 속에서 나와서 그 때 처럼 웃고 아파하고 24살이 되어 가는 아이처럼 해맑던 모습으로 여전히 떠오릅니다.

“○○이야, 이제는 아프지 않지? 아프지 말고 자유롭게 날아서 영원히 평안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보고 싶다.”



엄마가 품고 있는 작은 수영장 안의 기적

원진숙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만장은 탄생의 축하와 웃음이 가득한 곳이라 생각 할 수 있지만 사실 3차병원 분만장에서는 고위험 산모들의 슬픔을 보게 되는 일이 적지 않다. 재태 기간을 잘 연장하여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기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들도 있다.

여러 해 분만장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례의 산모들과 신생아들을 만났다. 그 중 특히 더 생각나는 산모가 있다.

늦은 나이에 어렵게 첫 임신에 성공한 그 산모는 양수 감소증, 태아 성장지연, 완전 전치태반, 자간전증으로 조산의 위기를 여러 번 겪어야 했다. 양수는 태아의 성장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런 양수를 엄마가 품고 있는 '작은 수영장'으로 비유하기도 한다. 23주 3일에 입원한 산모의 자궁 내에는 양수가 거의 없었다. 태아의 체중은 주수에 훨씬 못 미

치는 330g에 불과했다. 산모는 입원 동안 세 번의 양수 주입술을 시행 받았고 매일 초음파와 태동 검사로 세심한 관찰이 필요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한 태아 상태와 달리 산모와 간호사들의 라포는 더 끈끈해 지면서 정이 쌓여갔다. 검사하러 분만장에 오면 누구나 알아보는 산모가 되었으며 오늘 컨디션은 어떤지 자연스레 안부를 묻고 가벼운 농담으로 웃음 짓기도 했다.

산모와 간호사는 늘 같은 마음이었다. 응급상황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 재태기간을 더 연장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마음이었다.

입원 시 불안이 가득한 표정이었던 산모는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의지하며 마음의 불안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다. 태아도 조금씩이지만 자라고 있었고 주수도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산모와 태아는 조마조마한 고비들을 넘기며 하루하루 63일이라는 시간을 견뎠다. 때론 증상의 호전으로, 때론 의료진의 기대로 견뎌낸 시간들이었다.

32주 3일이 되던 날 더 이상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하였고 1.13kg의 아기가 태어났다. 비록 34주는 넘기지 못했지만 330g의 태아가 1.13kg의 신생아로 태어난 것은 입원 기간 중 발생했던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을 생각했을 때 기적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분만장 간호사로서 큰 보람을 느낀 사례이기도 했다.

산모가 63일이라는 시간을 병원에서 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

다. 게다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면 더 괴로울 것이다. 산모가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의지해준 것이 재태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믿는다.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라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간호를 함에 있어 환자의 불안한 마음까지 녹일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며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진정한 간호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산모는 행복해야 할 임신 기간 중 두 달을 병원에서 보냈다. 남들보다 고생한 만큼 더 큰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며 앞으로 펼쳐질 아기의 삶에 건강과 풍요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



열송이카네이션



남달리 _ 삼성서울병원

건축가는 사람을 위한 공간을 설계합니다.

예술가는 사람의 감성을 풍요롭게 하고요,

요리사는 미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합니다.

인간의 '삶'을 위해 누군가가 일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나의 직업은,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사람' 그 자체를 돌보는 일입니다.

나는 간호사입니다.

나는 암센터에 근무 합니다.

처음 이곳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나는 암 환자들이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거의 일주일에 한번 꼴로 사후처치를 하

다 보니 환자들이 다 나아서 퇴원을 하는 것이 나에게서 더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병동을 사랑하고, 이 일을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가슴 울리는 감동이 있기 때문이며, 환자들이 각자의 시간을 꾸려 나가는 것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병동은 특성상 장기 환자가 많습니다. 그분들과 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나이를 한 살씩 나누어 먹으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게 서로 부대끼며 살다보니 특히 생각나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 제가 나이트 근무를 할 때 이었습니다. 6인실 붙은 모두 꺼져있고, 다른 환자들은 모두 훗훗 나는 단꿈을 꾸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들고 이리저리 병실 라운딩을 하던 중, 주무시는 줄 알았던 그분이 순간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곧 죽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어떤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지 상상하지 못하는 나는 그 말에 왠지 마음이 울컥하였습니다.

“저 시집갈 때 꼭 오세요. 제일 먼저 청첩장 드릴게요.”

나 스스로도, 그리고 당신도 나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분은 “정말 나 초대해 줄 거야?” 라고 연거푸 물으시며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 후 얼마 뒤, 나는 그분의 사후처치를 하였습니다. 그날 새로 산 마스크라를 처음 칠하고 출근했던 저는 혼자 숨어 검은 눈물을 몇 바가지나 쏟았는지 모릅니다.

제 가슴에 오래 남아있는 분입니다. 자신은 무시무시한 암성통증에 몸을 떨면서도 선배에게 혼쫓이 나고 코끝이 빨개진 나를 자신의 침상 뒤로 숨겨놓고 세상의 모든 좋은 덕담들을 다 쏟아부어주신 분이니까요.

병원이란 곳은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레테의 강과 같은 곳이기에 그 어느 곳보다 삶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고 죽음과의 치열한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환자들이 단 한순간도 삶에 대한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당신의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선고를 받을지라도, 매 순간을 불꽃처럼 강렬하게 살기를 당부합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끝을 향해 빠르게 타들어가는 성냥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는 간호사도, 의사도 무력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간호사로서 제공할 수 있는 진짜 supportive care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도 중요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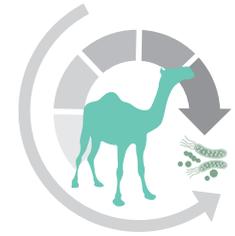
“0시 0분 000님 사망하셨습니다.” 라는 담당의사의 사망선고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이 정리되기에는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어느 환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곁을 지키던 가족들은 서서히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그분의 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라고. 나는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임종을 지켜왔지만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내 귀에 저렇게 속삭여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환자들은 나에게 삶에 대한 태도를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자칫 말랑한 심장을 잃어버리고 감정은 메말라 버리기 쉬운 이 병원이라는 곳에서, 내가 시간을 누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임을 매 순간 깨닫게 합니다. 나는 그분들의 인생 어느 한 부분, 한 시점에 잠깐 나의 손길을 드릴 뿐이지만 당신들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근무하는 시간동안 나는 ‘열 명의 환자를 돌보는 담당간호사’가 아닌, ‘열 명의 선생님들을 모시고 있는 학생’인 셈입니다.

누군가의 시간에 개입을 하고, 그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그분들은 젊은 나에게 잊혀 지지 않는 기억을 남겼고, 나는 그분들의 삶의 끝자락을 돌보았던 간호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보다 영화 같은 NMC 메르스 기록

김혜자 _ 국립중앙의료원



2015년 5월 20일 1번 환자에 이어 연이어 발생한 감염환자로 격리 병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을 예상한 원장님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메르스 전담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한다.

복지부의 늦장대응 ...

급작스럽게 24시간 내로 병동을 비우기 위해 수간호사들은 목이 쉬었다. 정리된 두 개 임시병동의 병실마다 이동식 음압기를 설치했다. 감염환자만 받기 위한 병동 세팅에 몰두 하다 보면 어느새 자정을 넘어 있었다. 폭발하듯 발생한 메르스 감염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간호부와 전 직원은 합심하여 전력질주 하였다.

전담 거점 병원 전환 후, 경험해보지 못한 대응을 하기 앞서 신규간호사들이 자칫 작은 실수라도 할까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고 누구 할 것 없이 교육받은 표준주의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웠다.

한 명 두 명 중환이 발생하면서 기존의 중환자실 간호사만으로 간호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다. 짧은 중환자교육으로 투입된 병동 간호사들은 평상시 접하지 못한 의료장비에 살짝 놀라기도 했지만 교육받은 대로 차분하게 간호했고 ventilator, ECMO, CRRT에 의지한 중환자들이 조금씩 호전을 보였다. 물론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한 안타까운 환자도 발생했다. 최선을 다해 돌보던 간호사들 모두 목이 메었고 상심한 가족을 위로하고 좋은 곳으로 가길 기도하였다.

감염병 환자 사망 안전지침이 이때 최초로 만들어졌다. 지난 사스 이후 존재했어야 할 감염병 실무지침이 이렇게 메르스 환자를 간호하며 만들어진 것이다. 메르스 실무대응지침을 전국으로 배포하였고 치료하며 터득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수정 변경했다.

메르스는 많은 감염자를 양산하였고 의료인까지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병산 안에 감추어진 대한민국 의료계의 허점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혼란 가운데 국립중앙의료원 전 직원은 한마음으로 메르스 종결 위한 사투를 벌였다. 언론은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는 일을 알리고 시민들은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끊임없이 구호물품을 보내줬다. 온 몸을 싸맨 보호복(PPE, PAPR)을 입고 간호하던 간호사들이 하나 둘씩 열이 나고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감염이 아닐까 우려했지만 전신이 땀에 젖은 후에 샤워로 인한 단순 감기였다.



병원간호사회에서는 현금 들고 격려 방문

국립중앙의료원 직원 격려 차 대통령 방문

레벨C PPE 보호복

마치 이를 안다는 듯이 속옷 구호품도 있었다. 건강식품에서 커피, 음료, 과자, 전동칫솔 까지.. 다양하게 보내주신 구호물품은 메르스 감염자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지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첫 환자 발생 이후 40여일이 지나고 메르스 사태가 잠잠해 지나 싶더니 환자치료 하던 의료인 새 감염자가 속속 발생했다. 감염관리 자생능력이 의심됐고 위기대응센터를 통해 타병원에서 격리 중이던 직원 감염자들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오면서 간호부는 안전관리를 더 철저히 했다. 그들은 동종의 의료진들을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다.

체계적이고 훈련된 감염관리에 감동 받았을지도 모르겠다. 환자를 돌보다 감염된 간호사의 상태가 나빠져 중환자실에서 에크모까지 달아야 했을 때 간호사들은 내 자신 일처럼 안타까워했고 의식 없이 불안정한 환자의 손을 살며시 잡아 주었다.

그 힘이었을까 조금씩 호전되어 그들이 일반병실로 전동했다. 모두들 뿌듯했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더 이상 전파할 힘을 잃은 듯 하고 우리는 메르스 종결자로서 승리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 더욱 전념전심 해야 한다. 직원감염 한 명의 발생 없이 메르스 사태가 끝나는 날 국립중앙의료원은 명실상부한 공공의료의 명성을 되찾을 것이다. 언제 발생할지 모를 또 다른 바이러스에 대비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며 감염 및 재난에 대응하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메르스 타결 주역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할 것이다.

2015년 7월 3일
김혜자 수간호사

오늘의 위로

설 란 _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원추리아야기

- 이 ○ ○ -

울타리에서 피는 원추리

너는 사람보다 생명이 강인하구나.

우리 인간은 겨울에 울타리에서 하루밤 지세도 다 죽는데

너는 봄에 파란색이나서 여러송이 꽃을 피우니 강하구나

지금은 너의 형제 다 저버리고

나 홀로 핀 것을 보니 외로운데 내 마음도 외롭구나

그대로 한송이 너는 며칠 췌 나에게 미소를 주는구나.

오늘의 위로,
 안개 낀 특유의 눅눅함 때문인지 몸이 무거웠다.
 골이형성증후군(MDS) 진단 하에 백혈구 수치 저하로 역격리 중인
 할머니(그녀)가 계신다
 그녀의 손마디에 패인 주름이 알려주듯, 진단 전까지 밭에서 김 매시
 던 짝 채우는 하루로..
 성경과 찬양을 읽고 부를 정도였다고 한다.
 그러나 격리실의 하루하루가 그녀의 삶을 우아하게 변화시켰다.
 ㄱ, ㄴ, ㄷ... 가, 가, 거, 겨..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쓰고, 시화를 그리고,
 향연 76세,
 그녀의 일상이 시화다,
 깨우친 한 글자 한 글자로, 한 구절 한 구절 써 내려가는 말씀과 찬양
 으로 부요케하는 그녀의 하루,
 헛되이 보내는 것 없이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녀의 하루,
 나는 그녀의 시, 마음을 깊이 되새기며..
 마치, 원추리가 그녀인 듯,
 백혈구와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감사라는 꽃을 피우고,
 늘 나에게 미소를 건네는 그녀,

자신 안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녀의 시는 날마다 깊어진다.
 시가 깊어지는 만큼 그녀의 삶도 깊어진다.
 그녀의 마음의 곁을 훑쳐본다. 눅눅함이 뭉클함으로 번지는 오늘
 이다.



오지랖 덕분에

이희경 _ 서울대학교병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외래 간호팀 안과 외래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희경 간호사입니다.

평일 어느 오후. 그 날도 안과 외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습니다. 저희 안과 외래는 방문 환자가 많아서 간호사실에서 순번 대기표를 설치하여 배부한 번호표 순서대로 응대하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빴던 그 날도 어떤 4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이 간호사실로 오셨습니다. 제 옆의 간호사 앞에 도착한 그 환자분은 우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를 하셨지만 응대하는 간호사는 최선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자, “너는 거기 왜 앉아 있는 거야?” 하며 갑자기 그 간호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옆에 있던 저

는 다른 고객들을 응대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동료 간호사를 모욕하는 언사에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자에게 “저희 간호사가 틀리게 설명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고객님의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제가 도와 드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환자분이 ‘너는 내가 이 간호사에게 뭐라고 했지, 너한테 한 것도 아닌데 오지랖을 떠나며’ 저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며 함께 고객 상담실을 가자고 했습니다. 고객 상담실로 가면서 저는 환자분이 궁금해 하던 부분을 수납 창구에서 함께 확인해보고 가시도록 제안했고, 환자분과 같이 수납창구로 갔습니다.

환자는 수납창구에서 본인이 알고 싶었던 내용을 묻는 중에 무언가가 적혀있는 메모지 한 장을 열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여기 적힌 이 이름의 안과 간호사가 며칠 전 전화했을 때 엄청 친절히 안내했었는데 찾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종이에 적힌 이름을 보니 바로 저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환자가 찾던 간호사임을 안 환자분이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친절하고 내 얘기를 긴 시간 들어 주더니 오늘은 왜 이런 거냐?” 며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가 오지랖이니 그 때도 여기저기 물어서 안내해 드린 겁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분이 그 때 플러스, 오늘 마이너스라서 제 로션에 제가 있기에 고객상담실은 가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오지랖 덕분에 칭찬과 불편 민원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이 의료계 종사자라기보다 서비스업 종사자에 치우쳐 경우에 맞지 않은 무리한 요청에도 무조건 참아야 한다는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 저 또한 그렇게 근무해 온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 병원에서도 폭행·폭언 대응 프로세스와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후속 조치 및 불만 고객 대응책자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부서에서도 CS개선을 위해 몇 가지 책을 선정하여 읽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책은 '환자는 두 번째다'란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일단 책 제목부터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을 위한, 감정노동으로 고통이 심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이었습니다.

앞으로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관련 분야에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위해서 먼저 직원들의 만족도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직원을 위한 서비스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보며 글을 마칩니다.

우리직업이 주는 커다란 보람은, 힘든 일과를 뛰어넘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조하나 _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고, 누구보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필요한 의료 처치를 실수 없이 정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차갑지 않도록 따뜻하게 품을 수 있게 우리 스스로를 훈련하며 많은 것을 참고 견뎌낸다. 환자분들은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치료를 위해 입원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간호사에게 모든 것을 털어 놓는다. 그리고 아픈 시간을 우리와 함께 보내면서 정을 쌓게 되고, 점점 더 가까운 사이가 된다.

우리는 매일 새롭게 환자분들과 관계를 맺는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고,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배우며 그렇게 매일 성장해 간다. 자연스럽게 환자분들의 입장을 더욱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내공이 우리 안에 자리 잡으며, 우리의 수고가 누군가에게 큰 지지와 이겨 낼 힘이

되어드릴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매일 매일을 환자분들 곁을 지켜낸다

병동에서 업무하며 많은 환자분들과의 추억을 쌓았다. 그 중에 특히 말기 암 과정의 환자분을 통해 병원에서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주신 지금은 고인이 된 ○○○환자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환자는 GB cancer로 obstructive cholangitis 로 인한 fever로 항생제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상태였으나 병세가 점차 악화되어 liver metastasis 로 인한 DIC 로 진행되며 DNR 을 받은 상태였다.

환자는 성공한 변호사로, 배우자는 환자에 대한 애착이 무척 강하였다. DNR에 동의 하였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환자를 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예후에 대해 배우자에게 설득이 되지 않아 갈등을 빚곤 했던 상태였다.

보호자의 열정은 아무도 말할 수 없었다.

환자분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하는 의료진의 마음을 몇 번이나 말씀 드렸지만 오로지 환자가 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른 이야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셨다.

기도 흡인으로 폐렴이 왔고 aspiration 되어도 괜찮다며 음식은 무조건 안 된다며 항의하였다. 고열로 더욱 기운을 잃고 편안히 잠들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한 상태였지만 환자를 일으켜 침상운동을 시키고, 혈소판이 낮아 혈변을 보아 침상안정을 해야 하는데 하루 두 번은 무조건 휠체어에 앉아 ambulation 시킬 수 있도록 담당의사와 교수님께 이러한 사항을 전

하는데 열심을 내며 환자 분을 한시도 가만히 두지를 않았다.

나는 간호하면서 환자분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힘겹게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안쓰럽게 느껴졌다. 배우자의 뜻을 따라주고 싶지만 할 수 없는 괴로움을 느끼며 고통과 좌절로 힘들어 하는 환자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편안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런 마음을 담아 편안한 자세를 취해 드리고, 말라버린 입 안을 정성스럽게 닦고, 욕창피부 간호를 하고, 체위변경을 하며 시트와 옷을 정돈해 드리고 안위와 편안함을 느끼실 수 있게 최대한 자극을 덜 드리려고 하고, 기회 될 때마다 미소를 지어 드리며 힘을 내실 수 있도록 응원의 마음을 담아 드렸다. 열이 날 때도 따뜻한 수건으로 침상 목욕을 하며 자주 들여다 보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열심으로 찾았고, 환자분이 편안해 하는 것이 나의 제일 큰 기쁨이 되었다. 배우자께서 환자에게 하는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하기 보다는 환자의 안전에 무리가 되지 않게 조율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설득하였다. 환자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하는 것을 배우자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환자분께 하는 행위에 정성을 들여 최선을 다했다. 바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스스로 일을 더 찾아 내는 나를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그런 수고가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고, 나는 환자분과 함께 하는 그 순간 순간이 정말 좋았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환자분과 보호자께도 전해진 것 같다. 오랜만에 담당 간호사로 병실을 들어가도 나를 기억해주셨고,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고, 전신적인 컨디션이 저하되는 상태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으면 눈을 뜨고, “조하나” 라고 이름을 불러주었다. 배우자는 “나한테는 기운 없어서 한마디도 안 하는데, ‘조하나’ 는 부르네, 히” 라며 기가 차 하면서도 남편이 이렇게 까지 좋아하는 간호사님이 와서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어 고맙다고 표현해 주셨다. 점점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늘 꼼꼼한 감시자와 같았던 아내와 가끔 오며 일굴을 익힌 아들에게도 어느새 “우리남편이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는,, 간호사” 라며 특별한 존재로 대해 주셨다. 우리의 열심에도 환자분의 건강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어 갔다.

며칠 쉬고 이브닝 번으로 들어왔는데, 병실에 들어가자 내가 와주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시며 몇 권 만들지 않은 자서전인데 조하나 간호사에게 주고 싶다며 아들에게 가지고 오도록 부탁하여 말할 기운조차 없는 환자분께서 직접 떨리는 손으로 빼뜩빼뜩 한 글씨지만 최선을 다해 힘을 내어 조하나간호사 감사합니다. ○○○ 드림 이라고 적어서 건네주셨다. 그 안에 담은 마음을 느끼며 환자분을 통해 위로 받을 수 있는 나의 직업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졌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이 간호사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보상해 주기라도 하듯 마음에 가득히 채워졌다.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경험하며 단순히 힘든 것을 넘어 이 일이 주는 가치를 느끼며, 감사하게 되었다.

환자분은 며칠 후 컨디션이 더 나빠졌고 DNR을 철회하고 중환자실로 이동하였으나 결국 며칠 후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임종을 기다리는 얼마남지 않은 시간.. 건강하지 않는 상태라고 인식

되며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느끼는 그 순간을 우리는 함께 보냈다. 어쩌면 의미가 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그 시간이.. 긴 여생에 의미없는 순간은 없다고.. 내가 돌보는 그 순간 환자분들께 최선을 다해야 할 이유를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환자분들이 가진 생명력을 믿어주고 지켜가도록 돕는 것이 나의 일이고 지치고 힘든 때에 환자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위로는 다른 것으로 대체 불가능 하며 때때로 일어날 힘이 되는 것을 느낀다. 무뚝뚝한 환자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것, 힘든 것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우리는 간호사이다.

고맙다는 말.. 평생을 들어 가장 많이 듣게 되어버린 이 말..

우리 직업이 주는 커다란 보람은, 힘든 일과를 뛰어 넘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한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고마워 해주시는 환자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드리는 사랑보다 항상 더 큰 것으로 돌려주시는 환자분들의 사랑에 우리는 늘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른둥이의 세상 적응기



한진주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ICU에서 일하는 동안 느꼈던 소감을 이른둥이의 시점이 되어서 적어보았습니다.

저는 엄마 뱃속에서 열 달을 다 채우고 나와야 했는데 조금 빨리 세상에 나왔어요. 세상이 궁금하기도 했구요, 엄마 아빠가 나를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인지 심장이 뛰는 것, 숨 쉬는 것, 소화를 시키는 것, 배변을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은 벅차기도 하고, 가끔 힘이 들기도 해요. 일찍 나온 탓에 엄마 품에 안기지도 못한 채 엄마 뱃속 대신 인큐베이터라는 방에 들어와서 지내고 있어요. NICU 간호사 선생님들이 말하는데 이 인큐베이터에서는 체중이 늘고, 체온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나갈 수 있대요. 얼른 체중이 늘어야 할 텐데 혼자서는 모든 활동이 많이 힘들어서 엄마 아빠가 많이 걱정하고 가끔 면회가 끝날 때 짝상삼하고 가실 때도 많아요.

그래도 잠깐 잠깐 엄마 아빠를 만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뱃속에서 들던 엄마 아빠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저를 많이 응원 해주시거든요. 엄마 아빠를 만나는 시간이 우유를 먹은 직후라 저는 항상 자는 모습만 보여줘서 엄마 아빠에게 잠꾸러기로 불리기도 해요. 그 시간이 아닐 땐 얼마나 우렁차게 우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달래주느라 진땀을 빼기도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엄마 아빠 앞에서 한번 씩 찡긋거리며 베넷질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거나, 기지개를 켜면 엄마 아빠가 자지러지게 기뻐하고 행복해 하세요. 제가 나중에 퇴원을 해서 엄마 아빠 품으로 가게 되면 매일 볼 수 있는데 말이에요. 엄마 아빠에게 행복을 줄 수 있도록 저는 스스로 호흡도 잘 하고, 우유도 잘 소화 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이곳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엄마가 면회시간에 울기도 하는데, 그만 우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울 때 마다 저도 같이 슬퍼져요. 엄마 아빠, 너무 걱정 하지마세요. 여기 이모들이 엄마처럼 보살펴 주시고 태담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가래가 차 있으면 가래도 뽑아주고, 소변이나 대변을 봤을 때에도 불편하지 말라고 얼른 갈아주세요. 24시간 중에 1분 1초도 빠트림 없이 저를 잘 보살펴 주는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에요. 나중에 제가 커서 이른둥이 일 때를 기억하거나 엄마 아빠께 전해 듣게 된다면 꼭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제가 얼마나 잘 컸는지 꼭 보여주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이른둥이들은 세상에 일찍 나온 만큼 유리구슬 같아요. 언제 나쁜 균들이 저에게 위협을 줄 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위태

로울 때도 있지만 여기 모든 분들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계세요. 저의 얼굴색, 움직임, 숨 쉬는 모습, 심장 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일찌감치 저의 상태를 살펴봐주시고 바로 바로 저를 케어 해주시거든요.

저는 스스로 호흡하고, 소화하고 젓병을 잘 빨고 웅가만 잘해도 간호사 선생님들의 걱정거리가 많이 줄어들어요. 숨을 너무 크게 쉬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숨쉬는 걸 깜빡해서도 안되요. 젓병으로 우유를 먹을 땐 가끔 숨 쉬는 것을 깜빡하고 숨이 넘어갈뻔 한 적도 있지만, 알람이 울리기 전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제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매일 빨고 삼키고 숨쉬는 걸 동시에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꿈을 꾸요. 교정 34주가 되면서 능력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데 엄마 아빠와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간호사 선생님과 호흡을 맞춰가며 먹다가 집에 갈 무렵이 되면 엄마와의 적응을 위해 수유 연습을 해요. 얼른 엄마랑도 수유 연습을 해서 집으로 가고 싶어요.

저는 매일 매일 줄타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기도 해요.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제 옆에는 늘 간호사 선생님들이 계시고, 매일 저를 응원해 주러 오시는 엄마 아빠가 있어서 오늘도 저는 힘을 내고 있어요.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임민영 _ 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따르릉. 전화벨이 울린다. 언제나처럼 스테이션으로 달려가 전화를 받는다.

“안녕하십니까, 임민영 간호사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내가 8년의 시간을 보낸 이곳은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섬김이 전달되는 곳.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이른 ‘병원’이다.

하지만 그동안 내가 이곳에서 행해왔던 섬김을 생각하며 적지 않은 반성을 했다.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간호했다고 믿고 있었던 나 스스로에게 그들을 위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진실 되었고, 그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왔느냐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다. 섬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면서도 전심을 다해야 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일

이기도 하다. 전심을 다한 섬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자니 역시 보호자들의 '섬김' 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 약 1년 전이었다. DNR 동의서를 받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던 환자의 악화된 섬망으로 의료진, 병실 내 환자, 보호자가 곤혹을 치르고 있었다. 이러한 환자를 24시간 상주하며 지키는 보호자가 있는데, 라운딩을 돌며 내가 침상 내에서 흐트러진 환자의 자세라도 함께 바로 잡아주면 고맙다며 나에게 음료수를 굳이 챙겨 주려던 환자분의 자녀(딸)였다.

환자의 컨디션은 안정되었다가도 별안간에 불안정 상태로 변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였는데, 그로부터 며칠 전 정기투약 시간엔 또다시 혼돈된 상태로 힘을 마구잡이로 쓰이기 시작했다. 전신 쇠약한 어르신임에도 보호자와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어 결국 간호사 네 명이서 신체 억제대를 적용 하였고, 그 날 보호자는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버렸다.

사지 억제대를 했으나 어찌 된 일인지 별떡 일어나 유치 도뇨관을 잡고 잡아 빠려는 환자분은 결국 상반신 억제대를 하고서 움썅달썅 못하게 되었다.

때마침 환자의 방문객 중 같은 교회 신도님이 병문안을 오서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평소 신앙이 있던 보호자가 기도하기 싫다고 울부짖는다. 함께 기도하자는 권유에, 신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이제 주님을 못 믿겠다며 흐느꼈다.

생각해보면, 그 날 그 환자 때문에 나도 힘이 많이 들었다. 같은 병실 내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몸에 있는 라인은 손에 잡히는 대로 빠려 하기 일쑤에, 밤낮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올려놓은 침상 난간이 무색하게 움직이기도 힘든 몸을 이끌고 침상을 탈출하려는 환자의 행동을 보고 보호자가 어떻게 전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24시간 상주하며 그리 정성을 다 하고, 몇 시간 쪽잠을 자가며 환자를 지켰을 보호자의 지친 심신이 몹시 안쓰러웠고 그 날 그렇게 참지 못하고 속상한 마음을 토해낸 보호자의 심정도 이해가 갔다.

음식을 스푼으로 떠서 먹여주면 침과 함께 뱉어내는 환자에게 물 한 모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 했던 보호자는 환자가 안정되었을 때면 끝어안고 귀에다가 나지막이 속삭인다.

“엄마,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듣기만 하여도 가슴 뭉클한 그 한마디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환자분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 평온한 마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어느 날은, 또 다시 환자와 반복적인 씨름을 하던 보호자가 환자에게 소리친다.

“엄마 마음대로 해! 나 이제 갈 거니까! 엄마 이러면 나 다신 안 와!”

그렇게 보호자는 한동안 병실을 떠났고, 환자는 그 말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아랑곳 하지 않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30분도 지나지 않아 금방 돌아온 보호자는 다시 전처럼 정성스레 환자의 전신을 수건으로 닦아주며, 환자 곁을 지켰다.

나도 속으로 제발 환자가 한번이라도 보호자를 제대로 알아보고, 보호자가 ‘엄마, 사랑해’ 했을 때, ‘나도 사랑해’ 할 수 있기를, 그 기쁨으로 보호자가 암담해 보였던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랐다. 선한 목자가 뒤집힌 양을 바로 세우듯, 절망 속 우리의 환경과 지친 심신을 만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다시 꼭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출근하였을 때, 환자는 이미 요양병원으로 퇴원을 하고 병실에 계시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그 환자분이 여생을 가족과 잠시라도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마음을 달랬다.

술하게 다짐해도 우리의 바쁜 업무는 일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나를 빠뜨려, 초심을 잃게 한 적이 많았다. 신규 간호사로 입사할 당시의 당찬 포부와 사명감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내 모습을 보고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많았다. 병원 안에서의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은 내게 배운 대로, 가르침대로 행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다.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는 핑계로 그동안 간과하고 잊고 있었던 한 가지는, ‘섬김’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이다. 섬김에 대해 생각하며 내가 베풀었던 섬김에 대해 생각을 해보니 다소 막막했던 것은, 아마도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나 싶다.

가족처럼 섬기기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엄마 사랑해’ 라고 하셨던 그 보호자를 생각하며 진정한 환자 섬김에 대하여 되새기고 실천해 나아가야겠다.

병마와 다투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싸움에서 심신이 지쳐있을 환자, 보호자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앞으로도 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우리가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행복할 수 있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었던 사랑

김성희 _ 순천성가톨릭로병원



신입 간호사였던 응급실에서 근무했을 때의 일이다. “CPR 준비해 주세요!!” 전화를 받은 주임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 안을 가득 채웠다. 응급실 안에는 고열로 인해 수액을 맞고 있는 환자와 심한 상처로 인해 드레싱을 받는 환자, 맹장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환자 등이 고통으로 인해 몸부림 치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제 각기 환자의 고통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었고 이와 동시에 곧바로 또 다른 응급상황에 맞아야 했다. 응급실은 항상 그런 곳 이었다. 모두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CPR환자를 위해 준비를 해야만 했다.

어느 날 오후 다른 날처럼 근무를 하면서 환자를 받고 처치하며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다. 정문이 활짝 열리고 구급차 두 대가 나란히 정차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히 움직였다. 환자는 두 명 이었다.

이십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과 아주머니 한분이 가냘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어떻게 왔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 순간에는 잠시 덮어둘 일 이었다. 청년과 아주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과장님과 간호사들이 달려들어 환자 상태를 살피고 v/s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아주머니는 의상도 심했고 의식도 불분명 했지만 응급 상태는 아니었다. IV라인과 응급처치 그리고 응급검사를 시행한 후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응급환자는 옆에 있던 청년이었다. 의식도 없을뿐더러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었을 때 나와야 할 심전도 파형이 모니터링에 표시되지 않았다. 곧 바로 CPR을 시작했다. 기관 내 삽관, 흉부압박, 제세동기, 응급약물 투여 등 의료진들은 그렇게 청년에게 숨을 불어 넣고 있었다. 나의 임무는 응급구조사들과 함께 손을 바꾸어 가며 흉부압박을 시행 하는 것이었다. 어떻게든 어떤 누구의 손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노력과 바람을 안다면 심장이 조금이라도 움직여 주길 바라고 또 바랬다. 그 바람이 절망의 무게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져 갈 때 썸 보호자는 도착했다. 보호자는 다급히 달려오던 걸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멈추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떠난 이의 옆에서 슬픔으로 절규하는 한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다. 삶이 죽음에게 짓밟히는 순간 이었다. 슬픔을 잠시 뒤로 한 채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고 마음속으로 잠깐의 명복을 빌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중환자실로 옮겨진 아주머니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연락을 받고 과장님이 급히 나가셨고 이후로 나를 포함한 다른 간호사들도 응급실에 있는 환자와 함께 바쁜 시간을 보냈다.

바쁜 업무를 끝내고 퇴근 시간쯤에 아주머니가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접했다. 아주머니는 청년이 죽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심정지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근무가 끝나고 알았던 사실 이지만 청년과 아주머니의 관계는 모자 지간이었다.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사고로 실려 오신 것이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잠시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청년과 아주머니의 얼굴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아주머니는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였을까... 아들 생각에 가슴이 너무 아파 심장을 스스로 멈춰 버린 것만 같았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마지막 까지 아들과 함께 하셨다. 병원이란 곳에서 많은 환자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나에게게는 처음 겪는 일이자 또 처음으로 겪는 미묘한 감정이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가 사고를 당해 갑자기 나빠 질수 있다고 하지만 그 두 사람의 사이가 모자지간이었기 때문일까, 그 이유로 내 감정은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엮여져 있었다.

지금도 난 의료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생애 최고의 사랑을 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죽음이 얼마나 한순간에 일그러져 갈수 있는지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지내는 현재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매 순간 순간 변하는 오늘날 사랑함의 중요한 가치에 있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고통 받고 있을 사람들을 위한 작은 한 줄기 빛으로 나는 여기에 아직까지 서 있다.

죽음의 경계선에서 만난 소중한 공감

강민진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첫 임상을 시작한 응급실에서 환자의 죽음을 처음으로 맞이한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하여 환자가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난생 처음 보던 피와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환자를 보았습니다. 한참 CPR을 하고 있던 중 발을 동동 굴리며 가족들이 병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을 보고 주저앉은 아내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며 한번만 살려달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환자는 살리지 못했고 저에게 환자의 죽음을 처음 알게 해 준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호자들의 오열하던 그 모습을 잊지 못해 많이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의 죽음에 대해 점점 무뎠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이 힘들어질수록 환자의 슬픔에 공감하기 보다는 “아, 빨리하

고 퇴근해야 하는데 왜 계속 옆에서 울고 있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처음 입상에 뛰어들며 가졌던 인간적인 마음가짐이 흐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다시 임상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닌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공감하는 마음이 메말라 가고 있던 중 매일 환자를 만나는 병동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환자의 통증과 두려움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업무를 하는 데 급급했고, 침대에 누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환자를 자세 변경부터 먹는 것, 입는 것 까지 직접 챙기면서 환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일이 힘들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간호하는 일이 버겁기만 했는데 매일 환자를 만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BS 화면을 보면서 “라면 먹고 싶다” 라는 말을 하여 코에 넣어져 있는 비위관을 야속해 하는 모습을 보았고, 반드시 나아지는 날이 올 것이라며 같이 파이팅을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페셜 라운딩을 돌던 도중 방금까지 먹고 싶은 음식을 이야기하던 환자가 자극에 반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부르는 이름에도 눈을 뜨지 못하며 의식이 처지는 모습을 보면서 급하게 선생님을 불렀고, 응급조치 후 결국 환자는 중환자실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발령 첫날부터 보던 환자가 눈앞에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 머리를 쿵 얻어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빨리 환자분이 회복되길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후, 환자는 병동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고 환자가 그토록 소원 하던 코에 삽입한 관을 빼고 입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상태가 좋아지면서 휠체어로 움직이던 환자가 이제는 두 손으로 손을 지탱하여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매일 출근할 때마다 나눌 수 있는 대화가 한 마디씩 늘어가며 내가 해줄 수 있는 간호의 기쁨을, 환자가 느끼는 행복감을 같이 공유 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죽음에 점점 무뎌져 가던 제게 그 환자는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육체적·정신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두 발로 일어서서 내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는 환자를 만나게 되었고, 환자와 하나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진정으로 간호사가 제공해야 할 ‘간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환자의 고통과 죽음에 무뎌져 감정을 잃어가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환자와 대화하고 소통하며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빌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건넌 공감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공감’이라는 간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초콜릿 할아버지

황화현 _ 서울아산병원



“오늘도 출근이야? 일루와봐~ 아주 맛있는 초콜릿뜨가 생겼어. 먹고 가”

박○○님이 저를 볼 때 마다 하는 인사입니다.

박○○님은 항암치료 후 지속되는 fever로 인해 입원중인 환자입니다.

입원 후 항생제 치료를 받으면서 fever가 잡혀가고 있을 때 쯤 부터 담당 간호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입원 기간 동안 매일 Hb수치가 조금씩 떨어져 2~3일에 한 번씩 수혈을 하며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Hematology 환자들 대개가 질환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출혈이 있었냐고 여쭙어보아도 그런 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날도 Hb 6.5 여서 RBC 수혈을 하는 날 이었습니다.

박○○님이 머뭇머뭇 거리시다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고개를 가웃거리시며 하시는 말이 “근데 말이야 대변이 아주 그냥 새카맣게 나와~ 검은 건 먹지도 않는데 신기해 그것 참.”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스물 스물 조금씩 떨어지던 Hb 원인이 melena였던 겁니다. 그것도 일주일째 melena를 보셨다고 합니다. 변이 새까맣게 신기 했지 크게 중요 한 거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합니다. occult blood 검사를 나가기 위해 통을 드렸는데 정말 숫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새까만 대변을 받아주셨습니다. 대변량을 확인 하려고 여쭙봤더니 “남 똥 썩 걸 뭉 하려고 봐. 벌써 변기 물 내렸어. 그냥 많이 봤어~ 엄청 많이 한카득 봤어” 다음부터는 물 내리기 전에 담당 간호사를 불러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다음날 나온 검사결과는 역시나 positive였습니다. 다행히 다음 날 Hb수치는 9.4정도로 올랐고 EGD검사에서도 bleeding 소견이 보이지 않아 melena도 멈춘듯했습니다

“박○○님 다음번에 또 새카맣게 대변보시면 물 내리지 말고 꼭 저 보여주세요 해요. 아셨죠?” , “아유~뭘 남의 똥 썩 걸 자꾸 보려 구 해~”

“중요한 거니까 꼭 보여주세요. 물 내리시면 안돼요”

“알았어. 알았어.”

박○○님을 볼 때 마다 검은 변도 위장 출혈로 인해 생기는 거니까 코피나 혈뇨처럼 꼭 이야기 하시라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보호자분이 대변을 새카맣게 봤다며 절 찾으셨습니다. 박○○님이 화장실 앞에 검은색은 표정으로 서 계셨고 화장실 변기에는

며칠 전처럼 새까만 대변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담당의에게 notify하기 위해 대변을 Cx통에 옮겨 담고 화장실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박○○님과 보호자 분이 손사래를 치며 “간호사 선생님이 이런 거 까지 해? 바쁠 텐데 이런 건 우리가 할 테니까 어여 가”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화장실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우선은 담당의에게 notify 후 다시 환자분을 뵈러 갔더니 보호자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간호사 선생님이 바쁘는데 이런 거 까지 하고 너무 힘들지? 신경 써 줘서 고마워. 할아버지가 열이 좀 떨어지니까 이제 또 대변이 문제네... 자주 와서 봐주고 해서 고마워요. 환자들 대변 까지도 챙겨서 봐야 되고 할이 너무 많겠어. 짜잘한 것들은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해주세요” 라며 너무나도 고마워 하셨습니다.

며칠 뒤 melena가 멈췄고 정상 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대변 색깔이 새까맣지 않고 정상 변 색깔이야~ 간호사 선생님 덕분에 다 나왔어. 검은 변도 안 나오고 열도 안 나니까 살 거 같애. 고마워. 고마워”

“쫐꼬렛 좋아혀? 나한테 아주 맛있는 쫐꼬렛이 있는데 많이는 없지만 먹고 싶은 만큼 이야기 해봐. 몇 개 줄까?”

“저는 괜찮아요. 박○○님 좋아하시는 건데 아껴두셨다가 드세요”

계속 사양을 했지만 “나이 많은 사람이 몇 번이고 권하는데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여.” 라고 말씀하시며 초콜릿을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단 걸 좋아하셔서 자녀분들이 병문안을 때마다 초콜릿을

사카지고 오신다고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이야기 하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 후 출근해서 병실 rounding을 가면 박○○님이 저를 보고 하는 첫인사는 항상 “오늘도 출근이야? 밥은 먹고 왔어? 쫐꼬렛이랑 과자랑 있으니까 배고프면 얘기해. 아주 많아” 가 되었습니다.

melena 사건 이 후 박○○님과 rapport가 형성되면서 평소와 몸 상태가 달라지거나, 새로운 증상 들이 생기면 바로 바로 저에게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환자와 보호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환자와의 rapport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환자와 간호사간의 rapport 형성이 환자에게는 안도감을 주고 치료 과정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간호사에게는 업무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택배 왔어요

오미선 _ 서울아산병원



띠링~~ 띠링~~ 띠링~~ 띠링~~

끊임없이 울려대는 전화벨 소리, 직원들의 환자 호명하는 소리가 뒤섞인 외래 대기실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다급하게 뛰어오는 한 보호자가 있었다.

“간호사님, 간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이시고 지금 10분 뒤에 진료를 보셔야 하는데요. 갑자기 산소통에서 산소가 나오지 않아요. 진료실 앞 직원 분께 말씀 드렸는데, 금방 진료 볼 수 있으니 참으라고만 하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외래로 근무지를 이동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 산소통의 위치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나는 가장 가까운 외래에 통화하여 이동식 산소가 있음을 확인하고 직접 뛰어가 이동식 산소를 빌려 왔다.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자 환자의 얼굴은 안도의 표정과 함께 곧 편안해 졌다.

같이 왔던 보호자는 너무나 감사하다며 인사를 두 번 세 번 꾸벅하고 나서 진료실로 들어갔다.

이후 할아버지와 보호자는 3~4주 간격으로 병원을 방문하였고 그때마다 다른 간호사가 아닌 나에게 직접 찾아와서 산소를 부탁하셨다. 나 또한 당연히 여기고 매번 산소를 직접 빌려서 할아버지 휠체어에 걸어드리곤 하였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숨이 차고 기력이 없으셨는지 고맙다는 말씀조차 못하셨고 그저 얼굴에 잔잔한 미소만 띠고 계실 뿐이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나의 근무지는 동관에서 서관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근무지를 옮긴 후에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산소를 빌리러 찾아오셨고, 어느새 나의 마음속에선 조금씩 귀찮다는 생각이 서서히 자리 잡아 가고 있었다. 산소를 빌릴 수 있는 곳과 100미터 이상 거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고민 끝에 방법을 궁리했다.

‘그래! 할아버지 스케줄을 미리 파악해서 이동식 산소를 하루 전에 미리 빌려 놓는 거야.’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라기보다는 그때는 바쁜 시간에 힘들게 허겁지겁 산소를 빌려 오는 나의 수고를 덜기 위해 할아버지의 다음 내원 일을 매번 달력에 표시를 해 두고 하루 전에 미리 산소를 빌려

놓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환자, 보호자에게 생색도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어김없이 예정된 스케줄 대로 할아버지가 찾아오셨고 나는 빌려놓은 산소를 꺼내 할아버지께 산소를 드렸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의 두 손 위에 무언가 놓여져 있었다 먹음직 스런 빨간 사과 한 개였다.

빨간 사과 한 개를 들고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인자하게 웃고 계시는 할아버지.

“저희 집이 작은 사과 농장을 하거든요. 아버지께서 간호사님께 사과를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매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잖아요. 많이 못 드려서 죄송 합니다.”

아들은 수줍게 머리를 긁적 거리셨다.

순간 나는 너무 부끄러웠다. 나의 행동이 진심으로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것이 들킬 까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다.

여전히 바쁜 업무에 전화벨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얼굴을 묻고 열심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툭!” 하고 상자를 내려놓는 소리가 났다.

“택배 왔어요~~~”

택배의 주인을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든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서 있었던 것이다.

“어머~ 아드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할아버지 진료 일이 아니잖아요.” 순간 산소를 못 빌려놨는데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 보았지만,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았다.

“간호사님... 실은 저희 아버님 3주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간호사님께 꼭 사과 한 박스를 드려야 한다고.. 매번 사과를 한 개씩만 드려서 죄송하다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에게 말씀을 남기셨거든요. 그 동안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었다며 사과박스를 직접 들고 왔다는 말에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사과 한 개를 들고 휠체어에 앉아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나에게 사과를 건네주시던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멈추지를 않았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그 할아버지의 미소는 나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분이 주신 달콤했던 사과와 향기는 나의 마음속에 잔잔히 남아서 항상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진심일 수 있게... 나의 이런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나의 영원한 비타민이 되어 주고 있다.

“할아버지 지금 보고 계시죠? 몸은 편안하시죠?”

보내주셨던 사과를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젠 아프지 말고 편히 쉬세요~”

한번만 만나주세요

최정윤 _ 분당차병원



2016년 11월 경 Pons ICH 환자가 신경외과 중환자실로 입실을 했다. 미혼의 젊은 남자 환자였기에 보호자는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입원한 날부터 지극정성으로 환자에 매달렸다. 환자가 한번이라도 손가락을 꿈틀거리주길 한번이라도 충혈된 두 눈이라도 떠주길 빌고 빌었다. 한날은 담당 간호사였던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간호사 선생, 내가 여기 면회 올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면 애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물었다니 돈 900만원을 달래.. 900만원으로 내 아들 눈 뜨게 할 수 있으면 짠 거 아냐?”

이 상황에서 난 속으로 ‘이런 말을 진짜 믿고 돈을 내는 사람이 있구나’ 하며 내심 놀랐다.

난 보호자에게 “어머니.. 그거 돈 주지 마세요.. 900만원 그 사람한테 주지 말고 그 돈으로 환자 간호에 좋은 발 마사지나 손 마사지 같은거 배워서 아드님 면회 오실 때 마사지 해 주시는건 어때요?”

어머니는 손을 탁 치며 “그지.. 그거 사가지.. 나도 사기인거 아는데 혹시나 해서.. 누가 옆에서 아니라고 말해주면 내가 알아 들을 텐데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 후 3~4일이 지나서 난 다시 담당 간호사로 보호자를 대하게 되었다. 내 말을 듣고 발마사지 학원을 가서 발마사지 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면회시간 30분 동안 한차례도 쉬지 않고 누워 있는 아들의 발을 만지고 가셨다. 어머니는 면회를 종료하고 나가면서 나에게 “근데.. 몇 시에 마쳐? 내가 지하철역에서 기다릴 테니까 나 좀 만나 줄 수 있어?” 라고 하신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기에 난 보호자에 “아니에요.. 저 언제 마칠지도 모르고 내일 병원에 오시면 저 또 여기 있으니깐 그때 궁금한 것 물어보셔도 되요.”

보호자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안돼 안돼...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그래.. 꼭 한번만 만나줘.. 내가 일단 오늘 지하철역에서 기다릴게.. 오던지 말던지 일단 난 거기서 간호사 선생 기다릴게”

난 오랜 시간 간호사로서 일해 왔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를 몰랐다. 나가시는 뒷모습에 대고 “기다리지 마세요... 추워요~~” 라고 얘기했으나 보호자는 “나 기다려... 그렇게 알아” 하고 나가셨다.

그렇게 보호자가 가고 서 난 퇴근하기 전까지 보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해 마음이 뒤숭숭했다.

퇴근 후 난 혹시라도 그 보호자가 지하철역에서 기다릴까 봐 곧장 지하철 역으로 달려갔다. 저 멀리서 눈에 익숙한 보호자의 모습이 보였다. 보호자는 밝게 웃으며 이리로 오라 내게 손을 흔들었다. 보호자의 왼쪽 손에는 검은 봉지가 들려있었다. 보호자는 날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 하셨다.

“내가 이러면 안되는 거 아는데... 요즘 무슨 법이니 무슨 법이니 해서 간호사 선생님이 음료수도 안 받고 꿀 사주는 것도 싫다 하고 그래서.. 너무 고마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돼서.. 근데 여긴 병원 아니니까 괜찮지?” 하며 나에게 요구르트 음료수를 2병 전해 주신다..

“아니에요.. 저 이거 안 먹어요.. 이런 거 안 주셔도 괜찮아요.. 환자분은 저희 모두가 정성스레 간호하고 있으니 걱정 안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다. 이후 보호자의 말에 난 눈물을 펄펄 쏟고 말았다.

“아냐.. 나 잘 봐달라고 이러는 거 아냐.. 나도 알아.. 의사 선생도 나한테 우리 아들 상태 다 얘기해주고 나도 금방 낫는거 아닌 거 알아.. 그냥 진짜 나 너무 고마워서 그러는 거야.. 난 평생 이런 거 표현도 못하고 살았다. 자존심이 세서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고 남 얘기 안 듣고 내 자식들만 키우며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들 아프고 님더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 누군가가 옆 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봐라 얘기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근데 간

호 선생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주면 어떻겠냐고 알려 줬잖아.. 그러니 내가 얼마나 고맙겠어. 뭘 사야지 간호 선생이 맘 불편하지 않을까 하다 천 원짜리 음료수 하나 산 건데 이것도 안 받겠다면 안돼.. 내가 안돼”

난 그제서야 요구르트 음료수를 받고 잘 먹겠다는 인사를 전했다.

보호자는 “간호 선생도 얘기 있다고 했지.. 얼른 가봐.. 그거 한병은 얘기 먹으라고 넣었어.. 얼른 가서 얘기 밥 챙겨줘” 라고 하시고는 뒤 돌아서 가셨다.

난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라며 그 동안 날 스쳐 지나간 모든 환자와 보호자들을 생각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담당 간호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나에게 의지하고 날 믿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잘해야겠다.. 진짜 잘해야겠다.. 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지나 2017년 1월에 보호자에게서 문자 연락이 왔다.

“재가 그동안 바쁘다 보니 이제 인사드립니다. 초면에 너무 친절히 해주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잘사시기 바랍니다”

문법도 맞지 않고 철자도 맞지 않는 문자를 받고는 난 다시 한번 내가 간호사라는 것에 대해 긍지를 느끼게 되었다. 이 문자를 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문자를 썼다 지웠다 반복하며 어렵게 보내셨을까. 나도 그만큼 열심히 내 환자들 상처 받지 않고 더 아파지지 않게 보살피겠다고 생각했다.

해피콜서비스

지현경 _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나는 지금 3년차 간호사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 1년 넘게 근무하며 매일 같이 아픈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

환자의 가족들보다 더 가까이에서 환자의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것을 간호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너무나도 막막했다.

술 새 없이 이어지는 진료과별 담당 의사 회진을 커버하고 스테이션에 앉으면 땀 뻘뻘 떠 있는 추가 처방에 액팅까지 도맡아하며 환자들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처방을 해결하기 위해 전화하고 확인받고 재 처방을 받아 환자에게 설명하기까지 나의 체력과 감정이 남아나질 않았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했던 4년 전의 다짐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고 밀려드는 일에 짜증을

내다가도 그런 내 모습이 한심해 직업의식에 대한 회의감만 늘어갔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힘든 업무가 반복되던 어느 날.

간호부에서 해피콜 서비스를 시행하라는 미션이 떨어졌다.

‘바빠 죽겠는데 그건 또 뭐람?’

흥미 없이 인계장을 바라보며 툭툭거렸다.

해피콜이란 퇴원환자에게 퇴원간호 기록지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퇴원 후 외래 방문 및 검사예약에서부터 퇴원약 복용 설명과 식이, 활동, 목욕 관리와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예방 및 체중, 당뇨, 혈압 조절 등 가정에서의 관리 내용까지 설명하고, 뿐만아니라 입원해있는 동안의 만족도를 조사하며 불만족하는 사항들에 대해 수집하여 환자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취지의 아주 좋은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당장 할 일이 많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짐일 수밖에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퇴원환자의 전화번호를 누르며 ‘어떻게 질문해야하지?, 빨리하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무적으로 끄적이던 찰나 수화기 너머로 반갑게 소리치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아이고 선생님!! 어쩐 일이에요?!”

다소 당황스러운 반응에 하려 했던 질문도 까먹고 기계적으로 안부를 물었다. 입원 해 있는 동안 매일 나누던 인사를 전화로 주고받으니 이상하게 쑥스럽고 어색했다. 뭐라 해야 할 지 우물쭈물 어쩔 줄 모르고 버벅대고 있을 때 환자분이 먼저 말을 건넸다.

“아니 내가 피자 한 조각이라도 사주려고 했더니 범 때문에 안 된

다며? 우리 때문에 맨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 그거 하나 주는 게 왜 불법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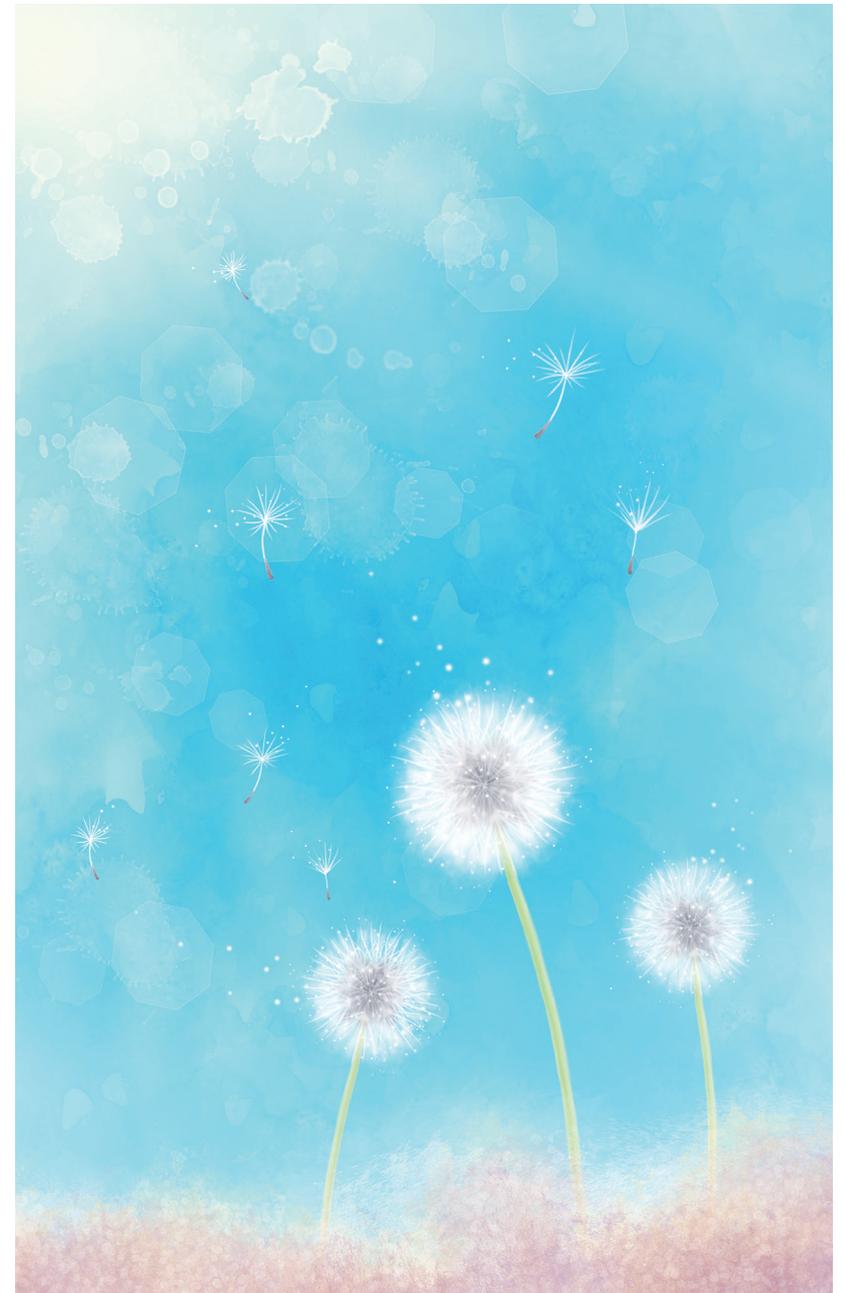
투정 부리는 목소리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 그제야 퇴원하고 집으로 잘 갔는지, 지금 불편하거나 아픈 곳은 없는지, 밥은 잘 드셨는지 편하게 질문을 이어갔다. 덕분에 괜찮다는 인사치레에도 기분이 좋아 만족도에 대한 질문을 하자 120% 만족한다며 혹여나 또 병원 가게 되면 꼭 선생님 있는 병동에 가겠다는 우스갯소리에 이브닝 업무가 밀린 와중에도 웃으며 즐겁게 통화를 마치고 일을 시작했다. 처방은 뽕뽕 떠 있었고 업무가 밀려 근무 내내 바쁘게 일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고 즐거웠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어. 내게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환자의 퇴원을 진행 시키면서도 나는 잘 들어가시라는 상투적인 인사만 하고 바쁘게 일을 시작했을 것이다.

그런 나를 보고 환자는 서운하고 아쉽지만 방해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것이다.

질환이 다시 발병하지 않는 이상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는 당연히 없을 일이었다. 그런데 해피콜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시작은 타의였고 특별한 의미가 없던 업무로 느껴졌었지만 이제는 일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환자들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따뜻한 간호의 시작이자 마무리가 되었다.



헤어지는 일

김주이 _ 삼성서울병원

병원은 헤어짐을 익숙하게 만드는 곳이다. 반복된 입원과 퇴원은 누군가를 보내는 것을 익숙해지게 하고, 반복되는 사직과 이동에 동료들 보내는 일도 낯설지가 않다.

병원에서는 죽음과 삶의 경계도 그리 멀지않아, 나는 누군가를 영원히 보내는 일에도 아주 조금은 단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무색하게, 막상 내 환자가 나의 근무 때 죽음을 맞이하면 그 일은 절대 잊혀지지 않고 오래 기억된다.

나는 신경외과 병동에서 근무했었다. 신규로 그곳에 발령받아 근무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간호하던 환자가 나의 근무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경험을 했다.

어린 친구였다. 오랜 기간 병마와 싸우느라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

졌지만, 그는 한창 꿈이 많은 고등학생의 나이였다. 아이의 엄마, 아빠가 병원에서 지내게 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반복된 입원과 퇴원의 과정이 있었지만 먼 지방인 아이의 집까지 내려가기에는 아이의 상황이 좋지 않았다.

그는 꽤 오랜 기간 우리 병동 준 중환자실에 있었다.

그의 심장과 폐는 일 하고 있었지만 그의 뇌는 그곳에 침범한 종양 때문에 이미 많은 기능을 잃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의 신체 기능은 악화되었다. 아이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했고,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다.

그날 오전 그를 진료하는 담당 의사는 그의 부모에게 그의 심장과 폐도 오랫동안 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의 뇌까지 종양이 자라고 있다고 했다. 부모는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 했을 것이다. 부모는 의사의 말을 듣는 내내 덩덤했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밤 그를 간호하는 담당 간호사였다. 저녁부터 그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불안했다. 두렵고 무서웠다. 그때 그의 몸에 부착되어 있던 심전도 모니터 기계의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응급상황이었다. 응급상황을 알리고 응급처치를 할 모든 준비를 갖췄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에게 더 이상 힘든 처치를 하지 않기를 바랐다.

우리는 그렇게 그날 밤 그를 보냈다.

환자가 사망하면 의료진도 순간 마음을 다잡기 힘들다. 하지만 환자가 장례 할 곳과 이동 방법, 사망진단서 등 이후에 챙겨야 할 일들이 계

속 있다. 그리고 우리보다 더 힘든 환자의 가족이 내 옆에 있다. 의연한 척 덤덤한 척 이후의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이미 나의 눈과 코는 빨개져 있었다.

그를 곱게 새 옷으로 갈아 입히고 흰 천으로 덮고 나서 아이의 엄마는 깨끗하게 샤워를 했다. 그리고 병실 앞 세면실에서 드라이를 하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는데 드라이를 하는 엄마의 모습이 이상하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슬펐다.

엄마는 혼자 중얼거리며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 이제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랑 아빠랑 우리 ○○이 이제 집으로 가자.

의사가 사망진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목석처럼 얼어 있었다. 내가 어떤 감정을 표출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의 엄마를 보면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내가 병원에서 그 때까지 본 가장 슬픈 모습이었다. 아이와 함께 집에 가기 위해, 먼 길을 떠나기 위해 단장하는 엄마의 모습이 너무도 슬펐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일은 아름답고 설레는 일이어야 하는데, 엄마의 상황은 그러지 못했다.

병원에 있었던 많은 날들 동안 엄마는 상상했을 것이다.

아이와 함께 집으로 가는 일, 아이와 함께 외출하는 일, 아이와 함께 예쁘게 단장하고 데이트를 하는 일.

불가항력적이었다 해도, 그 바람을 이뤄드리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의 엄마는 그가 입원할 당시 입고 온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병동을 나섰다. 우리에게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남겼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이 힘들었던 사람은,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은 우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다.

“조심히 가세요.”

이 말 이외에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아이와 아이의 부모를 보내 드렸다. 덤덤히 떠나는 부모의 뒷모습이 너무도 슬펐다. 오랜 병원 생활로, 언젠가 우리에게 닥칠 일이라고 끊임없이 생각했던 그 상상으로 오늘은 덤덤하지만 내일은, 어느 순간은 문득문득 오늘의 기억이 너무도 아플 것 같아서, 나는 두 분을 위해 기도했다.

‘이겨나갈 힘을 주세요.’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생각한다.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아이의 가족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두번째

그대 이름은 '간호사'
간호사로 일하며 깨달은 "나"에 대한 이야기

간호사라서

박지숙 _ 인하대학교병원

간호사라서
환자만 돌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족의 아픔은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라서
환자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가족들의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라서
환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자신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라서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숙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이기 전에
나는 아내이자 어머니이자
딸이라는 사실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인 내가 환자가 되던 날

박영미 _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 마태오복음 (7,6,12-14)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수술실 마취과 간호사로 처음 입사했던 새 내기 시절이 생각난다. 실습도 해보지 않았던 수술실 또한 마취과라는 특수부서는 나에게 너무나도 생소하고 낯선 곳이었다. 병동 실습과 응급실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소리에 귀 기울이던 간호 현장과 사뭇 다른 현상이었다. 병동에서 수술실에 내려온 환자들은 의료진들과 중요한 사항을 확인 후 의료진들은 일사분란하게 수술 준비를 하고 의사 간호사 간의 소통을 직접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수술실 현장이었다. 환자는 마취되어 말로 표현 할 수 없지만 모니터로 모든 것을 알려 주며, 모니터에 맞게 약도 주고 가온도 해주며 수혈도 해주는 것이 어린 신규 간

호사로서는 신기하기도 하고 기계에 대한 두려움에 무섭기도 했다. 이렇게 난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를 지나 난 마취과 간호사로서 15년차가 되었다.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오래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해 한 해가 마취과 간호사인 내게는 다르게 와 닿았던 것 같다. 처음에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느라 정신이 없어 수술 받으러 오신 환자들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또한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에서 환자들의 통증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 통증조절을 위해 정해진 진통제를 투여하였다. 마취 합병증으로 섬망이 오신 분, 짧은 회복실 체류 시간 동안 “다리를 들어 달라”, “다리를 주물러 달라”, “어깨 좀 받쳐줘라” 또는 반말로 “아가씨 이 것 좀 봐요” 등등의 요구를 듣다 보면 진이 다 빠져 환자분이 빨리 병실로 가기를 바랬던 적도 많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취과 간호사로 익숙해지고 마취과 학회, 연수 강좌를 통해 지식이 쌓여 가면서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진심으로 수술 환자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겼다. 또한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는 환자분들도 눈에 들어오고, 대기실에서 기도로 수술이 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눈빛도 알게 되었다. 수술이 끝나면 얼마나 아플까? 그들이 비록 마취로 정신은 혼미하지만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아마 이것은 나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첫 아이를 낳을 때의 일이다. 제왕절개를 위해 수술 준비를 하고 이동 침대에 몸을 실었을 때 난 처음 간호사가 아닌 정말 환자가 되었다.

수술 동의서 작성할 때 나오는 지문들은 모두 나에게 일어날 것 같았고, 환자복을 입었을 때는 실오라기 걸치지 않은 서늘한 느낌이 들었다. 수술실로 이동하는 길은 매일 내가 다녔던 길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느껴졌다. 그렇게 대기실에 들어섰을 때 나를 기다리던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마취를 하는 동안 손잡아주며 마취될 때까지 기다려 주던 선배, 후배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졌다.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나는 마취가 풀리면서 통증이 느껴지고 자가 통증조절 장치를 누르는 순간 오심, 구토가 심해 통증조절 장치는 누르지도 못하고 밤새 뜯 눈으로 통증을 견뎌냈다. 하루 이틀 지나니 통증도 좋아지고 몸도 회복되어 갔다. 엄마가 되는 이 첫 경험은 간호사로서 내가 좀 더 성숙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분만 휴가를 마치고 마취과 간호사로 복귀한 나는 어느새 대기실 환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통증 때문에 힘들어 하는 회복실 환자의 요구를 웃으면서 대응하고 있었다.

“간호사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이 간단한 진리를 그동안 왜 난 몰랐을까?

오늘도 나는 수술실 문을 들어서면서 되새긴다.

결국 사랑의 사명이었네



진종임 _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모바일(Mobile)' , '움직일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이동성을 가진 것들을 총칭하는 말.

맑은 하늘의 이름 모를 어느 지점에 있는 투명 햇살의 따뜻함보다는 엄마 품에 안긴듯한 포근함이 우리의 마음까지 스며드는 5월의 어느 날, 나무들의 푸르름이 절정에 이른 것같이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들렀던 강남의 대형서점에서 한 책의 제목이 나의 시선과 발길을 멈추게 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 , '아이폰 앱 개발' 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출판사, 저자 별로 분류된 책들의 공간 속에서 말이다.

'모바일 앱 개발' , 나와 눈맞춤을 한 이것과 마주한 순간 나의 고요한 내면의 바다가 갑자기 갈라졌다. 그리고 그 사이로 거센 물줄기가 거부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솟구쳤다. 그 힘은 갈라진 바다의 틈 사이에서 또 다른 파도를 생성해 냈는데, 마치 어머니가 사준 고까신을 처음 신

어보는 어린아이의 일렁이는 마음처럼 누군가를 스스럼없이 미소 짓게 하는 설렘의 파도였다. 이 순간 느낀 강한 힘으로 나는 추호의 의심없이 지금 내가 본 이것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의 뇌리까지 기분 좋게 만든 그 설렘으로꼭 해낼 것이라고 굳게 다짐했다.

'운명(destiny)',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인간적인 힘, 또는 그것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이르는 말.

어쩌면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신이 누군가의 마음 속에 운명의 불씨를 지피 우리의 내면을 환히 밝히고 나 자신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하루라는 신의 선물을 충실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연히 마주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면서 결국엔 나도 모르는 힘에 끌리어 내 안의 굳은 다짐을 하게 됨으로써 말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마음의 주름 속에 숨겨져 있어 차마 알지 못했던 그것과 운명처럼 조우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운명은 까마득하여 볼 수 없었던 나의 앞 길을 밝혀주었고, 안개처럼 자욱하여 희미했던 나의 발자국을 드러나게 해주었다.

'지식(Knowledge)', 어떤 대상에 대하여 배우거나 실천을 통해 알게 된 명확한 인식이 나 이해

수술실 간호사인 나는 수술에 직접 참여하여 집도의가 호명하는 기구를 특유한 나의 낮은 어조로 다시금 부름으로써 그 순간 사용하는 기구 및 장비를 배워 이해한다. 또한 기회가 없어 잘 접해보지 않은 수술

에 우여곡절로 들어가게 될 때는 수술 매뉴얼이나 동료와의 대화를 통해 중요한 특이사항 몇 가지들을 인지한 후 수술에 들어가 몸으로 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매일 총 30개의 수술실의 수술상에는 각기 다른 임상과, 집도의 그리고 수술실 간호사들이 함께 펼치는 대 향연이 벌어진다.

올해 5년차의 수술실 간호사인 나는 모든과는 아니지만 여러 임상과를 배운 경험과 3교대 근무로 매일 참여하는 수술 과와 수술명이 다르다. 일주일에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 등 각기 다른 4-5개의 다른 임상과와 집도의의 수술에 참여하고, 수술의 일정 패턴은 익혔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했었나?'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이 교수님은 장(intestine)을 자르고, 봉합하실 때 다른 니들홀더(Needle holder, needle을 잡는 수술기구)를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건가? 저건가?' 하면서 내 머리 속의 기억을 세차게 두들기고 또 두들겨본다. 이마와 미간에 삼자 주름을 애써 만들며 온갖 인상을 찌푸려도 보지만 매년 역부족이다. 그때 나의 부족함을 탓하기 보다는 괜히 영화 속 제목인 내 머리 속의 지우개를 떠올려 본다.

집도의들은 매년 똑 같은 수술을 하지만 여러 임상과를 접하는 수술실 간호사들에게는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까지 기억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우리들은 수술에 참여하고 난 뒤, 수술 간호노트나 수술 매뉴얼을 직접 만들어 컴퓨터에 보관하는 식 등의 방법으로 습득한 업무지식을 쌓고 있다.

구획된 곳에서 임상과별로 다른 수술이 진행되고, 해당 수술팀 이외의 사람은 출입이 제한된 공간인 수술실, 그럼 갑자기 수술물품, 수술 과정 등의 수술과 관련된 업무정보가 바뀌면 지금 이 수술에 참여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인가? 그럼 이후에 이 수술이 다른 수술방에서 진행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유(sharing)' , 두 사람 이상인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공유는 두 사람 이상이 하나의 무언가를 두고서 함께 소유하기 위하여 만남을 가지는 일이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그 무언가는 다양각색이 될 수 있다. 수술실 간호사들에겐 수술환자와 관련된 업무지식이 그 만남의 무언가가 된다. 이전처럼 수술 중 어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우리는 각자가 만든 노트에 기록하고 이것을 다른 동료들에게 보여주거나, 수술실 내 화이트 보드, 웹 커뮤니티 등을 통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여 내 곁에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수술환자들 곁에 머무른다. 설령 소원한 관계의 동료라 할지라도 업무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할 수 밖에 없다. 즉, 수술실 간호사들 간의 지식공유는 곁에 있는 동료들을 대면 하게 해주고, 수술대 위의 긴장된 얼굴의 환자가 품는 치료와 회복의 간절한 바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준다. 이렇듯, 수술실 간호사들의 업무지식 공유는 너와 나의 눈맞춤의 기회를 주고, 억지로 캐낸 이타적 마음이 아닌 천연 그대로의 마음으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수술실 간호사들 만의 무엇이다.

'이끌리다(be driven)' , 사람, 단체, 사물, 현상 따위를 인도하여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다

나의 마음 속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있어왔다. 그리고 그것을 늘 희망처럼 바라보고 살았다. 대학부터 2014년 봄 대학원 진학을 하기 전까지는 '대학원 진학' 이었고, 지난 5월 강남의 대형서점에서 나의 살아있는 모든 감축을 세운 경험 이후부터는 '모바일 앱 개발' 이 되었다. 나도 모르게 한숨 짓고, 삶의 무게가 짓누른다고 생각될 때는 바라봄의 법칙처럼 마음 속의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 그러면 곧 마음이 평안해짐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오른손의 주먹이 불끈 쥐어진다.

논문은 주제만 잘 정하면 80%는 완성된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논문 시작 전부터 주제를 잡느라 엄청 골머리를 앓는데 나 또한 열외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이들과 달리 펜스레 머리를 부여잡는 동작을 취하기 보다는 내 마음의 그 무엇인가에 자연스럽게 이끌렸다. '모바일 앱 개발' , 처음 마주할 때의 그 강한 힘에 나의 열정을 더하여 꼭 해내겠다라는 다짐을 했고, 또한 이것이 앞으로 내가 써야 할 논문의 주제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꼭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사명인 것 같았다.

간호업무 지식공유(Nursing work Knowledge sharing)' , 업무지식에 관해 사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여 사적으로 정당화 하는 과정

우리는 서로 만져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늘 그리워하고 갈망하면

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수술실에서 우리들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진 채 눈만 빼꼼히 드러난 모양이지만 그 자그마한 눈으로 수만 가지의 모양을 만들면서 누군가를 향해 눈짓하고, '뚜뚜뚜' 하는 심박동 소리와 기구와 장비의 소리만이 수술실을 감싸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내 앞에 놓여있는 기구들로 손짓한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동료들 부르는 그 끊임 없는 눈짓과 손짓은 업무와 관련된 지식을 말하고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각자가 가진 지식은 모든 간호사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하는데 이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까지 모두 내어 맡긴 채 우리 앞에 누워있는 환자를 위해서이다.

총 30개의 수술실, 각기 다른 임상과, 임상과별로 각기 다른 집도의, 100명이 넘는 수술실 간호사…… ‘그래 바로 이것이야. 수술실 간호사들의 지식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자’. 강남 한복판의 대형 서점에서 느꼈던 추상적 이끌림이 실존적 명제로 거듭나는 순간이었다.

‘수술실 간호사 간의 지식공유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앱 개발’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관련 문헌을 고찰하여 지도교수님께 조언을 구했고, 이를 주제로 강의시간에 발표도 여러 번 했다. ‘모바일 앱 개발’을 선생님이 과연 하실 수 있나요? 참신하다, ‘정말 업무에 적용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정보 보안의 문제’ 등 다양한 긍정과 부정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모바일 앱 개발’을 하겠다는 나의 열정은 간절한 기도로 하늘에 상달되었고, 주변의 수많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리고 ‘수술실 간호사의 지식공유 실태와 영향요인’이라는 주제가 석사논문의 최종주제로 결정되었다. 간호학 분야에서 지식공유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였고,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지식공유에 관한 선행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곧바로 ‘모바일 앱 개발’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다.

이때, 나는 참 신기한 경험을 했다. 버스 정류소에서 집에 가는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대학원 수업을 같이 들었던 한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때 우연히 나의 논문의 주제를 이야기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최근에 수술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보았는데 거기서 수술실 간호사의 정보공유 부족문제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선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는 수술실 간호사의 정보공유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벼락 맞은 듯이 놀랐다. 그리고 순간의 갑작스러운 흥분으로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렸다. 또한 지도교수님께서 나의 열성을 아시고 다른 대학에서 간호 정보학을 주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께 나의 사정을 말씀 드리셨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원을 붙여서 도움을 주겠다는 응답을 나에게 전해주셨다. 감사하다는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극한의 엑스터시(ecstasy)의 순간이었다.

즉, ‘모바일 앱 개발’은 내가 이 곳에 존재해야 하는 지상명령으로 나의 마음판에서 지울 수 없는 그 무엇인 것이었다.

작년 5월부터 시작된 모바일 앱 개발의 만남과 지식공유 논문의 여정, 이 길을 달려오는 내내 내가 아는 것은 모바일 앱을 개발 해야 한다는 나의 사명과 수술실 간호사들 간의 지식공유는 잘 이루어 한다는 이 두 가지 명제뿐 이었다. 그리고 일이 끝난 뒤 도서관에 앉아 컴퓨터 속에 저장된 수많은 논문들과 함께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순간,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순간, 설문조사를 위해 의뢰한 병원에서의 수 차례의 거절 등 어느 것 하나 그냥 되는 법이 없었지만 어느새 논문은 결론을 향해 나아갔고 고찰을 끝으로 마무리되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연구의 결론이 모바일 앱 개발로 연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출되었고, 고찰에 추후 연구방향으로 제언할 수 있었다.

2015년 11월, 지식공유 논문이 세상의 호흡 아래 있기 바로 직전이다. 그리고 지금 이순간 나 자신의 호흡을 먼저 가다듬어 본다. 감사, 사명, 행복이란 단어들이 내 마음 속을 맴돌면서, 내가 받은 이 사명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해 본다. 행복이란,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로 채워 잠깐의 허기를 달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를 위해 내가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서로 공유함으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었다.

우리는 사랑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랑을 준다고도 한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주고 받는 삶인데, 나를 포함하여 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궁극적인 그 무언가는 모바일 앱 개발을 넘어선 바로 '사랑' 입을 비로소 깨닫는다.

"액자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 책은 도끼다, 박웅현 -

내 마음 속의 액자는 무색 배경이라 더욱 도드라지는 '모바일 앱 개발', 이것으로 나의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소명을 실천하는 행복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나의 소소한 이야기-喜怒哀樂

송예슬 _ 이대목동병원

안녕하세요?

저는 '마의 3년차' 를 잘 견디고 있는 이대목동병원 혈액종양내과 병동 간호사입니다. 입사 후 어떻게 2년 8개월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규 맨 마냥 신규 딱지를 언제 땄까, 1년을 잘 넘길 수 있을까, 나도 과연 선임 간호사들처럼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왔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병원을 다닐 수 있었던 이유는 든든한 동기들 덕분입니다. 저를 포함한 동기 5명이 서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동기들 중에 한명이라도 근무가 같은 날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일도 잘되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간호사로서 2년 8개월간 일을 하면서 짧다면 짧은 기간 이지만 여러 가지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뻐던 일들, 화가 난 일들,

슬펐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지금부터 소소하게나마 이런 저런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喜 회

제일 기뻐던 순간은 바로 5-6개월간 혹독한 차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난 후 처음으로 맞이한 '독립' 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실수 하진 않을까 일이 더더 다른 동료 선생님들에게 피해를 드릴지 않을까 가장 많이 두렵고 떨리기도 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장 4년간의 간호학과 공부와 2년간의 간호학생 실습, 5~6개월의 혹독한 차트 트레이닝이란 굴곡진 산등성이를 넘고 넘어 비로소 간호사다운 간호사라고 칭하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 밀려드는 오더에, 쌓여만 가는 업무에 모든 것이 버거웠지만 지금까지 몸과 머리에 익히고 배운 것들을 혼자 힘으로 실행에 옮기며 업무를 잘 끝마쳤다는 생각에 제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怒 로

신규 맨 정말 작은 실수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 제 자신에게 화가 났던 실수도 있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당뇨병이 있어 인슐린 주사를 하루에 한번만 투여 하고 있는 신환이 있었는데 history를 끝마치고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저녁에 인슐린 주사를 한 번 더 투여 할 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투여하기 전에 발견되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이 중요한 것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哀 애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혈액종양내과병동은 말기 암 환자들이 완화치료를 위해 많이 입원하고 그만큼 또한 많이 사망하시기도 합니다. 독립하기 전부터 저와 라포 형성이 좋았던 말기 암 환자가 한분 있었는데 제가 가장 슬펐던 기억은 독립 후 처음으로 사후 처치를 담당했던 환자가 하필 그 환자분이었을 때입니다. 사후 처치를 하며 옆에서 오열하는 보호자들을 보며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정정하셨을 때의 모습이 하나하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그림기도 합니다.

樂 락

제일 즐거웠던 기억은 바로 환자분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10월 4일, 1004데이라는 이름으로 환자분들을 한데 모아 따뜻한 차도 대접하며 발 마사지, 손 마사지, 머리 마사지 등을 해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입사 이래 처음 해본 봉사활동 인지라 많이 낯설고 환자분들을 어찌 대할지 몰라 당혹스러웠지만 교육 받은 것을 토대로 정성껏 한 분 한 분 마사지를 해드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뿌듯함과 즐거움이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 지 깨달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연차가 쌓이면서 어떤 또 다양한 희로애락을 경험하게

될지 걱정 반 기대 반 이지만 怒로, 哀애 보단 喜희, 樂락이 더 많아서 즐겁고 보람차게 일하고 싶은 소망으로 이 글을 마칩니다.



내가 하는 일! 이거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까?

안수미 _ 삼성서울병원



수요일 오후... 소아과 외래는 다른 수요일 오후처럼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검사를 예약하려는 분들, 예약 없이 소아과를 찾아와 진료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분들... CBC 검사 결과를 체크하려는 분들... 그 와중에 전화기는 계속 울려 대고 평소처럼 정신없는 시간이었다. 그러던 중 전화를 받았는데, 소아외과 000 교수님 환아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였다. 환아는 5세된 여아로 림프관종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였다. “우리 아이가 얼굴과 턱 부위가 많이 부어서 교수님 진료를 빨리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첫째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다가 며칠 전 하늘나라로 갔어요. 여기 부산이라 금방 갈 수도 없고 정신이 없네요... 어떻게 하죠? 제발 도와주세요.” 엄마의 거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모르게 가슴 한편이 찡해 왔다. 나 역시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으로

로 첫째 아이를 잃은 엄마의 심정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엄마에게 최대한 도와 주겠노라 안심을 시켰다. 그리고 첫째 아이를 잃었지만 힘내서 동생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 하자고... 진심으로 그 엄마를 위로 했다. 부산에서 오기가 힘들고 또 경황도 없는 상황이어서 우선 환아의 부은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도록 했다. 000 교수님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상의 후 전화 드리겠다고... 곧 사진이 메일로 도착했고 나는 000 교수님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고 상의를 드렸다. 교수님은 사진을 보더니 피시바닐 주입을 빨리 해야 하나 나에게 가능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셨다. 나는 우선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피시바닐 주입을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서울에 올수 있는 날을 물어 보았다. 가능한 제일 빠른 날로 수술 스케줄을 잡았다.

그 다음 문제는 피시바닐 약물을 사는 것이었다. 피시바닐은 희귀약품 센터를 통해서만 구입 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도 동의서, 진단서, 처방전 등 구입 과정이 다소 복잡한 약물이다. 보호자가 병원에 와서 서류 등을 챙겨야 하지만 부산이라, 또 큰아이 일 등등 오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엄마를 대신해서 서류 대행 업무를 해서 약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엄마를 대신해서 서류를 챙기는 과정이 시간도 들고 번거로운 면도 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 가족을 돕고 싶었기에 나는 기꺼이 그 일을 대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수술 전 검사도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하고 결과를 팩스로 받아서 의무기록 스캔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며칠 뒤 그 환아가 피시바닐 시술을 받는 날이었다. 그 환자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 와서 너무 힘들 때 잘 도와 주셔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셨다.

나는 가끔씩 생각한다. <내가 하는 일! 이거보다 더 잘 할 수는 없을까? >

나 또한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다.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백 퍼센트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헤아릴 수 있는 것 같다. 소아과 업무 특성상 환아와 보호자를 만나고 이해하는 것에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 간다면 나는 나의 일을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나를 찾는 분들에게 엄마의 마음으로 다가가려 노력한다.

라포(rapport), 마음의 유대

이웃새 _ 이대목동병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가끔은 그것이 전부일 때도 있다.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힘든 순간이 있지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보호자들을 대할 때 이다. 중환자실과 같은 폐쇄 병동 특성상 보호자들이 환자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0분씩 두 번, 겨우 한 시간. 중환자실에서는 하루 중 1분도 허투루 쓰는 시간이 없다. 정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지만 그 중 면회시간 역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보호자들에게 이 한 시간은 환자의 하루를, 의료진의 전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은 없다.

면회 시간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의 공세를 받는다. '왜 이렇게 부었

나요.’,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언제 퇴원할 수 있나요?’ , ‘깨어날 수 있을까요?’ 같은 난감한 질문들까지. 하나하나 대답해주다보면 가끔은 이런 질문들에 지치고 힘들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호자들에게는 어느 질문도 사소한 것이 없고 하나의 질문에 백가지 희망을 담아 던지는 물음일 것이다. 그리고 내 말 한 마디와 태도가 환자와 가족들에게 때로는 중요한 의미가 되기도 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되자.

일하면서 감동 받기란 드물고도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아주 간단하다. 보호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사소한 요구에도 성심껏 응답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고 신뢰를 줄 수 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 라포(rapport)가 되는 것이고. 신규간호사일 땐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던 것들이 언제부턴가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때로는 내 태도가 너무 무심하지는 않았는지, 말투는 어땠는지 돌아보기도 한다.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임상에서 일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많다. 처음 시작한 언제 감동을 받았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먼저 그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문진(文鎭)



김영란 _ 성남중앙병원

‘두루마리 화장지는 끝으로 갈수록 빨리 풀린다’ 했던가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안타까움에 번잡스러운 병동에서의 하루는 오늘도 LTE 급으로 지나갔습니다.

머리에 쓴 하얀 캡이 바르르 떨리던 날, 가슴에 새겼던 다짐은 돌아보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로 일하며 부딪치며 쌓이는 포인트 같은 것.

“난 나이트를 하면 새벽 두 시경에 CPR 상황이 잘 터지더라구 그래서 Rounding 시간을 그때쯤으로 조정해서 들었더니 몇 건 위기상황을 잘 막게 되었어”

요양병원에 스태프로 근무 중인 친구가 말을 합니다.

“음~~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논문을 찾아봤더니...” 한때 요양 시

설을 운영했던 친구가 답을 주었지요. 30여년의 임상경력을 가진 친구들의 대화는 지금도 경험과 간호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제 정년이 얼마 안남았는데...

간호란 무엇일까요.

간호 대학 시절 사귀었던 남학생은 '간호란 문진(文診) 과 같은 것 이라 하였지요.

붓글씨를 쓸 때 종이가 흔들리는 것을 잡아주는, 하여 멋진 글씨가 써지는데 도움을 주는 '문진(文診)' 과 같이 '환자의 몸과 아픈 마음을 잘 지지해주는 것' 이라고 때마침 학교에서 처음으로 전인간호라는 단어가 나와 배울 때였기에 '오호~~ 간호란 참 멋진 일이구나!' 싶었지요.

그러나 취업하여 임상에서 이루어지는 간호는 직업에 대한 회의감 마저 들게 할 때가 많았지요. 나이트 근무로 녹초가 된 어느 날 유난히 붉게 떠오르던 태양이 왜그리도 슬프던지, 서둘러 나온 별을 보며 출근 하던 나이트 근무는 또 어땡고.... 이 모든 기분을 알기에 데이 근무만 하는 지금 부서원들을 보면 애잔함과 대견함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직책을 거부하고 스텝으로 밤 근무도 기꺼이 맡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친구를 보며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덜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알랭드 보통의 말을 생각합니다.

전인간호라는 초심에서 이제 통합 간호 간병 서비스라는 간호의 변화를 보며 임상에서의 34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이제 단계적으로나마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웰 다이빙' 이 시행 돼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일반 병원과 가정에서 확대 된다고도 하지요. 이렇듯 간호사의 역할이 필요한 일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는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게 현실이고 보니 영역 확장이 무조건 좋게만 느껴질 수도 없습니다. 근무한 지 일주일 만에 더러는 하루만에도 새처럼 날아가 버리는 신규 간호사들을 봅니다. 중소병원이 겪는 어려움이지요. '이해하자 이해하자' 노력해도 맥이 풀리는 상황들을 만나면서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커다란 문진(文診)하나 없어놓습니다.

관계

혼자 이곳까지 걸어왔다고 말하지 말라

그대보다 먼저 걸어와 길이 된 사람들

그들의 이름을 밟고 이곳까지 왔느니

별이 저 홀로 빛나는 것이 아니다

그 빛을 이토록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스스로 저물어 어두워지는 것이다. - 이달균

임상을 떠나는 날까지 후배들을 위한 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상처간호사가 행복한 이유

고영옥 _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추적추적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오늘도 3층에서 10층까지 몇 번을 오르락 내리락 했는지 모른다. 어깨가 무너질 거 같고 다리를 나도 모르게 끌게 된다. 병리과를 지나고 재활의학과를 지나고 비뇨기과 외래를 거쳐 사무실로 걷는다. 멀리서 신부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셨나 보다 “고 선생, 나 마음이 아파요. 상처 좀 치료해주세요. 하하” 땅만 무심히 쳐다보며 걷는 내가 처량해 보였을까 아니면 힘들어하는 내 영혼을 토닥토닥 감싸주고 싶으셨던 걸까 장난스럽게 건네시는 그 말씀에 기운이 난다. 그렇다. 나는 스스로의 자랑스러움을 아는 우리 병원의 상처간호사다.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이 업무를 어떻게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전문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독자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간호부장님은 걱정 말라 하시며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해 줄

터이니 여기에 너의 열정만 심어달라고 하셨다. 하지만 내 마음은 천 가지 만 가지의 고민과 생각들이 뒤죽박죽 되어 풀리지 않는 어려운 미적분 문제를 풀어내고 있는 기분이었다. 상처간호사로서 나의 업무는 우리 병원의 욕창 및 여러 가지 상처 파악부터 시작하였다. 낯선 병동 선생님들에게 한 가득 친절을 얼굴에 머금고 인사를 건네며 나란 사람이 상처간호사이고 아직은 어떻게 일을 시작해야 할 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노라는 이야기를 건네며 병동에서의 욕창 발생 이유와 예방의 한계, 치료방법 등등을 한 달이란 짧은 시간 동안 꼼꼼히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간호부와 진료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어내면 별수록 사실 하루 하루가 더 힘들었다. 육체적으로는 드레싱의 체계와 다양한 새로운 방법들을 적용해야 했고, 정신적으로는 틀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파트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해야 하기에 미숙한 나에겐 너무 어려운 과제였다.

상처간호가 잘되고 있는 병원, 우리병원과 비슷한 규모의 병원,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들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쫓아다니며 얼마나 많이 보고 외우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내 마음엔 저렇게 많은 병원들의 장점들만 다 모아서 우리병원에 활용해야지 하는 기특한 생각들을 하면서 말이다. 내가 나란 사람을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열정이란 것 그것만 가슴에 품고 뛰고 또 뛰고 있다는 것 때문일 것이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상처 간호의 업무 프로세스와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들이 내 손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난 생각했다. '상치간호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욕창이 생긴 다음에 드레싱을 하는 것이 주일까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일까 사실 후자가 정답일 텐데 정작 많은 병원에서는 여전히 드레싱이 주 업무가 되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우리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욕창 예방이 될까…?

머리가 아팠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느라 머칠이 가도 어떤 답도 나오질 않았다. 왜냐하면 나를 비롯한 우리병원 간호사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간호사들은 시간에 쫓기며 일에 치이고, 우리의 환자들의 심적, 육체적 고통을 매순간 같이 품고 느끼며 곁을 지킨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욕창예방을 할 여력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다 보니 도저히 답이 나오질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영킨 실태래를 풀 수 있는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병동들을 하루도 빠짐없이 다니면서도 제일 중요한 그것을 놓치고 생각한 나를 질책하면서 그 순간을 그 광경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내 안에 고스란히 담아보았다.

검사와 수술, 입원, 퇴원이 밀리고 간호사들을 도와줄 직원도 다른 업무로 병동에 없고 환자분은 검사를 위해 병실에서 어느 틈에 나와서 스테이션 앞에 대기 중인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디서부터 보고 있었던 것인지 병원에서도 연배가 많이 높은 옆 병동 파트장님께서 “제가 모시고 다녀 올게요. 이송표 주세요.” 라고 하시며 이동 침대에 누워 계신 환자에게 환자 확인 및 검사 확인을 하더니 침대를 끌고 유유히 검사실로

가셨다. 그렇다. 나란 존재가 그 바쁜 업무에 도움을 주면 된다. 그 전쟁 같은 하루 하루를 견디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힘을 덜어내 주면 되는 거다 어떤 일이 먼저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난 병동이나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중증도가 높아 초래된 욕창 발생과 드레싱의 지연 등으로 빚어지는 많은 불평과 불만을 듣기 전에 내가 먼저 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난 일단은 마음 고생 보다 몸 고생을 먼저 선택한 것이다. 두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묶고 다니는 것 같이 버거운 하루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일년이 되다 보니 나란 존재를 알아 봐주기 시작했다.

병동을 지나가면 일단 우리병원 간호사들은 경쾌하고 한 톤 높은 목소리로 '선생님' 하며 나를 불러 세운다. 반갑다는 표현이리라... 바쁜데 미안하다며 끈끈한 소통의 시작점을 먼저 건넨다. 그리고 병동 선생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환자들의 상처 문제들을 문의한다. 거기엔 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환자들에 대한 진심이 묻어 있다는 것을 느낀다. 몸은 힘드는데 마음이 행복했다. 다리는 아픈데 가슴이 벅차 올랐다. 그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집안에 가훈이라는 이름으로 근면 성실이라고 쓴 액자를 집안 가운데 걸어 놓으셨다. 그 식상하고 당연한 단어가 유년시절 내내 걸려있었는데도 한번도 거기서 의미를 찾으려 하거나 관심을 가지려 하질 않았다. 그냥 거실 중앙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장식품 뭐 그 정도만 생각했다. 우리네 아버지들이 당신 자식의 인생은 꼭 이렇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램이었음을 사십 년을

살고서야 알아가고 있었다. 사람은 그리고 조직은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꺼안을 준비가 되어있고 근면과 성실함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준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터득한 기분이었다. 간호부의 지원으로 각 병동마다 '욕창관리 병동간호사'를 뽑아 욕창예방 활동에 돌입하면서 그리고 항상 가슴엔 근면과 성실이라는 우리 집의 구태의연한 가훈을 마음에 품고부터는 모든 것이 일사천리였다.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봐오던 여러 진료부에서도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고 나를 찾기 시작했다. '욕창관리 병동간호사'라는 모임의 20명이 넘는 각 병동 선생님들은 한 달에 한번씩 모여 case study, literature review, 이론교육, 실습 등으로 지식과 기술을 쌓아갔고 각 병동마다 욕창예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오고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커뮤니티를 만들어 같이 수다도 떨고 최신 지견들을 공유하며 열심히 꾸준히 1년간의 욕창예방 활동을 잘 엮어갔다.

결론을 객관적으로 다 표현해줄 수는 없었다. 욕창 지표의 숫자가 모든걸 설명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큰 파일 두 개 분량의 교육 성과와 욕창예방 관리 체계, 욕창발생 시 적극적인 즉각적인 의사소통의 통로를 만들어 놓고서 1년간의 치열한 교육 과정이 끝났고 1기 욕창관리 병동간호사들은 2기 후배님들에게 그 자리를 이어주었다. 2기가 출범하고 우리는 조금 더 적극적인 욕창 예방에 고민하기 시작했다. 욕창예방 중재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용 가능한 임상연구를 해보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21명의 2기 욕창관리 병동간호사 선생님들과 6개월간 꾸준한 노력과

열정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갔다. 중재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 조를 짜고 퇴근 후 시간을 맞추어 중재에 대한 동영상은 모두 같이 제작하고 일도 많고 탈도 많은 바쁜 시간 중에 만나 교육받고 실습하고 체크리스트로 테스트도 해가며 각 소속 병동의 욕창 위험이 높은 환자들에게 직접 욕창예방 중재를 시행하고 증례서식지도 작성하며 어렵고도 힘든 시간들을 즐거움과 뿌듯함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우리 성과를 발표하게 된 학술대회가 있던 날 리허설도 해야 하고 상처간호 의뢰되신 환우 분도 돌봐드려야 하고 챙겨야 할 것도 생각할 것도 많았던 그날 정신이 반쯤은 쏙 빠져 있던 시간들이 지나고 발표도 시상도 이렇게 저렇게 끝나가고 있었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각자 다른 파트의 일원으로 나와 함께 자리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 우리가 힘들었지만 이루어 내었다는 뿌듯함 그리고 자랑스러움, 성취감.. 이런 세상에 아름다운 단어들을 나의 핸드폰 문자 메시지에 가득 채워주고 있었다. 나의 열정에 혼자서 긴 박수를 보내며 돌아서는 데 대강당 저 뒤에서 김선에 선생님이 뛰어온다. 김선에 선생님은 수술실 욕창관리 병동간호사이다. 부서 특성상 욕창발생이 심하게 되지 않고 욕창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내가 별 도움을 못 주었던 선생님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연구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동영상 제작이나 허드렛일들을 도맡아 했고 모임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자 노력했으며 마음씨 또한 으뜸인 선생님이었다. 그런 선생님에게 난 일에 시간에 지친다는 이유로 알면서도 모른 척 지나갔던 미안한 선생님이기도

했다. 말수 적고 순하고 착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저 너무 좋아 죽겠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갑자기 뜨거운 것이 내 눈 속 저 깊은 곳에서 파도 치듯 밀려온다. 우리가 한마음이었다는 생각을 2년 동안 한번도 해보지 못한 나의 미숙함이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한마음이었음을 욕창관리 병동간호사라는 좀 세련되지 못한 이름이지만 거룩하고 깊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끈끈한 사랑으로 뭉친 조직임을 나에게 김선애 선생님이 이야기해주는 것 같았다. 이젠 내 옆에 나보다 딱 10배 열정이 더 많은 후배 선생님이 함께 해주고 있고 2기 욕창관리 병동간호사 선생님들은 우리 두 사람보다 딱 20배의 열정을 더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리더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그리고 구성원 각자가 리더의 생각과 행동이 되어 같이 움직인다면 우리 조직 문화의 미래는 눈부실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그런 날들이다.



설명의 눈높이를 맞추다



오은영 _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병원 입사 22년째 근무를 하면서 나는 어떤 간호사가 되어야 하나? 설명을 잘하고자 하였고 그 설명을 잘하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다.

신경외과 병동에 근무할 때에는 각 질환별 리플렛을 만들어 제공하고 CP(표준진료지침, critical pathway) 작업을 하면서 각 의료진 간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도록 표준화하였고, 환자에게 제공하는 설명문에도 우리는 당연히 이해되고 쉽게 여겨지는 문장들이 애매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지 개정 보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신경외과 외래에서는 입원하여 진행하는 각종 검사나 시술(수술)이 진행되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마다 설명 방법이 다르고 환자 개별상황에 따른 차이가 있어 환자상황에 따라 동선별, 요일별로 구분한 설명문

으로 만들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해할 수 있고 동행하지 못한 가족들이 읽었을 때도 어려움이 없도록 제작하기도 하였다.

개발했던 설명서들을 생각하다 보니 항암제 구입안내를 위한 설명서를 제작하게 된 동기가 떠오른다.

어느 날 예약환자 파악을 위해 의무기록을 확인하던 중 중국교포와 결혼해서 사는 뇌종양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외래에서 'PCV Chemo Tx. 결정 예정' 이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다. PCV Chemo는 희귀약품으로 원내에서 단순히 처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가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나 이 환자는 외래에서 진료를 본격적이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이 의무기록에 있는 정보를 토대로 준비를 해야만 했다.

환자 상태는 약간의 mental confusion으로 운전이나 의사소통이 완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호자는 한국말이 서툰 중국교포였다. 그들에게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희귀의약품] 센터를 방문하여 이름도 희귀한 procarbazine, lomustine 이라는 항암제를 살 수 있도록 수기 처방전과 진단서 발급 방법과 비용 설명(매우 고가였다)을 하고, 다음 내원 시 지참해야 함과 진료 전 시행하여야 할 검사에 대한 안내를 해야 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여 약도와 전화번호를 편집해서 붙이고, 처방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절차를 기록한 설명문을 제작하였다. 약 구매 후 내원했을 때에는 2가지 경구 항암제의 날짜 별 복용방법과 Vincristine 주사일, 휴식기 안내, 부작용 등을 표로 만들어 날짜를 써

서 설명문을 완성했다. 혹시나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은지 묻고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매 단계 무사히 치료과정을 밟아나갈 수 있었다.

외래 진료 중 PCV Chemo는 회수가 지나면서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힘들어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건디시네요. 이렇게 계획된 치료 스케줄을 잘 따라오시는 환자분은 처음입니다.” 라는 교수님 말씀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꼭 잡고는 ‘지극’ 과 ‘정성’ 이 어떤 것인지 많이 느끼고,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언제든지 전화하면 목소리도 기억하고 걱정하고 배려해 주는 마음, 타국에 와서 낯설어하는 아내에게도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줘서 고맙다고, 이제는 많이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하였다며 거듭 ‘고맙다’ 말씀하시는 가족을 보며 내가 더 감사한 마음이었다.

병동, 외래를 거쳐 간호행정교육팀으로 부서이동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의 맞춤간호란 무얼까 생각하니 내가 처한 간호환경에 맞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며 간호부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 지금 나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다.

현장의 간호사들이 느끼는 행정업무는 외국에 시집와서 적응하는 교포 아내처럼 낯설고 두려운 일일 수 있다. 그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해하며 눈높이에 맞는 설명문과 프로토콜을 만들고 교육을 하면서 설명의 맞춤-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맞춤간호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들이 환자들에게 병원이라는 곳이 낯설고 두려운 곳이 아님을, 편안하게 알려드리는 나눔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느끼곤 한다.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머문 그대에게

김윤영 _ 서울아산병원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수 많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사랑 받고 싫어하는 관심과 애정은 인간의 본능이자 욕구다.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 제목과 ‘늘 상처받는 당신을 위한’이라고 적힌 문장에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남들이 생각하는 나에게 대해 걱정하며 지내던 모습이 불현듯 스쳐갔다. 특히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진 나로서는 타인의 이목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가 생긴다. 간호사로서 해줄 수 없는 부탁을 해오는 환자와 부딪히기도 하고 처방을 내는 의사와 부딪히기도 하며 인수인계를 하며 선후배 간호사와 부딪히기도 한다. 물론 서로 얼굴을 붉히며 지내는 것은 좋지 않지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처럼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무시하고 지낼 수는 없을까? 우리에게

있어 두려움의 대상은 어찌면 인간관계에서의 받는 상처일지도 모른다. 물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결국 그것은 통제 밖의 일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움 받을 용기이다.

이 책에서는 미움 받을 용기를 위한 방법으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중요하게 여기라고 말한다. 우리들은 보통 ‘나’를 우선시 하면 이기적인 사람이라 볼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있다. 그렇기에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도리에 맞는 사람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남들에게 비취지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타인의 기대에 부족한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스스로 주눅들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말이다. 이 책에서 권하는 미움 받을 용기는 막무가내의 미움을 받는 것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미움 받을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무리 중에 누군가는 있을 테니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물론 누군가를 포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 전에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미움 받을 아주 작은 용기를 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행복해지려면 미움 받을 용기도 있어야 하네”라는 아들러(Alfred Adler)의 외침이 아직도 떠나지 않는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스스로 얻는 것이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현재의 나로 살아가는 시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금 깊이 생각해볼 바이

다.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진지하게 춤을 추듯이 몰두하면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안, 그 속에서 나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일깨워 준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오늘은 그 동안 타인을 의식하며 살아온 나를 위해 스스로 감사할 거리를 찾아봐야겠다.



영화 <미비포 유>를 보고



김경혜 _ 이대목동병원

최근에 개봉한 영화 <미 비포 유>를 보았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부와 명예, 건강한 신체를 가진 촉망 받는 젊은 사업가 월이 교통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고 사지마비가 된 채 살아가는 마지막 6개월의 시간을 다룬다. 여자주인공 루이자는 이 까칠한 사지마비환자의 간병인으로 그를 만나게 되고, 이들은 사랑에 빠진다. 안락사를 결심한 남자 주인공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여자 주인공과 불의의 사고로 송두리째 바뀌게 된 자신의 삶을 통해 한번 뿐인 삶을 소중하게 살 것에 대한 남자주인공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척추 손상 환자를 수없이 봤기 때문일까, 나에게 남자 주인공이 던지는 메시지가 더 묵직하게 다가왔고, 사고 이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생하게 와 닿았다.

신경계 중환자실에서 일하며 다양한 환자들을 만난다. 중환자실에 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음이 아프지만, 특히나 안타까운 경우는 사고로 인해 의식은 온전하지만 몸의 운동능력과 감각을 잃어버린 경우이다. 중환자실이라는 특성 상 사고 직후 급성기의 환자들을 주로 만나게 되는데, 사고 직후라 이 모든 변화를 받아들일 정신도 없고 일시적일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 급격하게 까칠해지고 짜증을 부리기도 하고 척추손상환자는 기분의 변화가 심하다. 다른 환자보다 곱절로 예민하다. 척추손상환자의 공통적인 특성이다. 우리는 'spine환자답다.' 라는 말로 이를 표현하며 혀를 내두르기도 한다. 하지만, 의식은 있으나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공포는 내가 경험 해 보지 못한 공포이고, 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나는 차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차원의 일이기에, 그 것을 받아주고 묵묵히 지지해주려고 노력한다.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은 사고 이후의 삶은 그가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처참하여 스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촉망 받던 젊은 사업가는 하던 일을 그만 두어야 했고, 만능 스포츠맨이었던 그는 좋아하는 운동들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했고, 못 여성들의 시선을 받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과 호의가 동정에서부터 유발 된 것만 같아 너무 싫고 불편하다. 밥을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 외식 하는 것은 딱 질색이고, 가장 좋아했던 파리로의 여행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여행을 가면 휠체어 배터리

를 걱정해야 하고, 택시는 승차거부 당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사랑이야기에 외상환자의 삶의 질의 저하와 자신의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주제를 결부시켜 조금 더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나는 여자주인공의 편에서 남자주인공이 꼭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다. 그가 지금껏 살아온 삶과는 전혀 다르지만, 그 안에서 나날의 일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가 꼭 마음을 돌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남자주인공을 2년간 가까이에서 치료하던 재활치료사는 그가 꼭 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지만, 그 누구도 그의 고통을 겪어보지 못했으므로 그의 결정에 대하여 개입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 주인공을 두고, 결국에는 안락사라는 길을 택한다. 이는 사랑하기 때문에 여자 주인공을 놓아주는 행위이며, 내가 사랑했던 나의 삶을 다시는 누릴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표현하며 그는 결국 죽음을 선택한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의 개개인의 삶도 이렇게 영화 같이 안타깝고 그들이 만난 병이란 것은 환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삶에 닥친 커다란 비극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까? 그래도 살아서 참 다행이라는 말을 내가 그들에게 가볍게 건네어도 되는것일까. 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한 말일까. 좋은 영화를 통해 마비환자들과 그 가족의 삶과 고통에 대하여 생각 해 볼 수 있었다. 특히, 마비환자들의 감정과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하여 고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모두의 삶은 소중하다. 그 소중한 삶에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 지점에 나는 간호사로서 그들의 곁에 서 있다. 갑자기 내 말을 듣지 않는 손과 발에서부터 느껴지는 공포, 손상된 자아상으로부터 오는 괴로움과 고통, 그들이 느끼는 감정들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이 역할을 잘 해내야겠다는 마음이 든다.



은혜야, 너는 별처럼 빛날 꺼야

진종임 _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4월 19일 06:30 뇌사 추정자(남/XX세/사고사)모시러 ○○○ 병원으로 출발” -장기이식센터-

그해 4월의 봄은 다른 봄과 달리 나에게 2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무엇인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진정 무엇인가가 되어 그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의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리면서 까지 보여준 그 희생적인 사랑의 부활이라는 탄생의 의미.

눈 부신 봄 햇살이 지평선 위를 비추이기 전보다 더 일찍 일어난 19일 토요일 새벽.

지평선 너머 수면 위로 떠오르는 그 봄 기운의 눈부심은 꿈쩍이 좋아하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두근거림과 같은 느낌을 준다.

그 설렘을 기다리는 소녀처럼 4월의 봄이 주는 의미를 조금이라도 빨리 느끼기 위해 그 날은 유독 일찍 눈이 떠진듯하다. 그리고 그 날 19일은 부활절을 하루 앞 둔 날이었다. 그리고 그 날은 유독 뭔가 모르겠 내 마음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감과 설렘 그리고 그 어떤 훈훈한 기운들로 가득 메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의문을 가졌다. 이 오묘한 느낌과 기분은 도대체 무엇일까?

특별히 정해진 약속이 없었던 날이었기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다짐하고 다이어리의 노트를 꺼내 들었다. 그 순간 나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알림의 소리가 났다. '누구의 연락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혹시 그것을 알리는 연락인가?' 라는 두 가지의 생각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런데 그 이른 아침에 내 카톡을 올린 그 연락은 바로 '그 것' 이었다.

"오늘도 그 자리에 계시네요, 항상 그 곳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네요"

수술실 간호사로써 근무한지 3년이 지난 후 일반적인 외과수술의 지원 및 신장이식, 간이식 수술을 함께할 수 있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이 쌓이면서 수술실 간호사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기이식팀' 에 소속이 되었다. 장기이식팀에 처음으로 소속되었던 2013년 11월, 그리고 그 달 11월 3일은 지금까지의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다. 1987년 11월 3일 세상이 주는 빛을 처음으로 본 나는 그 이후 2013년 11월 3일에 수술실 간호사로써 장기이식팀에 소속되어 처음으로 그 팀의

일원으로써 역할을 하였다. 그날이 비록 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자의 건강 상태의 갑작스런 악화로 시간을 다투어 하루라도 빨리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정되었던 것보다 빨리 응급으로 스케줄을 잡고 간이식 수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내 생일 전날에 생체 간이식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통보 받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괜한 짜증이 나는 일에도 '뭐 이런 일 쯤이야.' 라며 쿨 하게 넘어가는 나였지만 그 때 만큼은 나도 모르게 '주여' 를 외치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속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잃지 않았다. '결국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좋은 일이다 라는 굳은 믿음의 빛'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는 무슨 뜻이 있겠지"

2013년 11월 3일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3개월의 주기로 한 달 씩 장기이식팀에 소속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모든 동료들이 알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종임이가 장기이식팀에 속해 있는 달은 뇌사자가 많이 발생한다"

이 말에 나 스스로도 손 사례를 강하게 치면서 부인하고 싶지만, '정말 나 때문인가요?' 라고 내 자신이 스스로 되물어 그들에게 말할 정도로 나는 정말 누구보다 많은 뇌사자의 수술을 맡았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내 마음 속에는 '그 어떤 것에 대한 믿

음'이 더욱 굳어져 갔다.

“그래, 분명 무슨 뜻이 있을 거야”

Nursing Presence(간호사와 함께함)는 간호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환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 내적인 힘을 강화시키는(empowering) 간호중재, 즉, 간호사와 함께 환자와 함께 머물러 있는 것.

이브닝 근무로 가는 오후 출근길 병원 1층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로부터 올라오는 엘리베이터는 ‘1층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문이 열렸다. 동시에 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고, 그 곳에는 한 번 수술방에서 만난 적이 있는 한 분이 엄마처럼 보이는 한 어른에게 두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면서 함박 웃음을 지으면서 얘기하고 있었다. 수술방에 있으면서 수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지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직접 수술에 참여하지만 그 환자들의 얼굴을 한 사람이라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바퀴 달린 긴 침대에서 수술실 침대로 옮겨갈 때 환자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인 수술실에서는 그 환자의 눈빛과 표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불안감의 감정만 잠시 인지할 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생김새까지 기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술방에서 딱 1번 보았고, 직접 그 수술에 참여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저 그 수술을 도와주기 위한 역할로써 그 방에 들렀던 그 순간에 만난 그 사람을 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즉시 알아보았다. 그리고 나는 1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찰나의 순간에 그

환자의 몸짓과 얼굴 전체에 퍼져있는 환한 웃음에 매료되었다.

“아아, 조금 숨 쉬기 편해졌어요”

신경외과 방에서 갑자기 외과 수술이 국소마취로 진행 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수술을 도와주기 위해 잠시 들렀던 한 수술방, 들어가자마자 나는 환자가 가진 풍선같이 터질듯한 큰 배에 놀랐다. ‘아니 배가 어떻게 저렇게 팽팽하게 저렇게 높이 부를 수가 있지?’ 남산 보다 더 높이 솟은 배를 보면서 단번에 아기가 있는 임신한 여성의 배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배를 제왕 절개술의 수술을 하면서 수없이 봐왔었지만 그 보다 2배나 더 높은 그 환자의 배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인 백두산에 비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수술방에서는 교수님 2명, 임상강사 1명 총 3명이 모여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shunt를 통해 복강 내에 모인 복수를 빼내고 다시 그 복수를 혈관에 도로 넣어주는 시술을 하고 있었다. 1000ml의 빈 Normal saline병에 계속해서 복수는 차여갔고, 급기야는 준비된 Normal saline의 빈 병이 모자라 다른 곳에서 더 구해와야 했다. 많은 양의 복수가 갑작스럽게 빠져 나온 탓에 환자는 “출지 않냐?”라는 질문에 “안 출다”라고 의식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거의 뼈 밖에 남지 않은 그의 사지의 무의식적인 오들 오들한 떨림은 지금 매우 힘든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무언가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그 환자가 처한 상황이 비참하고 혹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초지일관했던 그 환자는 다른

환자들과 같이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잊혀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해야지만 잊을 수 있는 환자, 아니 어떻게 내 삶 속에 그렇게 불쑥불쑥 생각날 수 있을까? 라고 나 자신 스스로가 놀랍게 생각할 정도로 첫 만남 이후 참 많이 내 삶 속에 생각이 난 환자. 그리고 그 만남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환자를 2014년 4월 19일 저녁 11시에 다시 수술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관계로써 다시 만났다. 나와 그 환자의 재회는 ‘그 것’ 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나는 그 환자와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면서 ‘그 자리’ 를 지켰다. ‘그 것’ 과 ‘그 자리’ 는 나의 내면 깊은 어느 곳에서 늘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받아온 ‘나를 향한 그 무언가의 뜻’ 을 비로소 깨닫게 해준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환자의 만남이 끝나는 2014년 4월 20일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나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다시금 나타나는 ‘부활절’ 이었다.

‘밤 하늘을 수놓는 수억 개의 별처럼 은혜를 빛나게 해주세요’

‘은혜’ (가명), 그 환자가 있는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나 환하게 미소 짓는 모습 그 자체만으로 빛을 뿜었던 것처럼 거기에 어울리는 ‘은혜’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 라는 이름도 참 마음에 들었다. ‘은혜’ 환자와의 만남은 만 3년차 간호사의 마지막을 향해가면서 주변의 사소한 것의 감사함을 잃어가는 무미건조하고 황량했던 그 사막 같은 내 마음에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와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은혜’ 라는 이름을 두고서 항상 기도한다. ‘은혜가 사막 같은 나의 마음에 한 줄기 오아시스 같은 희망의 빛을 비추어 준 것처럼 은혜가 있는 어느 곳

에서든지 주변을 환히 비출 수 있는 은혜로운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다.

은혜는 태어나면서 장 폐색으로 인한 수술을 받았고 2살때 의사 경력 30년 이상인 교수조차도 ‘말로만 듣던 환자를 처음 봤다’ 고 말할 정도로 드문 희귀 난치성 중증질환을 진단받았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따라다닌 이 질병으로 인해 배 둘레가 120cm 이 될 정도로 복수가 차고, 빼내어도 계속 차오르는 상황이 반복된 삶을 살았다. 이런 오투기와 같은 모습을 계속 마주하면서 자란 은혜는 본인의 모습에 자신을 잃어서 대인기피증까지 생겼고, 림프관으로 빠져나가는 심한 단백질의 유실로 인해 다리에 심한 부종이 수반되고 전신에 근육이 부실한 상태로 신장은 150cm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식의 어려움과 비용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소장이식’ 받기를 너무나도 원해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돈 벌면서 일하고 싶어요”

장기이식, 장기이식은 ‘더 이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를 건강한 다른 사람의 장기로 대체,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키는 의료행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치료법’

더 이상 생존가능성이 없는 장기를 가진 말기질환자들에게 ‘장기이식’ 은 유일한 치료법이자 그들이 부여잡고 있는 마지막 삶의 희망이다. 장기이식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그 누군가의 선물로써 그 누군가에게 더 이상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손에 움켜질 수 있는

‘보이는 희망’인 것이다.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 무언인가에 대한 의미를 끊임없이 찾게 했던 ‘그 것’은 바로 ‘뇌사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이식’이었다. 그리고 ‘그 것’으로 인해 나는 ‘그 자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고, ‘그 무언인가에 대한 의미’도 함께 얻었다.

“세상살이 참 힘들지? 네 힘으로 안되면 하늘의 힘을 빌려보렴”

간절함,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상태’, 누구나 인생의 한 순간에서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우리도 모르게 하늘을 향해 애원하는 어느 한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의 애원은 화살 있는 기도가 되어 우리 삶에 다시 돌아와 영향력을 발휘한다.

장기이식을 하면서 이식을 받는 모든 환자뿐 만 아니라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침대에 오르는 모든 환자들은 그 누군가를 움직이게 할 정도의 간절함 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은혜를 만나면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간호사로써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간호는 수술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간절한 내적인 힘을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그 간절함에 힘을 더하는 것이었다.

4월의 봄은 나에게 다른 봄과 다른 2가지의 의미를 가진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무언인가가 되고 싶어하는 것들이 진정 무언인가가 되어 그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의미,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한 한 아버지가 그 자식을 버리면서 까지 보여준 그 희

생적인 사랑의 부활이라는 탄생의 의미.

은혜의 그 간절함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그 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감동은 그 분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은혜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그 간절한 소망에 그 분의 도우심이 합쳐져서 ‘소장이식 성공’이라는 ‘부활의 기적’을 일구어 냈다. 소장이식은 이식의 특성상 이식 받기도 힘들고, 이식을 하더라도 장기의 특성상 감염위험성이 높아 수혜자로부터의 거부반응 및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 등의 우려가 훨씬 크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간절함과 그 분의 도우심 앞에서는 한낱 기우에 불과했다.

‘그 분이 손을 뻗어 당신을 도와주고 싶을 만큼 간절해지십시오’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의 “왜 일하는 가?”라는 책에 보면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은 해답을 내놓는다. ‘그 분이 손을 뻗어 당신을 도와주고 싶을 만큼 열심히 일하십시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그 분이 손을 뻗어 나와 너를 도와주고 싶을 만큼의 간절함으로 그 사람과 함께하십시오.’ 라고 말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간호사는 왜 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든 삶의 치유자는 오로지 그 분 뿐이다. 우리 간호사가 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일은 그 환자가 가지는 그 간절함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몸동작으로 그들의 간절함이 꺾이지 않도록 끝까지 그 환자와 함께 그 곳에 머물러 주는 것(Nursing presence)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치유자의 도우심으로만 일궈낼 수 있는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력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근원이 된다.

누구보다 많은 뇌사자들 그리고 이식을 받는 환자들과의 만남 때마다 내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 “그래, 이것이 나에게 주는 무슨 뜻이 있겠지” 의 의미도 비로소 알게 되었다. 즉, 이것은 내가 더 나은 간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가르침’ 이었고, 간호사로써 가져야 하는 ‘치유에 대한 의미’, 그리고 간호사로써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주라는 ‘내 인생의 소명에 대한 음성’ 이었던 것이다.

2014년 4월의 봄은 다른 봄과 다른 2가지 의미를 주었다. 간호사인 내가 환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의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분의 치유의 손길에 참여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진이 아니라 그들의 동반자로써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는 의미로써 말이다.



천사들이 날개를 활짝 펼수 있기를 바라며...

정은진 _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매 해 10월이면 1004DAY의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알찬 이벤트가 어떤 게 있을까 라는 고민 아닌 고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올 해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다. 올 해 초 이미 간호부에서 발 씻기 행사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서장이 환자가 아닌 간호사들의 발 씻어주기... 많이 생소했다. 환자가 아닌 간호사를 위한 1004DAY? 그런 생각은 해 본적이 없었기에, 거기에 간호사들의 발을 씻어 준다는 건 더더욱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에 낯설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내가 발 씻김을 당해(?)보니 알 수 있었다. 이번 행사 전 간호부 부장님, 팀장님들께서 수간호사들의 발을 먼저 씻겨주셨다. 이미 알고 모였음에도 참여색했다. 누군가에게 맨 발을 보인다는 게.. 그것도 어른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미리 발을 닦고 온 수간호사도 있을까?..

‘서로 불편한 이런 자리를 왜 마련 하셨을까’ 라는 생각도 잠시 했다. 점점 차레가 다가올수록 점 점 불편해지는 다리.. 그런데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팀장님의 손길을 받으면서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다.

따뜻한 온기와 약간의 간지러운 느낌이 좋았다. 내 두 발을 꼼꼼히 닦아주시며 웃어 주시는 팀장님! 그 웃음 속에서 많은 걸 느꼈다. 편안함. 이해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 잘하고 있다는. 수고한다는 격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이제는 내가 부서 간호사들에게 그 느낌을 전할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조금 악동 끼를 발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고 행사를 한다는 것과 수건하나씩 준비해 오라는 것만 전달했다. 간호사들을 의자에 앉혀놓고 오늘 행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했다.

부서원들이 힘들고 지쳐있을 때 누군가 따뜻한 마음으로 정성스레 발을 닦아 줌으로서 전해지는 위로와 고마운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의 돌봄 대상자인 환우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대한다는 간호부의 뜻을...

“정말이냐?” , “앞으로 더 잘하겠으니 발 안 닦아주셔도 된다.” 며 호들갑을 떨고 어수선을 피웠다. 심지어 신규간호사는 이런 건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청소할 것 같아 걸레 수건을 가져 왔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다. 그렇게 발 씻기는 시작되었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닦아주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항상 고생이 많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을 하는데 마음 한 켠이 벅찼다. 처음에 간지럽다며 발가락을 잔뜩 오므리고 자꾸 발을 빼내려던 간호사들도 어느 순간 조잘조잘 떠들며 웃고 있었다.

우리 간호사들도 내가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 분명 느꼈으리라...

마지막 풋크림을 바르고 서로 마주보며 활짝 웃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환자 분들께 더 잘할게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이 오늘 행사의 핵심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다음엔 목욕 가서 등 밀어줄게” 라는 말로 마무리하며 간호사들의 환호 아닌 환호로 자리를 정리했다. 밤낮 쉴 틈 없이 뛰어다니는 우리의 천사들! 그 천사들을 위한 오늘! 매일 오늘처럼 활짝 웃으며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좋은 기운이 환자를 간호하는데 건강한 에너지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날개를 접고 발로 뛰고 있는 우리의 천사들!

그 날개를 활짝 펴고 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한다!



초심으로

나유미 _ 노원을지대학교병원

나는 얼마 전까지 간호사이자, 보호자였다.

한 달 전,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입원을 하게 되면서였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의료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가족 곁에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지내고 계신다. 아버지는 물론 가족 모두가 그렇다. 지금에 와서 입원을 하면서 느꼈던 보호자의 입장을 되새겨 보곤 한다.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과 격려였다. 동료이기 전에 보호자로서 나를 대하는 간호사들이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라운딩을 와서 인사로 시작해서 밥은 맛있게 먹었는지, 오늘 기분은 어떤지 등의 관심과 진심어린 한마디가 환자와 보호자에게 우울하기만 할 수 있는 병원생활에 작게나마 힘이 되었다.

간호사로서 일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이 아니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이 1분도 걸리지 않는 다는 것 또한 핑계이다. 핑계 아닌 핑계로 바쁘게 돌아가는 간호업무 상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지난 시간들이 부끄럽기까지 느껴졌다.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면허증을 가지고 모든 아픈 이들에게 백의의 천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때를 생각해 보았다. 간호사로 첫 발을 내딛었던 신규간호사 때만큼 열정적인 때도 없었던 것 같다. 보호자가 되어 봄으로써 다시 한 번 나의 간호사 생활을 되짚어 보는 시간이었다. 이를 계기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으로 간호하는 천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시 다짐을 해본다. 어떻게 하면 일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의 나를 되돌아 본다.

이 환자는 어디가 어떻게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이 환자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이 환자의 보호자는 이렇게 힘들어 하는 환자 옆에서 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까? 등등... 작은 것부터 관심을 갖고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한다. 완쾌되어 퇴원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리 어려운 일 만은 아닌 것 같다. 진심어린 마음에 관심 한 스푼을 넣으면 충분히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것 같다. 나부터 선도하여 마음으로 하는 간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간호를 해야겠다.

내가 온몸으로 느꼈던 그 때 그 감정, 그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고 말이다.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라

장은정 _ 삼성서울병원



“최선을 다해 남을 도와라” 이것은 내가 병원에 입사 후 만 5년이 지나서야 갖게 된 좌우명이다.

어떤 노부부가 암병원을 찾아 왔다. 어렵게 어렵게 잘 보이지 않는 시력으로 안내도의 길을 찾아 진료를 보기 위해 외래까지 온 것이다. 그리고 직원은 빠른 말투로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왜소한 노인 두 분이 그 말의 속도를 맞추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병원에 있는 모습을 보며, 도움이 되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참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막연히 하게 되었다.

병원 인력의 대부분은 20~40대의 젊은 연령층이 주를 이루며, 이들을 응대하거나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연령대는 20~30대로 더 낮아 진다. 그들은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 연령이며 인생

에 대해 배워가는 단계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하는데 있어 미숙할 수도 있으며 더러는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본인도 모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는 상급종합병원이며, 아픈 사람들이 몸과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 내원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꾸준한 자기 성찰을 통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의료전문인으로서 성숙하며 다듬어지고 훈련된 치료적 언행으로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 상처를 주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스트레스를 가하는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나는 미숙하여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보다 성숙할 것이며 이미 이러한 고찰을 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모두가 알고 있듯 암의 유병률과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미 4명 중 1명은 암 발생의 확률을 가진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노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노인인구의 비중이 갈 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결혼 인구는 감소하여 앞으로 독거노인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는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암 병원 혈액종양내과 병동에서도 몸소 체감할 수 있는데, 입원 환자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에서 80세까지 중 장년층과 노년층이며, 노인환자 중 자녀의 간병없이 노부부가 서로를 돌보며 입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며 병원에 입원을 하는 것은 어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다. 노인의 특성상 그들은 이해가 느리고 반응이 느리며 잘 들리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며, 낙상 등의 위험률도 높은 편이다. 3차 상급병원은 타이트하게 운영되

며 검사 및 시술, 치료, 입 퇴원 등이 빠르게 이루어 진다. 이렇게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병원의 흐름에 위와 같은 특성을 지닌 노인은 가장 취약층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빠른 속도의 언어를 사용하며, 빠른 판단과 빠른 행동을 무언 중에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입장을 바꾸어서 30년 후, 40년 후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내 담당 간호사가 또는 담당 의료진이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인지 상상을 해보면 이러한 생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이 조금 느리게 진행되더라도 한 템포 늦추어서 기다려주고 천천히 말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기다릴 줄 아는 태도의 변화가 참으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최선의 태도로 최선을 다해 도와보자.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있다.

침착하게 해

박세인 _ 아주대학교병원



'침착하게 해.'

생각해보면, 선생님들은 언제나
'빨리해'가 아니라
'침착해'라는 말을 하셨다.
늦었어
서둘러야 해
하고 동동거리던 건
언제나
나였던 것 같아.

언제쯤

여유롭고 능숙하게

멋진 모습

보일 수 있을지...

왼쪽 주머니엔

수첩과 계산기,

그리고 마스크.



가슴엔 명찰과 뱃지.

왼쪽 손목엔 시계.

(Skin test 같이 시간에 신경써야 할 땐 잠깐 오른손)

오른쪽 주머니엔

볼펜, 가위, 형광펜,

수정액, TD, 네임펜,

체온계...

(많다! 무겁다!

하지만 신규에겐

다 필요하다! ㅠㅠ)



머리엔 머리망.

귀걸이는 부착형.

주머니엔 토니켓, 플라스타,

3way와 port cap, IV lock,

그리고 간호복과 간호화.

손에는

그날 나의 환자들을

빼곡이 적어놓은

판때기와 카텍스.



처음

약 카트를 잡았을 때의

그목직함, 기억하니...

‘자, 이제 약을 돌리고 와 봐.’

환자들의 진단명이나 약은 커녕

이름. 얼굴. 자리도

헛갈리는 시절...



약 카트를 잡고
혼자 병실에 다녀오라는
프리셉터 선생님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간장됐던지...



기억하니,
그 무게를

'assign'이라고 불렀을 때의
그 부담감과 그 책임감을

그리고 하루가 끝난 뒤
다음번에게 카트를 넘길 때의
그 조마조마함과
뿌듯함을...



카트 위엔 트레이와 알콜솜
수액걸이엔 수액들
내 판때기와 약간의 약들
잊지 말아야 하는 lab이나 patch 등등



오른쪽 바구니엔
진통제와 lock 할 시린지들

아래엔 쓰레기봉투
왼쪽 바구니엔 BV컵과 비닐장갑
BP계
카트 서랍 안엔 PO약과 인젝들

첫 번째 서랍엔
BST 기계와 시린지, IVset, vinca 등...

두 번째 서랍엔 시린지,
NS 혹은 증류수
그리고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



'축하해. 너오늘부터 2년차야.'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길고 길던 1년이 끝나고
그렇게 나의
어느 신규처럼 힘들고

무겁고 부담스럽고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1년차, 신규생활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신규'가 아니다.

나는.. 2년차 간호사다.

2010년 1월 1일 2년차가 되던 날
일기장에 적었던 글 중,
발췌.



1년차때는 모든게 다 힘들고 버거웠고,
2년차때는 병동을 옮기고 환자를 타면서 힘들었고,
3년차때는 원하는 병동으로 옮겨왔지만 다시 적응하느라 힘들었고,
4년차때는 아는 것도 없이 나태해지는 것 같아 힘들었고,
5년차때는 지금은 더 공부하며 일을 하려니 또 힘드네요.

뭐든, 언제든 쉬운 적이 있었나요.
아직도 힘든 날은 슬럼프에 빠지고
하루하루 근근이 번표에 맞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같지만

지금까지 꿈을 잃지 않고 달려온 나에게 스스로 칭찬!
지금까지 힘들어도 버텨온 나에게 스스로 자축!

그래요.
우리 모두 다 힘들잖아요.

조금만 더 참아요.

조금만 더 버티요.

있는 힘껏 이 악물고
괜찮아,
괜찮아질거야..

언젠가 올 언젠가.

글과 그림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세번째

'부드럽고 단단하게'

간호사의 가족이야기와 보호자 경험에 관한 이야기

긴하루

송현주 _ 전라북도군산의료원

요즘 들어 부쩍 아빠는 어깨가 아프다고 하신다. 봄부터 조금씩 아프기 시작한 어깨가 이제는 수저 하나 들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하니 약간 호전되는 가 싶더니 도로 제자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정밀검사를 했다. 어깨 인대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만 된단다.

순간 멍한 기분이 들었다. 무심하게 아빠의 아프다는 하소연을 한 귀로 흘렸던 내 자신이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다. 그리고 보니 자다가 돌아누울 때도 힘들다 하셨고 혼자 드시는 세끼 식사가 얼마나 맛있을까, 이제는 그마저도 수저 들기 힘들어 먹는 게 고역이라는 말씀도 하셨다. 그랬다. 아빠는 나를 바쁜 일상에 쫓기는 딸에게 관한 걱정거리 하나 더하는가 싶어 많이 참고 하신 말씀이었는데, 무심한 딸은 아빠가 보낸

신호를 내 편리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리고 일부는 그냥 흘려들었다. 많이 아프셨을 텐데 그리고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을 생각을 하니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밤새 기도로 꼬박 날을 샌 적도 있고 뛰어 놀다 넘어져 생긴 무릎의 생채기에 속상해하기도 했다. 나도 그런 엄마인데, 하물며 아빠도 나를 똑같은 맘으로 그렇게 키우셨을진대 내 품의 아이가 아픈 것에는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나를 낳아 주신 부모의 아픔에는 나 몰라라 했던 내 자신이 한없이 미워진다.

아빠는 수술을 위해 입원을 하셨다. 관절 내시경을 통한 간단한 수술이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빌려 아빠는 도리어 나를 안심시키신다. 그리고 애써 태연한 척 하신다. 수술 시간이 다가오자 자주 화장실을 드나드신다. 아빠의 뒷모습에서 불안과 걱정이 읽혀진다. 왜 안 그러실까. 다만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 그러하신다는 걸 알기에 이 순간 위로가 되지 못하는 나도, 아빠도 엄마 없는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사실 내 일터는 수술실이다. 매일 이루어지는 수술실의 일들이 내겐 일상이 되어 버렸다. 수술실 안에 감도는 무거운 긴장감,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해선 안 되는 완벽함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는 인간의 감성을 억제시키도록 한다. 어느새 나도 감성보다는 이성을, 따스함보다는 냉철함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된 듯하다. 두려움에 신경이 금방 끊어질 듯 한껏 잡아당겨진 팽팽한 고무줄처럼 된 환자를 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처

럼 대하지는 않았을까. 대기실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 가족들의 마음도 희미하다.

아빠가 들어가시고 굳게 닫힌 수술실 문을 가만히 바라본다.

‘아빠, 무사히 잘 마치고 오세요. 틀림없이 다 잘 될 거예요.’

이 순간 맘속으로 비는 이 말은 아빠에게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거는 주문이다.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이렇게 긴 줄 몰랐다. 내내 맘을 졸였다. 일어나서 서성거리다 앉기를 여러 차례, 혹시나 자리를 비운 사이 보호자를 찾을지 몰라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나와 같이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주위의 다른 보호자들이 새삼 눈에 들어온다. 기도하는 사람, 불안한 마음을 애써 책에 붙들어 두려는 사람, 종이컵을 바스라질 듯 꼭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도 나와 다르지 않는 맘이라는 생각이 들자 동변상련이랄까 동지애가 느껴진다. 전에는 어째서 이런 마음들이 전해지지 않았을까. 내 쪽에서 먼저 눈과 귀와 마음을 닫은 건 아니었다. 이 순간부터 달라져야겠다. 불안한 환자를 위로하는 말엔 건조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악처럼 두려움에 떠는 환자의 차가운 손을 마주 잡는 나의 손에서 따뜻한 온기와 격려의 손길이 전해지길 빈다.

드디어 수술을 마친 아빠는 회복실로 옮겨졌다. 건강하게만 보이던 아빠의 초췌한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돈다. 눈물에 가려진 딸은 아빠 얼굴이 뿌옇게 보이고 아직 마취에서 덜 깬 아빠 눈엔 딸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얼굴을 쓰다듬고 서로를 위로한다. 수술 후 경과도

좋아서 퇴원을 하셨다. 하지만 두고두고 아빠의 아픈 어깨는 나에게 효를 일깨우고 무심했던 나를 반성하게 하는 일침이 될 것 같다.



소리없는 대화

윤혜원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핸드폰 알람소리에 눈을 뜨며 하루를 시작한다. 새벽 5시, 오후 12시, 저녁 7시가 하루의 시작인 나는 삼교대 간호사다. -설 새 없이 뛰어다니고 사람에 치이고 기계에 치이고. 침대에 부딪히는 내 정강이의 멍은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 우주속의 행성들. “땡-땡-땡 땡-땡-땡” 귀를 울리는 알람 소리를 BGM 삼아 움직이는 응급실 간호사다.

내 나이 열여덟. 우리 아빠는 예순일곱 비호지킨 림프종 환자였다. 2010년 산책 중 갑작스러운 숨찬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아빠에게 병원은 고작 6개월이라는 시한부 삶을 선고했다. 어렸던 나에게 살아오면서 가장 큰 비보였다.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는 이유로 골수이식의 선택권도 없었다. “지들이 신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람 남은 인생을 선고해” 라고 생각했더랬다. 의학 지식에 무지한 내가 싫었고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

하는 그들이 싫어 나는 의료인이 되기로 마음먹었는지도 모르겠다. - ‘의료인이 되어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일 대하듯 말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대학병원을 우리 집 안방처럼 드나든 지가 어언 1년. 모두의 바람처럼 아빠는 점점 쾌차하셨다.

내 나이 열아홉. 완치 1년 만에 재발이라는 몹쓸 친구가 찾아왔다. 쾌차라는 친구가 매우 심기에 거슬렸던 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아빠를 다시 힘들게 했다. 이번엔 6개월이 아닌 한 달. 만 2년이라는 시간동안 우리 가족은 점점 지쳐갔고 아빠도 힘겨워했다. 이제는 ‘1년 전처럼 완치하겠지.’ 라는 믿음 한 구석에 자신감 잃어가는 내가 서있었다.

내 나이 스물. 한창 대학생활에 물들고 칠없이 놀고 싶어 하던 때. 아빠는 점점 지난날을 회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와 엄마는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은 병원간이침대, 문 닫은 병원 로비의 두세 칸짜리 대기 의자에 몸을 누이며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러던 중 “사랑하는 우리 똥강아지”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아빠는 나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성되어 있던 심폐소생술 금지 요청서. 그렇게 나는 아빠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어쩌면 나도 모르게 부정을 하면서도 2년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왔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나는 대학병원 응급실 간호사가 되었다. 하루에도 내 손을 거쳐 가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는 상당하다. 생각보다 암 투병환자들이 꽤나 많다. 처음엔 그들을 대하기 어려웠다. 지난날의 우리 아빠 모습이 떠

올랐고 아빠 옆에 있던 내가 떠올랐기에. 또한 응급실 한복판에서 가족을 떠나보내고 마음 추스를 시간도 없이 장례식장으로 이동해야 하는 유가족을 보내며 소리 없는 위로를 건네고는 한다. - 내 마음을 알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이 흘러 그들을 이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의 삶을 먼저 경험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속으로 울컥하면서도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편안한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고 이해해 주고 싶었다. “환자분 힘드시죠. 보호자분은 응급실에 침대도 없어서 어떻게 해요. 저도 잘 알아요..” 이런 한마디 한마디에 가족들은 힘을 낸다. 힘들어도 웃는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전하는 “소리 없는 대화” 를 나는 오늘도 그들과 나눈다.

소소한 행복 레시피

한아름 _ 인하대학교병원



- 이야기 1 -

[부모일일교사 체험 - 엄마간호사 엄지 척!]

어느새 임상간호사로 10년차,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

5살 아들 어린이집에서 부모참여 활동인 부모 일일교사 체험의 기회가 주어졌다. 파란 하늘반 어린이들에게 손씻기와 올바른 양치방법을 함께 했다.

처음 어린이 집에서 제의가 들어왔을 때 내가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준비시작하게 된 부모일일교사.

나를 향해 집중하는 아이들을 보며 긴장백배, 손, 발에 땀이 짝~~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5분가량이 흘렀을까. 어느새 나는 고사리 손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눈을 마주하고, 손을 씻고, 치카치

카 양치질을 하고 있었다.

“엄마가 선생님이네. 우와~ 엄마최고!!” 하는 인수.고맙다. 아들이.

대.략.난.감.

엄마가 손에 대일밴드를 붙이고 있으면 “엄마아파? 내가 호~해줄게.” 하고 걱정해주는 아들.

동생 은비 머리를 쓰다듬으며 “예쁘다. 예쁘다.” 할 줄 아는 아들.

아빠 회사 가실 때 항상 문 앞에서 인사하고 ‘파이팅’ 하는 아들.

두 아이의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기 위해서라도 참 귀찮은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하루다.

- 이야기 III -

[블루스토토리 - 안녕하세요. 파란자켓입니다.]

2013년부터 원내에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파란자켓’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병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한발 앞서서 다가가고, 먼저 알아서 해결해주며, 진심어린 도움의 손길과 배려의 마음을 전하여 고객만족 및 직원 행복을 이루고자 함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활동이다.

처음 시작은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시작했었다. 한 달에 한번은 활동을 하도록 나 자신과 약속을 하며 시작한 봉사활동이 어느새 내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자리 잡았다.

그리고, 봉사활동 도중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채혈실

앞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난감해하는 어머니의 표정도 읽을 수 있었다.

아마, 채혈을 해야 하는데 아이가 두려움에 채혈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던 모양이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난감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나도 모르게 아이에게 다가가게 되었던 것 같다.

“안녕? 이름이 뭐야?”

“아름이에요.”

“어머, 언니랑 이름이 똑같네, 그런데, 아름이 여기서 왜 울고 있어.?”

그렇게 10여분을 이야기 했을까. 나와 이름이 같은 아름이와 ‘잘 할 수 있어!’ 파이팅하고, 채혈실로 함께 들어갔지만, 이내 도망 나오는 아이.

난감하다. 채혈을 해야 다른 남은 검사도 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대화를 시도 하고, 채혈실로 함께 들어가 우여곡절 끝에 채혈에 성공한다.

채혈이 끝나고, ‘미미인형’ 을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에 언제 울었냐는 듯 해맑게 웃는 아름이. 고맙다며, 녹차 라떼를 건네주던 아름이 엄마에게서 진한 감동을 느꼈다.

10년생 딸아이가 채혈하는데 울고불고.. 난감했어요.

하지만 도우미셨던 한아름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아이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달래주시고

채혈 시 본인이 직접 아일 안고 채혈 할 수 있게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인하대병원 오면서 직원으로 인해
 감동받긴 처음이었어요.
 맘속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못할
 정말 최고의 친절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채혈실 선생님들 또한 정말 감사했어요.
 오늘 마음이 참 따뜻해지네요.

병원 인터넷으로 접수된 고객의 소리함.
 내 마음까지 참 따뜻해지는 하루였다. 내가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두 아이의 엄마가 아니었으면 느낄 수 없는 행복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홍원기 _ 건국대학교병원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내가 속해있는 정형외과 관절경 수술방에
 서는 그날의 2번째 전방십자인대재건 수술과정이 막 끝났고 상처 봉합이
 시작되고 있었다. 난 스크럽 중이었고 수술참여 전 컴퓨터 앞에 올려두
 고 들어온 내 휴대전화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순희 간호사가 전화
 를 받더니 급한 표정으로 내 귀에 휴대폰을 대주었다. 휴대폰에서 흘러
 나오는 음성은 조금한 목소리의 아내였다.

"남편 곧 탯줄 자르러와야할 것 같아!"

곧 분만실에서 우리 부부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2세가 태어난다는
 소식이었다.

2016년 봄으로 기억된다. 간호과 CC로 만나 10년 연애 후, 2011년

결혼에 골인한 우리 부부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자녀 계획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학의 힘을 빌려서라도 아이를 갖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 후 1년 동안 인공수정 2회 시험관 1회를 시도하면서 우리 부부는 많이 초초해졌고 먼저 시행한 인공수정 2회의 실패를 겪으면서 많이 지쳐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의 결심으로 시작된 시험관 시술에서는 투석실 간호사로 교대근무를 하던 아내의 상황에 매일 맞는 호르몬 주사와 더불어 2, 3일에 한번씩 산부인과에 내원 해야 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아내는 10년간 한번도 쉬지 않았던 간호사의 끈도 잠시 내려 놓았다. 남편이 간호사라고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는 호르몬 주사를 놓아주는 일 뿐 거의 아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이 지나고 정말 감사하게도 30프로의 확률밖에는 안된다는 첫번째 시험관 시술이 우리에게 임신이라는 선물이 되어 주었고 아직도 초음파에 콩알만한 아기집을 보고 기뻐하던 우리 부부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 기쁨도 잠시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살얼음판의 연속이었다. 또 한번의 고비가 그렇게 지나, 꽃길일 줄만 알았던 우리 부부에게 선천성 기형아 검사의 날이 다가왔고 힘들게 찾아온 뱃속의 태아는 이 또한 수월히 넘어가 주지를 않았다.

'다운증후군 고위험'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를 듣고 외래에서 돌아온 아내와 나는 서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결국 양수 검사까지 위험을 무릎 쓰고 시행하게

되었고 정말 감사하게도 정상이라는 결과를 듣게 되었다. 그런 어마어마한 아이가 이제 세상에 나올 기미가 보였고 분만실로 입원해 하루가 넘게 진통을 하고 있던 아내에게서 온 전화였다.

다행히 몇 일 전부터 수선생님께는 사정을 말해둔 터라 교대를 와준 선생님과 손을 치고 부라 부라 분만실로 달려갔다. 평소에는 그렇게 가깝게만 느껴졌던 수술실 입구에서 분만실 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아내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심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도착한 분만실에서 20분, 30분 정도 아내의 마지막 진통을 지켜보았고 그동안의 고생을 보답하기라도 하듯 큰 진통 없이 아이는 무사히 세상 밖으로 나와 주었다. 하루에도 몇 번을, 전공의 선생님이 피부 봉합하는 실을 잘라주던 가위를 손에 들고 탯줄을 자르려는데 손은 또 왜 그리도 떨리던지, 그렇게 아이는 신생아실로 소아과 선생님의 품에 안겨 떠났고 아내와 한동안 기쁨의 포옹을 나눴다. 별 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주친 서로의 눈에 1년간의 고통과 기다림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는 편안히 병동으로 이송되었고 신생아실에서 보호자 호출이 왔다. 출산할 때는 아내가 걱정되어 자세히 보지 못한 아이가 이제야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한 걸음에 신생아실로 달려갔다. 그곳에는 소아과 전공의 선생님이 설명을 위해 기다리고 계셨는데 표정에 웬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무슨 하늘의 장난인지 전공의 선생님의 설명인 즉은... 아기에게서 심 잡음이 들려 시행한 심초음파상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져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기에 신생아 준중환자실로 옮겼다는 것이었다. 혹시라도 동맥관이 단기지 않는다면 심장 시술이나 수술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계셨지만 정작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 저 아내가 이 소식을 아직 모르고 있다는게 그나마 다행이랄까,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보러 들어간 신생아 준중환자실에는 수액라인을 잡고 피딩 튜브를 꽂고 있는 작고 작은 내 아들이 있었다. 본인의 상황을 알거나 하는지 내가 내민 손가락을 꼭 잡아주는 아이 앞에서 눈물이 핑 돌았다. 그렇게 잠깐의 면회가 끝나고 병실에 올라와 아무것도 모르고 온통 아기에 대한 궁금증에 신생아실로 가보자는 아내를 붙잡고 사정을 설명하며 우리 부부는 또 한번 눈시울을 적셨다. 그렇게 행복할 줄로만 알았던 출산 후 입원 기간은 하루 두 번 정해진 면회시간만 잠깐 볼 수 있는 아이와 그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양가 부모님들께 걱정 끼쳐 드리지 않기 위해 대학병원은 신생아실 면회가 원래 어려운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로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다음날 면회 시간은 다시 찾아왔고 아내와 함께 간 아이의 인큐베이터 이름표에 적혀있는 ○○○아가 라는 글씨가 우리 부부의 마음에 왜 그리도 걸리던지, 이 아이에게 ○○○아가가 아닌 이름을 지어주어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건강해진 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사실 만삭일 때부터 평소 라일락 향을 유난히 좋아하던 아내는 아이 이름을 우리 뜻대로 할 수만 있다면 홍라일로 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했었지만 사주와 작명을 중시하는 장인, 장모님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터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난 용

기인지 오전 면회가 끝나자마자 난 병원을 나서 출생신고를 위해 동사무소로 향했고 도착해서야 한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열매(라) 기쁨(일), 이런 저런 상황에도 이 아이는 아니 라일이는 우리 부부에게 기쁨의 열매임이 분명했다. 그렇게 출생 신고를 마치고 다시 만나러 간 라일이의 저녁 면회시간은 우리 부부에게 또다른 의미였고 아이는 엄마, 아빠가 처음 불러주는 라일이라는 이름이 맘에 든다는 듯이 웃어주는 것 같았다. 그런 우리 부부의 간절한 마음이 라일이에게도 전달이 되었던 것일까 아이에게서 들리던 심 잡음은 하루하루 갈수록 점점 작아져 가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출산한 아이들보다 딱 하루만 더 입원해 있다가 퇴원을 하면 되어 다행히 엄마와 함께 조리원으로 갈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완치 소식을 듣지 못했을 뿐더러 2달 후의 심초음파 검사에서 정상소견이 나와야 안심할 수가 있었기에 조리원에서의 2주도 집으로 와서의 한 달반의 육아 기간도 우리 부부에게는 마냥 행복일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한가지 위안이었던 것은 지치고 힘들 수도 있는 60일간의 육아 생활이 그저 하루하루 탈 없이 커주고 있는 라일이에게 감사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이란 것이었다. 하지만 잠깐 울기라도 할 때면 우리 부부는 동맥관 개존증 때문에 아이가 혹시 아픈 것은 아닌지 눈시울을 붉히는 일이 많았다. 가족이나 병원 동료들에게 표현도 할 수 없던 나와, 아이와 함께 집에 있던 부인에게도 60일이라는 시간은 너무 더디게 지나갔다. 그렇게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64일째 심초음파 검사의 날은 돌아왔고 우리 부부의 기도와 바람을 안고 받은 검사결과와는... 감사하게

도 정상이었다. 결과를 듣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또한 우리 부부에게 감사의 눈물길이었고 임신을 위한 1년과 출산 후 60일, 이 기간동안 우리 부부는 정말 많은 것을 알고 얻게 되었다. 간호사로 10년을 일한 우리에게 모르고 지나왔던 보호자와 환자의 불안과 걱정, 감사를 느끼게 해 준 첫 번째 기회였다. 그리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감당하는 동료 간호사들과 항상 함께 일하면서도 엄마의, 부모의 무게와 고충을 알지 못했던, 혹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나에게 큰 반성의 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우리 가정에 기쁨의 열매가 되어준 우리아들 라일아, 그 누구보다 고생했을 네가 잘 이겨내 준 것 너무 너무 감사하단다. 엄마,아빠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1년 60일만에 큰 선물이 되어준 너와 이 시간을 잊지 않고, 너무 욕심 부리지 않는 좋은 부모, 직장에서는 동료와 환자를 마음으로 품어 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도록 노력할게. 이제야 아빠를 철들게 해준 홍라일 너무 너무 사랑한다.



할머니의 선물



주현희 _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이것 좀 그만 하든 안된다니? 나는 그냥 그만하고 죽어뿌렸음 좋겠는디..

왜 사람을 데려다가 여기저기 구멍만 뚫어놓고 사람을 다 병신을 만들어놨다니..”

벌써 몇 해째..

몸이 힘들 때마다 가족들을 앉혀 놓고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하는 할머니 앞에서 나는 그저 한숨을 푹 내쉬었다.

2011년 손이 저리다며 신경과를 찾은 할머니에게 만성신부전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서

할머니의 모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다.

시골에서 스스로 생활하던 패턴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투석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되어 무기력한 나날에 지쳐가고 있었다.

일주일에 세 번, 4시간씩 누워서 평생을 해야 하는 혈액투석..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지독한 세계다.

“이런 더러운 병에 걸려서 평생 이 짓거리를 해야 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수년째 투석을 하는 환자들의 수없는 푸념을 들으면서

“그런 말 하지마세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일상생활 다하면서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잘 살고 계신 걸로 감사해 하셔야죠.” 하고 기계적으로 수없이 답했던 나의 지난날..

하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입장과 가족의 입장은 너무나 달랐다.

사실 인공신장실에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내게 이런 일이 가까이 오리라 생각해보지 않았었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 시작한 혈액투석, 투석 중 저혈압은 일쑤고 다리경련도 반복되었으며 아무리 교육해도 식이조절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카테터를 잡을 때마다 생과 사의 고비를 넘기곤 했던 할머니.. 유지중인 카테터로 인한 감염의 위험으로 항생제 치료가 끊이질 않았고 관이 막히기 일쑤였으며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 동정맥루 수술도 어려웠다.

시술도중 급격한 상태악화로 중환자실에 누워 기관 삽관을 한 할머니를 보고 있노라니 ‘우리가 할머니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었다.

간호사로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일련의 모든 과정이 이제는 당연하지 않게 느껴졌다.

어느 노래가사에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했던가..

기계적으로 환자에게 감정 없이 설명하던 나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내 할 일만 하느라 마음을 쓰지 않았던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이제 서야 알아버린 것이다.

간호사로서의 삶은 할머니의 투석전과 후로 달라져버렸다. 그리고 거기에는 감정뿐 아니라 가치관도 다시 정립해야 했다. 인간으로서 존엄할 수 있는 권리..

한편 그러면서도 이런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다.

간호사라는 이유로 아니 더군다나 인공 신장실 간호사라는 이유로 모든 친척들의 질문과 결정권에 참여해야 했던 나는 어찌면 할머니의 안위보다는 나의 안락함을 잃어버린 것이 더 분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이 카테터 문제만으로도 계속 길이 막히고 있는데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일지도..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할머니를 돌보느라 지쳐가는 가족들의 모습과 매일같이 반복되는 할머니의 푸념 때문이었을지도.. 모든 복합적인 감정이 할머니에게서 나를 묶어두었다. 자유롭지 못했다.

‘과연 어떤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까, 만약 투석을 하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게 했더라면 할머니의 삶이 조금 더 존엄해질 수 있었을까..?’

이런 나의 불편한 마음 때문이었을까. 3년이 넘는 힘든 시간을 보

내시다 여든 다섯 생일을 일주일 남겨두고, 지난 주 비로소 할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지셨다. 영영..

“그래도 현희 니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있으니께 선생님들도 잘해주고 마음도 편하고 좋아.. 아이고 근데 내가 얼른 가야 니들도 고생 안하고 한갓지지..” 할머니의 말씀이 뇌리를 맴돈다.

나는 내가 환자들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그들을 다 안다고 자만했다. 허나

‘내가 니 마음 다 알아.’ 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나는 내가 될 수 없고, 너 역시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타인이 아니던가.

하지만 내가 너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한다는, 그 따뜻함이 필요했던 것인데.. 나는 그것을 참으로 몰랐다.

그 따뜻함이면 충분하다. 곁에 계실 때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송함에 눈시울이 또 붉어진다. 할머니에게 나는 아주 크나 큰 사랑을 배웠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느껴보지 못했을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 처치와 간호만 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려는 작은 모습이 어느새 내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고 간호사라는 이 값진 직업을 가진 것을 감사해하며 평생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큰 선물을 주고 가셨다.

곁에 계실 때는 미처 몰랐던 소중함, 이제 더 이상 손을 만질 수도, 서로 눈 맞춤 할 수도, 대화를 할 수도 없지만..

출근해서 매일 만나는 환자들 속에서 나는 오늘도 우리 할머니를 보고 느끼고 만난다.

할머니, 이제 그곳에서는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고 계세요. 할머니의 선물을 잊지 않고 간호사의 소명을 다하며 살아갈게요.



네번째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는 순간

나의 프리셉터 경험, 그리고 후배간호사들에게 보내는 글

가장 작은 씨앗도 자라서 하늘의 새들도 품을 수 있다

이진명 _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2013년 의료기관 인증 중간평가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내가 있던 수술실 산부인과 방으로 신규간호사가 배정되었다. 긴장을 하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은 순수한 신규간호사의 모습이었다. 며칠 동안은 업무가 끝나면 구석구석 환경청소를 깨끗이 하기 위해 남아서 청소를 했다. 신규간호사에게는 인증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매일 정시에 퇴근을 시켰으나, 이 신규간호사는 너무나 열정적으로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청소를 같이 시작하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간호사는 정말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이 글에선 이 친구를 '긍정이' 라 칭하겠다.).

적극적으로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적극적인 긍정이에게 아주 큰 기대를 하게 되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 긍정이는

적극적인 말과 다르게 업무능력은 실수의 연속이었다.

두 달이 다 되도록 긍정이는 트레이닝을 마치지 못하고, 독자적인 업무 능력은 떨어졌다. 긍정이 뒤로 트레이닝 해야 할 간호사들이 줄 서 있기 때문에 부득이 긍정이를 다른 방으로 이동배치하기로 결정되었다.

긍정이는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다고, 며칠만 더 시간을 주면 완벽히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긍정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빠른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게 다른 방으로 이동배치 된 후에도 긍정이는 사건과 사고가 많은 간호사였다.

2년 정도 지나, 정형외과 방에서 다시 긍정이를 만났다. 정형외과 방은 워낙 복잡하고 집도의들도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 적응하기 힘들어 하여 또 한 달 만에 이동배치가 결정되었다.

수 개월이 지나 긍정이가 다시 정형외과 방에 와서 차근차근 트레이닝을 시작했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노력의 결과를 꼭 얻는다고 했던가. 시간이 지나 긍정이는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TKA(Total Knee Arthroplasty)를 혼자서 단독으로 하고 ACL Reconstruction(전방십자인대 재건술)도 하게 되었다. 긍정이가 처음으로 TKA(Total Knee Arthroplasty)를 하던 날은 나만큼 감동하고, 남달랐던 감정을 느낀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내가 느낀 감정은 긍정이도 모를 것 같다.

긍정이는 처음 신규 간호사로 오던 날, 산부인과 방에서 나와 시작

을 하고 처음 정형외과 방에서 내가 트레이닝을 한 간호사였다.

긍정이가 너무 예뻐서. 신규 간호사때부터 이벤트 걸로 불리고, OS 방에서의 트레이닝 연기, 그리고 다시 돌아와 ACL recon을 할 때마다 집 도의와의 이벤트들을 보며 '긍정이는 TKA를 못하겠구나' 생각하며 안타까웠었다.

이렇게 해내다니... 너무 감동이다. 그것도 두 회사의 제품을 너무나도 잘했다. 긍정이가 '큰 산을 넘었구나' 하는 감동과 기쁨, 대견함은 그 어떤 표현으로도 형용하기 힘든 감정이었다.

이 날은 외부병원에서 신경외과 수술참관을 위해 아주 바쁜 하루였지만, 모두 서로서로 도와주는 모습에 수술실 후배들이 너무 사랑스러웠고 감동이 있는 하루였다. 그동안 변해가는 수술실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과거 가족적인 분위기의 수술실이 없어지는 것 같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괜히 했다는 생각을 했다. 이 날은 간호사 생활에 있어서 정말 잊지 못할 하루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여곡절이 많고 소소한 이벤트도 많았다. 그만두고 싶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 하고, 매번 자신의 길이 아닌 듯 하다고 이야기 했다. 한번 병원을 쉬어 봤던 나는 그만둔다는 후배를 보면 어떻게 든 잡고 싶었다. 더군다나 긍정이는 나의 프리셉티 아닌가?

산부인과 방을 할 때 나는 열정도 많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후배들에게 주고 싶었다. 내가 신규간호사였던 시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후배들을 보면

그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무조건 나의 의욕만 앞선던 것 같다.

이제 긍정이는 한 방을 이끌어 가는 방장이 되었다. 아직은 미숙하고 조심스러워 하지만, 나는 믿는다. 초긍정의 힘으로 후배들을 잘 이끌어갈 긍정이의 능력을...

겨자씨는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긍정이는 실수가 많은 신규간호사였지만,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을 품어줄 수 있는 훌륭한 수술실 간호사이다.



누구나 처음 순간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이수라 _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처음의 순간이 기억에 남는 이유는 처음이기에 느낀 설렘, 낯섦, 두려움 때문이다. 그 모든 첫 순간들이 지나고 어떠한 일에 익숙해지면 다시금 그 처음을 떠올려 보기도 한다. 그 때 내가 느낀 그 첫 순간들은 어떠한지. 그때 나의 심신은 어떤 상태였는지. 힘들고 어려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순간들을 이겨낸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그때의 일들이 추억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신규 간호사로 병원에 갓 입사하여 그토록 가고 싶었던 외과계 중환자실에 들어섰을 때 처음이라 느낀 설렘은 하루, 이틀 생각보다 짧았다. 중환자를 보며 응급상황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한 순간의 판단과 소소한 간호처치 하나도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다이내믹한 이곳에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런 나약한 나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었던 이가 바로 나의 프리셉터 선생님이다. 한 달이라는 짧은 orientation 기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일어나는 많은 상황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며, 의료진과의 소통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던 선생님. 실수는 다시금 습관이 되지 않도록 때로는 눈물을 속 빼도록 엄하게 꾸짖어 주시던 선생님. orientation이 끝나고 발령 후 1년 남짓 함께 근무하다 보건교사 임용이 되어 병원을 떠났지만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난 그 프리셉터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문득 생각나기도 한다. 힘이 들 때는 훌쩍 털어 버리라고, 나를 위해 힘든 순간을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라며 대신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난 아직도 첫 발을 디딘 외과계 중환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 프리셉터 위촉을 받았고, 신규 간호사의 처음을 함께하는 프리셉터가 되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기 시작 하는 봄에 첫 프리셉터를 만났을 때 나도 처음이라 조금은 욕심을 부렸던 것 같다. 그 덕에 매일매일 CPR 환자와 OHS 환자를 보게 되고, 각종 ECMO, CRRT 환자도 어렵고 벅찰 거라는 걸 알면서도 도전해 보았다. 응급 상황이 많은 중환자실에서 나도 모르게 예민해 지는 때가 많으며, 다급한 상황에서 목소리가 커지는 날도 많았다. 근무 중 식사 시간엔 끼니를 거르는 날도 많으며, 끼니를 챙겨 먹다가도 환자 생각에 단시간에 도시락을 후루룩 마시고 뛰어가 기 일쑤였다. 그런 힘들 날을 겪으면서도 많은 노력과 의지로 발령을 받

은 프리셉티 선생님. 처음 프리셉티가 되면서 나의 프리셉티에게는 조금
함 대신 침착함과 여유로움을 알려 주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었다. 그렇
게 지금까지 4명의 프리셉티를 만났고 그들로 인해 나를 다시 되돌아보
게 되었다. 나의 프리셉티가 경력 간호사가 되어 능숙한 모습으로 환자
와 보호자를 응대하고 응급상황에서도 척척 대처 하고, 수술 후 극심한
통증으로 시달리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약하며 환자를 안심시키며 간
호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모르게 으쓱하며 칭찬을 해주곤 한다. 이젠
나의 프리셉티가 아닌 든든한 동료로 함께 하는 선생님들. 시간이 흘러
처음의 순간에 가졌던 두려움이 지나고 어느덧 힘들었던 일들이 점점 추
억으로 차곡차곡 쌓여간다.



서로 다른 위치, 서로 같은 바람

박혜민 _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내가 신규 간호사였을 때, 간호현장에서 환자와 직접적으로 마주치며 근무하기 전에는 의료지식만 정확하게 숙지하고 이를 행할 수 있다면 그 외의 어려움은 크게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는 달랐다. 간호사로서 의료기술을 행할 때 겪는 어려움이 아닌 그 외의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다.

신규 간호사로서 일을 시작한지 한달정도 되었을 때, 환자 한분이 중환자실에서 전실하여 일반 병동으로 나왔다. 그녀는 광주 출신이었고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분이었다. 그녀는 지남력이 전혀 없어 의사소통이 되지 않았고 혼돈상태였다. 비위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상태라 삽관 상태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하는 분이었다. 그녀의 여동생과 언니가 교대로 간병을 하였는데 그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비위관

을 스스로 뽑았다. 의료진은 치료적 목적으로 그녀에게 억제대를 적용하려고 하였으나 보호자들이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녀는 매일같이 비위관을 뽑아 보호자와 의료진 사이 갈등이 생겨났다. 환자상태가 호전되는 기미 없이 한 달이 지나갔고 시간이 지나면서 보호자들 또한 매우 예민하고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녀의 언니가 언성을 높이며 내게 말했다.

“아니, 동생이 제발 풀어달라고 애원을 하는데 어떻게 손을 묶고 있어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눈으로 인상을 쓰며 바라보는 그녀에게 간절히 말했다.

“보호자분 치료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셔야 해요. 오히려 매일 비위관을 삽입하는 행위자체가 더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실랑이에 보호자들은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며 간호사들이 하는 처치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호자와 간호사 모두 그녀의 건강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마음은 모두 같은데 간호사를 못마땅해하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프기 그지 없었다. 그러나 우리 간호사들은 이러한 보호자 응대에 더욱 주의하며 친절할 모습을 유지하려 꾸준히 노력하였다.

역시나 노력은 배신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시간이 지나 그녀가 점차 회복되어 지남력을 가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

위관과 유치 도뇨관도 모두 제거하게 되었다. 그녀는 식사량이 점차 늘어나며 얼굴빛이 환해지고, 재활치료를 받으며 점차 의사소통이 정확해졌으며, 혼자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을 보니 놀랍고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보호자들의 변화였다. 그녀가 건강을 회복하자 보호자들도 간호사에게 보다 유해지고 신뢰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처음에 내가 처치를 하러 가면 뭘 잘못하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나의 행동 하나하나 감시를 하였는데, 지금은 간호사로 일하는 게 힘들지 않는지 안부를 물어주고 고생이 많다며 항상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었다. 더 시간이 지나 그녀가 전실 온지 3개월쯤 되었을 때, 완치는 아니었지만 처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모습으로 그녀는 퇴원하게 되었다. 퇴원전 날 그녀와 보호자는 그 동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하며 간호사 모두에게 악수를 청하였고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였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니, 환자가 처음 병원에 와서 급성기일때는 보호자가 예민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아 그럴 수 있겠구나’, ‘보호자도 환자 본인만큼이나 얼마나 힘들까?’, ‘환자뿐만이 아니라 보호자 역시 우리 병원과 의료진을 믿고 온 것임을 잊지 말자’, ‘그런 보호자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어루만져 주는 것이 역시 진정한 간호사의 역할이구나.’ 등의 다양한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병원에서 간호사로서 근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주어지는데 물론 의료적 지식들을 기반으로 이를 능숙히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리고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여전히 배워야 할 점이 많은 아직은 미숙한 간호사라 보호자들이 가끔 아쉬운 점, 불만들을 행동으로 보이면 같이 감정에 휩쓸리는 상황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환자의 건강회복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만큼은 보호자와 간호사가 모두 같은 바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이를 언제나 마음속에 새기고 모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멋진 간호사로 성장하고 있다.



프리셉터를 시작하며~

차미솔 _ 아주대학교병원



프리셉터를 시작하며 프리셉터를 시작하는 많은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신입간호사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우왕좌왕 했던 날들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이번에 프리셉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리셉터 교육을 받으며 ‘과연 내 프리셉터 선생님은 이 답답이를 어떻게 참고 가르치셨을까? 부서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쳐 주셨지? 나는 어떻게 배웠고 어떨 때 잘 기억에 남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선배간호사가 되는 것이 예전에는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배 간호사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후배들을 도와주고 가르쳐줄 때 ‘아,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구나’ 하며 제 스스

로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점점 더 중한 상태의 환자들을 담당하게 되면서 정말 내가 해낼 수 있는 일인가 하고 저 자신의 역량을 되돌아보곤 했습니다.

그리는 과정에서 사실 저는 오히려 자신감을 많이 잃었기 때문에 ‘뭐 그냥 시키면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프리셉터로서의 역할이 저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리셉터 교육을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신입간호사의 마음을 한 층 더 이해하면서 효과적으로 가르쳐 줄 수 있을 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와 동시에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하며 해왔던 간호의 근거나 원칙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 저 개인에게도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번 듣고 다 잘하는 학생이 없듯이 좋은 교육자도 쉬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임상현장에서 과연 프리셉터 교육에서 배운 것을 얼마나 써먹을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소통하면 더 좋을지 생각하고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것과 아닌 것에는 행동이나 결과에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프리셉터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쁘고 시한폭탄 같은 임상에서 우리는 계속 빨리 빨리를 외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손이 느리면 답답하고 화가 나기 마련인데 이런 와중에도 “저 친구는 조금 느리더라도 기다려주면 잘 해낼 아이야” 하고 말씀하시던 선생님을 보고 나는 후배 간호사들을 그렇게 기다려

준적이 있었는지 반성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이 이론적으로는 잘 알아도 실제 현장에서 학교에서 배운 이론적 내용을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천천히 기다려 주고 후배간호사에 대한 격려와 칭찬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후배간호사의 능력도 향상되고 제 자신도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이상적인 프리셉터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비난이 아닌 따뜻한 격려와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멘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흐림 뒤 맑음

이영아 _ 노원율지대학교병원



저는 '신규' 딱지를 뗀지 얼마 되지 않은 아직은(?) 풋풋한 2년차 간호사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제가 근무하는 정형외과 병동의 특성상 다른 암 병동이나 중증도 높은 병동보다 드라마틱하게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을만한 일들은 솔직히 겪어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간호사들이 그러하듯 웬만한 희노애락은 다 겪어봤고, 소소하게나마 행복했던 기억들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저의 성장기와 간호사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경험담을 풀어놓을까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말이었습니다. 사회의 시작이자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에 처음 발을 내딛고 나서 처음엔 모든 게 신기했고 뒷 모르고 마냥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학점을 더 받기위해 동기들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경쟁은 더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혼란도 겪고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결국은 사람이 미워지고 그리고 동기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이 사회의 현실이 원망스러워서 매일같이 울면서 가족이고 친구고 마음이 굳게 단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일년같이 보내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겨울방학을 이용해 용기 내어 자대병원 응급실 아르바이트를 지원했고, 2달여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임상의 매력적인 모습을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풀어졌고, 그때 처음으로 '간호학과에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소중한 경험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오로지 간호사가 꼭 돼야겠다는 일념으로 남은 대학생활을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그렇게 고대하던 임상에 합류했는데 대학 때와는 또 다른 사회생활에 당황하고 적응을 못해 다시 인생에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마치 군대를 연상케 하는 '다,나,까' 말투부터 시작해서 사회 초년생의 눈에는 딱딱하고 차갑기만 한 선후배 관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환자의 생명이 내 손에 달렸다는 것. 내 인생도 아니고 남의 인생, 남의 생명이 내 손안에 달렸다? 이것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렇게 저의 하루살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그렇게 멋지고 매력적으로만 보였던 임상이,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은 고되고 환자, 보호자들의 온갖 컴플레인에 치이고, 어

떤 상황이든 딱딱뚝뚝 일처리 하는 선임 간호사들과는 달리 헤매고 실수만 늘어놓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못나 보여 자괴감에 빠지고, 그야말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시간은 흘렀고 저는 어느 정도 일에 적응해나가면서 간호사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생기면서 긍정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기고 시야도 넓어져 세상의 아름다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대퇴골 골절로 입원했던 한 노인 환자가 있었는데, 어느 때와 다름없이 활력정후를 측정하면서 환자분을 스윙 봤는데 입원당시에 비해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된 것을 한눈에 봐도 딱 느낄 수가 있었고, 그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어머나 세상! 얼굴에 생기도 들고 부기도 많이 빠지고 몰라보게 좋아지신 것 같아요~ 곧 집에 돌아가실 수 있겠는데요?" 라고 웃으며 말을 건넸습니다. 입원기간 거의 내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생각할 만큼 비관적이고 우리에게 적대적이었던 분이 이젠 나긋나긋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 나 퇴원해도 되는데~ 그동안 내가 짜증도 내고 욕도 많이 하고 못되게 굴어서 많이 섭섭했지? 너무 상처받지 말고, 군말 없이 노인네 진상 다 받아주느라 수고했고 고마워~ 우리 손녀 같아서 참 안쓰럽고 미안하네." 라며 제 손을 꼬옥 감싸고 말하시는데 그게 그렇게도 가슴이 뭉클하고 뿌듯하고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분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어두운 얼굴로 입원해서 웃으면서 퇴원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면, 그것은 물론 저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내가, 나의 간호가 누군가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참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간호사 일을 하면서 다양한 환자, 보호자들 응대 하다 보면 힘든 일도 참 많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그들로부터 위로도 많이 받고 날 웃게 해주는 활력소이자 어떨 때는 탈출구였고,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가끔씩 내가 힘들고 지쳐 보일 때면, 조금만 더 힘내라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이거 먹고 기운 내라며 간식까지 주시고, 여러모로 딸처럼 손녀처럼 챙겨주시는 보호자와 환자분들.. 또 이쁜누나~하면서 휠체어 타고 쫓아다니는 남동생 같은 환자들은 힘든 와중에도 저를 웃음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농담도 주고받고 웃음을 함께 나누며 라포가 형성되면, 어찌면 내 가족들보다도 더 많이 마주하는 환자들이 때로는 더 가족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고, 집에선 무뚝뚝하고 축쓰러움에 표현이 서툴지만 환자들에게만큼은 마치 우리 할머니, 우리 엄마아빠 혹은 동생마냥 오히려 더 친근하게 대하면서 실제 내 가족들에게 미처 하지 못하는 표현을 대신하면서 마음의 짐을 덜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입사 후 1년이 흐른 지금, 가끔씩 선임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넌 오래 못 버티고 금방 그만둘 줄 알았다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남아서 씩씩하게 일 잘하고 있다고 대견하다고. 사실 저도 제가 단 3개월도 못 채우고 나갈 줄 알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 스스로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사람들이 당신이 해내지 못 할 거라 한 일을 해내는 것' 이라고. 사실 처음부터 제 꿈이 간호사도 아니었고, 생각 이상의 고되고 어려운 일들로 의료인의 길에 발을 들인 것 자체를 후회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후회보다 그 이상으로 제 스스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에 훗날 '간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 내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할 날이 기다려집니다. 또 그로 인해 아름답게 빛나고 있을 저의 미래가 참 기대됩니다.

후배 간호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다고. 시련이 와도 그건 잠시뿐이니 조금만 힘내서 버텨보자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꽃은 피고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말이죠.



간호사 '어디까지 가봤니?'

간호사들의 국내·외 봉사활동 경험 및 외부 활동에 관한 이야기

간호 윤리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판단이구나

강 샘 _ 가천대학교 길병원



지난 3일 건국대병원에서 병원간호사회 주관으로 열린 '간호윤리 상황극 콘테스트'에서 우리병원은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많은 병원들이 시나리오를 공모한 상황에 발표할 기회를 주어졌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 일인데 상까지 받아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다. 그 날을 기억해보면... 내가 사진 속에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진 것은 바로 많은 간호사들 중 우리 병동의 수 선생님이 배우 역할을 맡았기 때문일 것이다. 준비기간 동안 병동 일을 하면서 대회를 준비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일과 함께 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나 포함 병동선생님들 모두 마음속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수 선생님께서는 리허설을 위해 먼저 건국대 병

원으로 향했고, 뒤따라 우리병동 선생님들도 응원의 길을 나섰다. 인천에서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응원도구와 꽃다발을 가지고 장소에 도착했다. 역시나 여기저기 다른 팀의 모습도 보였다. 우리는 앞쪽에 앉아서 가까운 거리에서 콘테스트를 볼 수 있었다. 긴장되는 '시작'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순서였던 우리병원은 "나는 선임간호사야"라는 주제로 상황극이 시작되었다. 병동 내에는 '담당간호사' 제도가 시행중이지만 자신의 업무를 후배간호사에게 미루고, 오히려 잘못을 미루는 모습은 선임간호사와 후배간호사간의 역할갈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무대였다. 이처럼 우리는 실제 임상에서 많은 간호 윤리갈등을 느낀다. 단순히 환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간호사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1등을 수상한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의 상황극은 환자 당사자와 보호자 사이에 놓인 간호사의 입장을 보여주었다. 배가 아프다는 딸을 응급실에 데려온 어머니는 임신가능성을 두는 의사의 소견에 화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자궁 외 임신으로 나왔고 딸은 이 상황에 어머니에게 비밀을 요구해줄 것을 요구하며 퇴원을 하게 된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한 '비밀유지'와 '생명윤리'의 문제가 뒤따른다. 다른 팀의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는 상황극 또한 외국인부인과 나이 많은 남편 사이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 매번 부인 쪽만 검사하고 시술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검사결과는 남편 쪽이 무정자증으로 나왔고 남편은 '비밀유지' 권리를 내세우며 부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요구한다. 두 상황극

모두 결론은 간호사의 설득 속에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만, 우리가 실제 임상에서 발생하는 난처한 상황 중 하나임을 시사해준다.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ICN에서 정의한 간호윤리는 간호사라면 4가지 기본적인 책임을 다룬다. 즉,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윤리적 상황은 커다란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업무능률을 떨어뜨리고 이직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기에 수많은 간호사들이 행복한 간호현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번에 병원간호사회에서 개최한 콘테스트는 적어도 이 대회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간호현장에서 만나는 윤리적 갈등 상황에서 보다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간호사, 스페인에서 기적을 맛보다

진종임 _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땅의 표면에 닿자마자 별 빛 물안개로 퍼지는 서유럽 반도의 5월 마지막 주. 일 년 내내 행사가 끊이지 않는 축제의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전 세계의 8,000여명의 간호사들이 모인 특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국제간호사협회(ICN)가 2015년의 우리나라의 바톤을 이어받아 열정의 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것입니다. 100개국 이 넘는 나라의 간호사들이 참석하였고 언어, 생김새, 옷 모양 그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었지만 돌봄(care)이라는 사명 아래, 간호사라는 소명 하에 우리들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중 햇살이 바르셀로나 가우디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투과하여 오색빛깔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전 세계 간호사들의 입은 전통의상의 각양각색은 바르셀로나 CCIB의 컨벤션 홀을 파란 빛, 초록 빛, 빨간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 곳에 모인 간호사들은 뒤센의 미소처럼 모두 귀와 입이 하나로 연결된 원 하나를 모두 얼굴에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곳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각 사람을 흥분시켰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땅을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27일 오후 6시 반에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각 나라 간호사 대표들이 국기를 지켜 세우며 입장하였는데, 국기가 높이 들려질 때 자국 간호사들이 기립하여 지르는 환호성은 축구 경기장만한 컨벤션 홀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호연지기를 느끼게 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대한간호협회의 대표 3인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등장할 때 대한간호협회의 간호사들은 모두 진분홍, 연분홍, 다홍빛의 꽃부채가 되어 펄럭였고 한복 치마 사이로 넓게 펄럭이며 이는 잔 바람은 굳건함이 느껴지는 대한민국의 향기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순간, 병원의 그 자리를 벗어나 내가 앉은 이 자리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늘 반복되는 일상의 자리를 벗어나 13시간의 먼 거리를 달려와 앉은 바르셀로나의 이 자리는 지금까지 간호라는 행위로 환자와 동료들을 만난 시간, 환자를 지키기 위해 울타리처럼 묵묵히 서 있었던 시간, 그 누구보다 이기적인 내가 나보다 더 힘들고 아픈 환자들을 위해 그 시간들이 모였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사소한 것처럼 보였던 그 시간들이 모여 과정이 되고 그 과정이 전 세계 간호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된다는 깨우침은 심연 속에 맺혀있던 몽우리가 꽃을 피우기 위해 특하고 터지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섬광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스페인 내전 때 폭격으로 다른 성당은 파괴되거나 손상을 입었지만 바르셀로나 가우디의 성가족 성당은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생 그 성당을 위해 헌신한 가우디의 노력에 하늘도 감동하여 기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일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그 자리를 얻기 위해 간호라는 사명을 가진 간호사들이 자기를 버리고 그 누군가를 위해 펼친 손길, 간호학의 발전을 위해 수 많은 논문과 일대면한 우리들의 노력에 역시 하늘도 감동한 듯합니다. 그리하여 반복된 일상의 숨과 다른 숨을 들이쉬고 내 쉴 수 있는 바르셀로나의 기적으로 우리들은 한 곳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적의 자리에서 기적을 일궈내는 자리로 돌아온 지금도 여전히 제 목덜미 뒤에는 5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유난히 밝고 따사로운 햇살이 따갑게 남아있습니다. 햇살의 점들이 모여 하나가 된 스페인의 자연곡선미, 전 세계의 간호사들이 돌봄이라는 사명 하에 모인 그 화합의 현장이 지금 이 일상의 자리를 지키는 지금, 잔잔한 파도가 되어 제 가슴 속에 일렁입니다. 그 파도의 잔잔한 외침에 나는 돌봄의 사명을 가진 간호사이기에 그 기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큰 외침으로 대답해 봅니다.

메마른 땅에 뿌린 사랑의 씨앗

김경아 _ 세브란스병원



세브란스 병원의 재난 대응 의료 안전망 사업단에서 주최하는 요르단 거주 시리아 난민을 위한 의료지원에 다녀왔다.

아부다비를 경유하여 13시간 30분간 비행 후 요르단 암만에 도착했을 때의 뜨거운 태양과 메마른 땅의 그 느낌이 아직도 선명하다.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발생한 시리아 난민은 약 481만 명 정도이다. 그들 중 약 66만 명이 현재 요르단에 머물고 있다. 요르단에 거주하고 있는 시리아 난민의 22% 만이 난민 캠프에서, 나머지 78%의 난민은 캠프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 캠프 난민은 캠프 내에서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캠프 밖의 난민들은 무보험 요르단 국민과 같이 의료비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의료비 지출 대신 식비와 주거 렌트비를 주로 지불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투약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기적으로 난민을 위한 클리닉을 열어 진료를 보고 만성 질환자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주는 선교사님이 현지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주셨고 우리팀은 두 지역에서 4일간 진료를 했다. 팀원으로는 정신과, 감염내과, 소아과, 외상외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사와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간호사, 약사와 응급 구조사로 이루어졌다. 응급실 간호사와 병동 간호사가 vital sign 측정 및 환자 분류와 진료과 결정을 담당하였고, 중환자실, 회복실, 수술실 간호사는 약국에서 약사를 도와 조제를 담당했다. 수술실 간호사인 나는 외과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예 : excision) 외상 외과를 도왔다.

요르단에 도착한 첫 날부터 어렵지 않게 모든 업무를 분담 할 수 있었다. 18명의 팀원 중 8명은 지난 해 네팔 지진 긴급 구호에서 이미 호흡을 맞춰 보았던 경험이 있기에 당시의 기본 틀과 경험에서 생긴 노하우를 가지고 새로운 팀원들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첫 날, 모든 팀원들은 한국에서 가져간 약과 진료 재료들과 현지에서 구입한 약을 제라쉬와 바카아라는 두 지역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분배해 짐을 싸 두었다.

두 지역에서의 4일간의 진료는 무척이나 바빴다. 여러가지 면에서

열악 했으며, 방법을 알면서도 더 치료 해줄 수 없어 마음이 아팠다. 요르단에서 3년간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신 소아과 의사선생님의 조언과 현지 코디네이터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르단 출발 전부터 준비한 약들은 빠른 속도로 소진 되었고,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약을 구입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는 모든 환자들에게 필요한 약을 모두 갖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여전히 우리가 도움을 주지 못한 환자들도 있었다. 이런 한계를 느끼면서도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그 마음을 표현했다.

아부다비를 경유한 공항에서 연결 항공을 기다리는 2시간 남짓 동안 간단한 생활 아랍어를 공부 했었는데 현지인들에겐 겨우 인사말 정도로 건넬 수 있는 수준이었다.

나의 어설픈 발음과 억양에도 웃으며 응답하는 그들의 눈빛은 4일 내내 내게 비타민이 돼 주었다.

검정색 부르카를 입고 장갑을 착용해 눈만 겨우 볼 수 있는 여인부터 히잡을 두르고 있는 여인까지 각양각색의 걸모습을 띄고 있어 처음엔 그들의 모습이 낯설었다. 그러나 내가 본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엄마였고, 여자였고, 환자였다.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 받지 못하고 타국에서의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아 빈곤에 빠지기 쉬운 시리아 난민들을 모두가 외면한다면 그들에겐 희망과 미래가 없을 것이다.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이렇게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당신들을 위하

여 기도하고 있노라고, 당신들의 삶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가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마지막으로 각자 다른 부서에서 간호사라는 공통점만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한마음으로 서로 돕고 격려해가며 4일 동안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이 협력 할 수 있었던 것은 감동 그 자체였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타 부서 간호사와 교류 할 수 있어서 서로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베스트 널싱 경진대회를 아시나요?

이현미 _ 강북삼성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한 알코올성 간경화 말기 환자, F/62세, 20년간 술과 함께 하느라 가족들과는 함께하지 못했던 한 환자가 토혈을 하며 입원한다. 응급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한고비 넘기고 병실로 옮겨 지내게 된다. 그러던 중 혈청 크레아틴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간신 증후군을 진단 받고 정맥류 재 출혈되어 토혈을 한다. 지혈술 적용중 되지 않아 식도 지혈풍선을 삽입해야 하는 상황 이었다.

간신증후군의 토혈까지, 의학적으로 연명치료가 무의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술로 인해 모든 가족, 동거인 마저 연락이 끊긴 상태, 본인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워 고민하던 당직의는 어렵게 환자에게 다가가 DNR 을 묻는다. 의식이 명료해 의사 말을 다 들은 그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공황상태가 되어버린다. 그 와중에 혈압, 산호 포화도가 떨어지면서

의사는 중환자실 행을 선택하게 된다.

중환자실에서 식도 지혈풍선을 삽입 하던 중 심정지 상황이 발생한다. 심폐소생술 시작 6분 뒤 ROSC 되어 기관 삽관, 인공호흡기, CRRT 를 시작한다. Irritability 보여 사지 억제대 하며 사투를 벌이던 환자는 2차 심정지가 오면서 중환자실로 이동한지 28시간 만에 사망한다. 무연고 처리 되어 구청에서 치러지는 장례식으로 생을 마감한다.

불안에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 무엇부터 생각하고 말해야 할 지 몰라 멍해 있던 표정, 중환자실 간호기록을 읽으며 느껴졌던 무언의 고통의 외침으로 나는 한동안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그녀 옆에서 그 상황을 모두 지켜보기만 했을 뿐, 그녀를 전혀 도와 주지 못한 나였다.

그 날의 일이 되돌이표처럼 계속 떠올라 나를 괴롭히며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베스트 널싱 경진대회 사례집을 읽게 되었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이들이 자신의 간호 경험담을 써둔 책 이었다. 나와 같이 딜레마에 빠져있는 간호사의 글도 있었다. 대학 동기들이나 만나야 들을 수 있었던 실무 경험담, 그 외에는 접하기 힘들었던 간호상황들이 어쩔 이리 상세히도 나열되어 있던 말인가? 신세계였다. 단 숨에 책 한 권을 읽은 자리에서 정독했다. 한 권을 숨가쁘게 읽고 나니, 나도 이렇게 괴로워만 하고 있을게 아니라 내가 왜 괴로웠고 그 환자가 혼란 속에서 죽음을 맞게 된 이유를 찾아 보기로 다짐하게 된다.

여러 논문과 관련 서적을 읽었다, 그리고 임상실무를 하는 동안에도 글속에서 나오지 않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서 어설피지만 간호상황,

문제해결과정 글을 써내려 갔다. 처음이라 경험 삼아 써보는 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별 기대 없이 공모전에 작품을 냈다.

5월의 어느 날, 밤 근무를 끝내고 노곤한 몸을 침대에 누이려고 하는데 병원간호사회로부터 당선 됐다는 문자와 함께 경진대회가 7월에 정이라는 문자가 왔다. 너무 기뻐서 밤 근무 하고 난 뒤였는데도 잠이 오질 않았다

주사 놓고 환자를 돌보기만 익숙했지, 경진대회를 위한 파워 포인트를 작업 하는 것도 프리젠테이션을 몇 백 명 앞에서 하는 것도 머리털 나고 처음이었다. 대형문고에 가서 파워포인트 책을 사고 프리젠테이션 책을 샀다. 아기의 첫 걸음마처럼 모든 것을 아장아장 해나갔다. 처음 해 보는 것들이라 힘들었지만 병원을 나름 대표해서 발표를 하러 간다는 생각에 모든 과정이 재미있었다.

발표 준비가 끝나갈 즈음, 7월 대회 예정이었던 것이 메르스로 10월로 지연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발표 준비가 길어지면서 원고, PTT, 발표 대본 수정을 수십 번 반복했다. 어쩔 볼 때마다 수정할 다른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지, 대회 연기가 되어 준비를 더 철저히 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점점 지쳐 갔다. 생전 처음으로 해보는 프리젠테이션이고 대외행사에서 하려하니 부담은 더욱 커져갔다. 거진 5개월을 진행해왔더니 글자를 씹어 먹어도 되겠다 싶었다. '나름 병원 대표로 나가는데 말할 수 하거나 꼴등 하면 어찌나'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더욱 커져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짚어 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내가 처음 해보는 것이 너

무 많고 결과와 상관없이 나를 성숙시켜 줄 수 있기에, 이 과정이 있음으로 그 환자의 일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져있던 나를 벗어나게 해주었기에, 그걸로 이미 나는 된 거 였다. 나는 내 안의 나에게 집중하기로 했다. 경쟁을 벗어 나와의 승부로 생각하니 다시 힘이 났다.

내 아이 돌잔치 때 100명 남짓한 하객들에게 감사 인사 드려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는 것은 처음 이었다. 대회 당일 날,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 앞에서 그들을 보고 머리 속이 도화지가 되어 버릴까 싶어 최대한 일찍 가서 대강당을 느꼈다. 연설 석상에 올라 A4 4장으로 요약한 나의 발표 대본을 읽고 읽고 또 읽었다. 글의 흐름과 연관되는 표정, 손짓도 하나하나 연습했다. 대형문고에서 산 책의 스티븐 잡스가 그랬다.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나부터 감동해야 하며 내가 발표할 글들이 내 것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진실하게 다가가야 성공한 프리젠테이션이 될 수 있다고, 처음 해보는 프리젠테이션이지만 스티븐 잡스 아저씨 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아무도 없는 텅 빈 강당을 나의 목소리로 가득 채웠다. 한 시간쯤 지나자 그 강당은 나와 소통 하고 있었다.

나의 발표 순서는 3번째 였다. 그토록 강당과 소통했건만 강당이 배신을 하는 건지. 첫 번째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하는데 내 심장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요지 부동으로 뛰기 시작한다. 맥박을 재봤으면 심전도 찍자고 했을 정도였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가 내 몸의 일부를 돌아가며 집중하는 명상을 해봤다가, 그도 안되니 그냥 뛰는 심장을 느끼고만 있었다.

발표할 차례가 되자, 다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생각했다. 바로 그녀였다. 그녀의 마지막 눈빛에 사과 하고 싶었다. 어찌면 내 마음의 위로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능력에서는 최선이었다. 이 강당의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담을 토로 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힘든 죽음을 맞이하는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그리고 그녀를 떠올렸고 마음으로나마 처음으로 그녀에게 전했다. “그 때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너무도 혼란스러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멍하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라고 사과했다.

그녀의 답변이었을까? 나의 심장은 정상 심박수로 돌아왔다. 나는 강연대에 올랐다. 앞줄의 심사위원, 뒷줄의 수많은 간호사들, 나와 같은 일을 하는, 내가 하는 말을 제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300백명의 동종 직종의 사람들, 그 앞에서 내가 느꼈던 것들을 풀어놓는 순간,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교감의 신호, 발표 내내 느껴지는 보이지 않는 손은 정말 엄청난 에너지였다. 수많은 텔레파시를 주고받으며 발표를 마친 나는 다시금 간호사로 태어난 느낌이었다. 묘한 자부심이 나의 몸을 뭉들었다. 사실 간호사는 전문직이고 특이한 업무 환경이기에 동종 직종이 아니면 교감하기 힘든 직업인데, 교감 가능한 자를 300명이나 모아봤으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는가?

그 안에서 실무를 하며 경험한 일과 그 느낌, 감정까지 나눌 수 있다니, 참 귀한 자리라고 느껴졌다. 10분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300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느낌이었다.

나는 우수상을 품에 안았다. 이번 과정을 겪어보면서 나 스스로 성숙되었으며 값진 경험을 한 것에 이미 감사했고 우수상을 통해 병원의 자량이 될 수 있어 또 한번 감사했다. 경진대회가 끝나고 나서 임상을 와 보니 모든 것이 베스트널싱의 간호과정으로 보인다. 매직아이처럼 처치 하나 하나가 나에게 간호진단으로 재정립되어진다. 블루오션의 임상 속에서 나는 또 얼마나 환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게 될까? 그들의 가르침을 글로써 풀어가며 나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을 통해 매직아이를 경험하게 되는 그날까지 나는 이번 대회경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2회를 맞은 베스트 널싱 경진대회, 앞으로 국민노래자랑 프로젝트처럼 장수하는 행사가 되어 나와 같은 미숙한 간호사가 능동적으로 알을 깨고 나아 갈 수 있는 묘한 힘을 계속 발휘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나는 이 정도까지 내가 깨달음과 성장을 얻게 될지 예상 하지 못했다. 하지만 경진대회 주최자는 내가 밟아가는 과정의 단계별로 어떤 것을 느끼고 성장하게 될지 이미 알고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경진대회를 만들어낸 분이 존경스럽고 지혜롭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의 글이 내가 보았던 사례집에 실려 어딘가 존재할 또 다른 어린 이현미가 그 글을 읽고 자신이 간호사임에 감사할 날이 올 날을 기대해 본다. 내가 쓴 나의 생각이 책에 실린다니, 내가 간호사 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감사드린다. 나에게 소속감을 주고 있는 강북삼성병원이라는 테두리가 이토록 든든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다. 한낱 개

인의 발표였다면 부담감이 경감되어 발표준비에 최선을 다 하지 못했을 지도 모르겠다. 발표 시 나의 명찰에는 나의 이름이 두 개가 써 있었다. 하나는 이현미, 하나는 강북삼성병원 이었다. 병원 밖으로 나가 보니 나를 감싸고 있는 직장이 그 동안 나라는 인간을 대변해 주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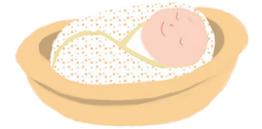
강북삼성병원 안에서 사회 첫 경험을 하고 동기를 만나고 상사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나의 인생의 20대 황금기를 함께 해준, 결혼 주례사 때에도 나를 무직이 아닌 강북삼성병원 간호사로 소개할 수 있게 해준 병원에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병원이 나에게 해준 만큼 병원에게 나의 담당 환자를 최선을 다해 간호하는 것으로 보답 선물을 해야겠다.



베이비 박스 이야기

이현수 _ 이대목동병원



졸업 후 바로 NICU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다들 힘들어 하는 신규시절이 조금 지나고 일이 익숙해지는 3년차 시기가 찾아왔다. 작년 여름, 처음엔 피곤하기만 했던 3교대 생활도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쉬는 날이 많다고 느껴지곤 했지만 무언가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을 하고 싶어도 매주 같은 날 시간이 나는게 아니라 막막하게 느껴졌다. 대학생 때 꾸준히 하던 봉사가 있었지만 동아리 없이 혼자 뭘 시작하기엔 어려울 것 같았다.

그러던 중 문득 생각난 게 베이비 박스였다. 재작년 겨울 우리 병원 NICU에 입원했던 환자 중에 베이비 박스에서 온 아기가 있었고, 그 때 처음 베이비 박스에 대해 듣고 알게 되었는데, 문득 베이비 박스를 떠올리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로 포털

검색창을 통해 검색을 해보았고, 카페를 통해 봉사 글들을 읽으면서 규칙적이지는 않더라도, 아니면 여럿이 아니더라도 혼자 할 수 있는 봉사라는 걸 확인하고는 바로 문의전화를 걸었다.

2015년 8월, 처음 찾아간 신림동의 베이비박스. 그 때쯤 베이비 박스는 새로 리모델링을 통해 훨씬 깔끔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7명의 신생아들이 있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아기들 기저귀를 갈아주고, 정해진 수유기록지를 보며, 아기의 수유 간격을 확인한 후 수유를 하고, 오전 중에 시행하는 아기들의 목욕을 돕는 일이었다. 평소 병동에서 자주하는 일이지 어렵지 않게 도울 수 있었다. 아픈 아기들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수월하게 느껴 지기도 했다. 첫 방문을 마치고 근무표를 보며 다음 방문 약속을 잡고 돌아올 수 있었고, 오랜만에 기분 좋고 조금 피곤하지만, 뿌듯한 하루였다.

그 이후 일주일에 한번 정도 베이비 박스를 찾으며, 병동에서 주변 친한 동료들에게 베이비 박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러다 정말 관심을 많이 보인 후배 한 명과 같이 베이비 박스에 가게 되었고, 관심을 가져주고 흔쾌히 같이 봉사를 가겠다고 해준 그 후배에게 참 고마웠다. 나이트 오프였음에도 피곤한 기색이 전혀 없이 함께 즐겁게, 기꺼이 봉사를 함께 해준 후배는 다음에도 함께 오자고 먼저 말을 해주었다.

이후 후배의 동기들도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보였고, 후배를 포함한 그 동기들 5명이 모두 함께 봉사를 가기로 결정이 되었다. 신

생아를 돌봐야 하는 베이비 박스의 특성상 한번에 여럿의 봉사인원이 필요하기 보다는 꾸준히 2~3명의 봉사자가 도움이 되는데, 3교대의 단점으로 같은 날 꾸준히 봉사 갈 시간을 내는게 어렵다는 것이 있었다. 나를 포함한 6명이 팀을 이뤄 같은 시간을 맞추니 그때 시간이 되는 2명의 근무자가 봉사를 가서 매주 같은 시간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오전 봉사 시간이다 보니 전날 이브닝 근무거나 봉사 직후 이브닝 출근하러 가는 길에는 졸린 눈을 비비며 오가기도 했지만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어 좋고, 아기를 다루는 것이 익숙한 우리의 손길과 신생아에 대한 의료지식이 그곳에서 도움이 되었고, 덕분에 너무나 예쁜 천사들을 볼 수 있어 힘듦도 잊고 열심히 다녔다.

우리 병동에서도 선생님들이 알게 되었을 때 많은 관심을 보였고, 지원자를 모집 후 기존에 가던 멤버가 아닌 다른 병동 사람들이 가서 일을 도와주는 날을 마련 하였다. 이 날은 베이비 박스에서 어려운 가정에 보내는 물품들을 포장하는 일들을 도와주고, 베이비박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연말 병동 회비 중 남는 것을 모금으로 만들어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 후 병동 선생님들도 베이비박스에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기분 좋고 뿌듯한 일들도, 정든 아기가 시설로 가거나, 아프거나, 하늘나라로 가는 일도 있어서, 마음 아픈 일도 있었다. 그래도 병원에 근무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맞는 동료들과 함께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누구보다 행복하다.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내가 가진 달란트로 누군가에게 도

움이 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지금도 즐겁게 베이비 박스를 찾아가곤 한다,



피난처. 요르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난민선교를 다녀와서

권나은 _ 세브란스병원



2016년 9월 23일. 2015년 네팔 지진 이후로 일년여만에 진료지원을 위해 요르단으로 떠나는 길. 작년 네팔 때와 사뭇 달랐다. 재해로 인한 급성손상이나 질환, 잠재적인 여진 위협으로 인해 상당한 각오를 한 상태에서 무사히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당시 전우애를 나눈 의료진 몇 명과 다시 함께 하게 되어 든든한 건지, 작년보다 한결 의연하게 한국을 떠날 수 있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딸이 의료선교를 떠난다며 흰 봉투에 10만원을 담아 건네셨고, 그것으로 현지 스텝과 난민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마련했다.

요르단을 오가는데 상당시간을 소모하고 겨우 4일 활동할 수 있으니 참 짧게 느껴져 조바심이 났다. 네팔 때는 여러면에서 급작스럽고 서

틀렸다면, 이번엔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알차게 준비하고 신속하게 팀을 구성해 필요한 물품을 배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파견경험자도 비경험자도 모두 발빠르게 호흡을 맞추어 점점 RPM을 높일 수 있었다.

숙소 화장실이 냄새나고 청소상태가 청결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음식이 지나치게 짜서 먹기 힘들었지만(쌀밥에도 소금기가 있어서 오이를 엄청 먹게 된다) 결코 불평할 수 없는 시내 호텔에 묵으면서 아침저녁을 챙겨먹을 수 있는 것도 호사라 느껴졌고, 점심마다 흡입하듯 먹은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참 행복했다.

처음 이들은 제라시에 있는 시리아 난민 어린이학교에서 진료했는데 이동하는 길에 저 멀리 흐르는 압복강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 '저기가 바로 야콥이 천사와 씨름하던 곳인가? 너무 멀어서 그런지 시내처럼 보이네.' 사진으로 남기고 싶었지만 쓴살같이 지나가버렸다.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약국은 1층에 위치하고 접수, 활력증후 측정 및 질환분류,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는 2층. 나는 약국에서 처방약 조제 및 주사약물 투여를 담당했다. 두층으로 나누어져 동선이 약간 비효율적일거라 생각했지만 선교사님들과 현지인들의 도움으로 수월하게 마칠 수 있었다. 종일 서서 일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들 표정에서 호의와 환대를 느낄 수 있어 피곤한 줄 몰랐다.

셋째날부터는 바카로 이동해 난민학교에서 진료할 수 있었는데, 장소 컨디션이 기대이상으로 좋았고 시리아 난민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난민도 상당수 있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난민들이 허름한 차림에 비위생적일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한껏 치장한 듯 형형색색의 부르카와 액세서리, 멋진 가방을 걸치고 온 모습. "이들이 정말 난민이 맞나요?" 우리를 도와주던 한국인에 물었더니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지만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돼요. 손님을 대할 때 잘 차려입어야한다고 생각해서 가장 좋은 것을 두르고 오는 것" 이라 일러준다. 아니나 다를까, 히잡과 부르카를 걷어내고 보면 허름한 옷들이 드러난다.

상기도 질환과 요로질환이 다수이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과 척추질환, 피부질환 및 옴 환자와 간단한 외과적 시술 케이스도 있었지만 응급처치를 요하는 증상은 거의 없었다. 가임기 여성과 소아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산전진찰을 원하는 산모들로 북새통을 이루었다. 애가 4-5명씩 있는데도 남편의 담석증이나 정맥류 때문에 임신이 안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남편을 시리아에 두고 왔거나 공습경험으로 인해 악몽과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환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준비하는 동안 간단한 아랍어를 익혀가려고 공부했지만 현지인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듣고 공감을 표현하기에는 언어의 벽이 너무 높고, 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다. 약보다 경청과 공감, 치료적 의사소통이 절실한 사람들이 있을텐데...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손잡고 고개를 끄덕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너무 안타까웠다. 그저 마주치는 사람마다 웃으며 신의 평안을 빌어주는 게 최선이었다. 우리 팀에 정신과 교수님이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위안하며...

돌아오기 전날은 오프로 보낼 수 있어서 관광 및 호텔, 교통, 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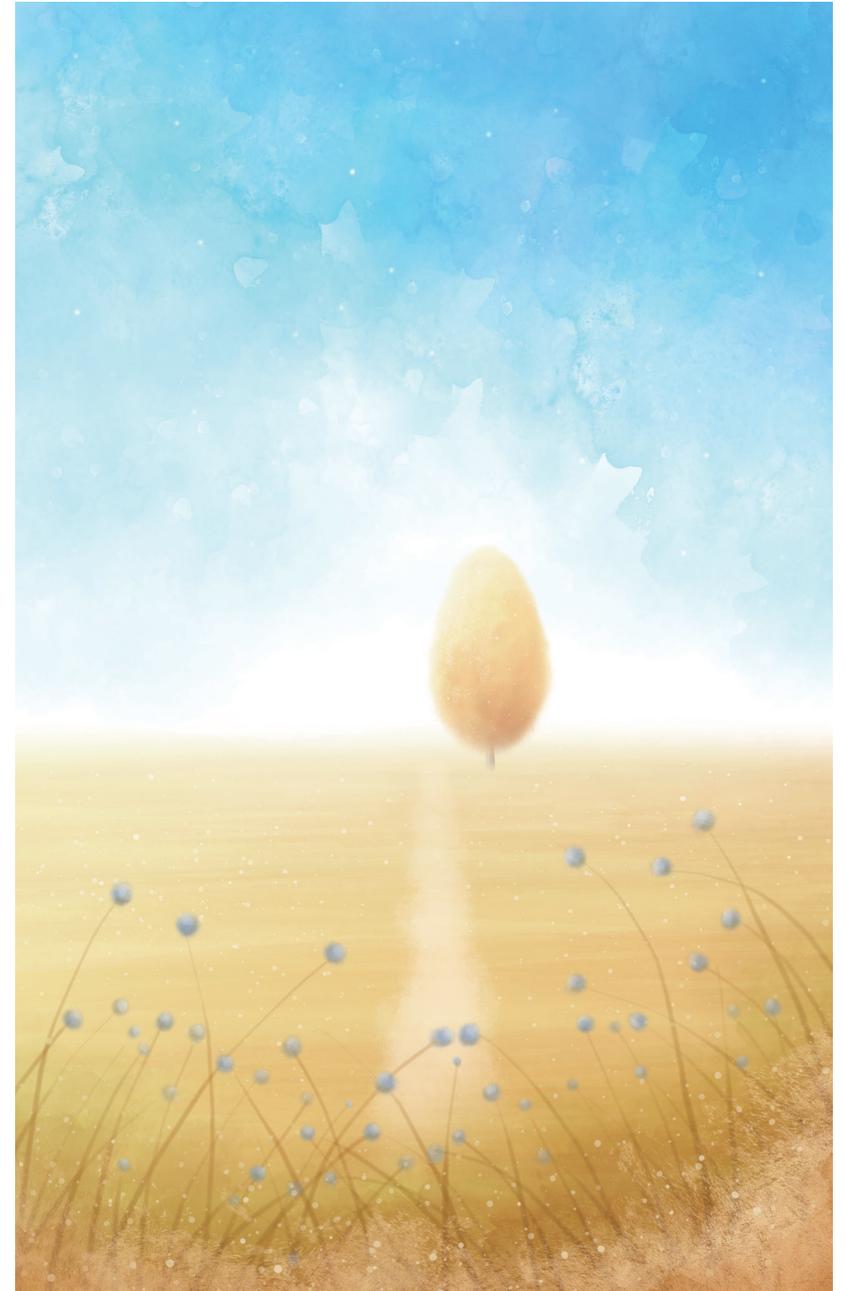
등의 명목으로 사비를 건어서 페트라를 보고 사해근처 호텔에 묵었는데, 세계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페트라에 대해 무지했던 나도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요새같은 좁고 높다란 협곡을 걷고 또 걸은 끝에 비로소 위용을 드러낸 알 키즈네. 페트라를 건설한 나바테아인(人)들이 산을 깎고 다듬어 만든 때는 무려 2000년 전인데 페르시아 만과 홍해, 지중해를 잇는 고대 무역로의 중심이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사해리조트에서 자고 일어나 적막한 사해건너 여리고와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휴전선 건너 북한을 바라보는 듯한 묘한 느낌이 들었다. 죽어있는 바다라는 이름에 비해 사해는 지나치게 푸르고 아름다웠다.

주어진 기간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일회성 지원은 늘 아쉬움이 남는다. 단 며칠 돌본다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구심과 함께, 환자들이 처방대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운동을 할지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너무나도 고마워하던 사람들을 볼 때 봉사를 통한 나의 기쁨이 더욱 크고, 매순간 좀 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들의 웃는 표정을 떠올리면서 지구 다른 한편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료기관의 일원이라는 것이 뿌듯하고, 이런 활동을 후원해준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참 고마운 마음이 크다. 앞으로도 여러 단체의 협력으로 난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들이 전쟁의 트라우마에서 회복되어 정착하고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살람 알레이쿰(당신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간호사, 플러스 스토리

요즘 간호사 뭐하니?

편집위원

위원장 변은경 전 이대목동병원 간호부원장

위원 박미란 전 강북삼성병원 간호본부장

손수진 분당서울대병원 중환자실 전문간호사

정태연 강북삼성병원 소화기암센터 간호사

초판 1쇄 발행 | 2020년 1월 31일

발행처 : 병원간호사회

발행인 : 박영우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182(장충동 1가)

전 화 : 02-2261-1711~4

팩 스 : 02-2261-1715

이메일 : khna@khna.or.kr

홈페이지 : www.khna.or.kr

비매품



병원간호사의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

